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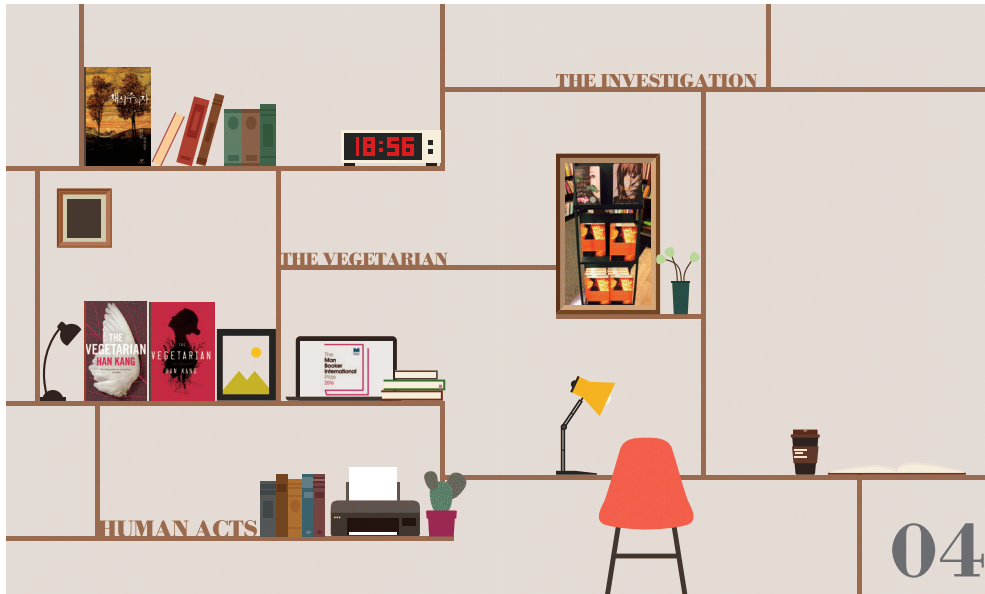
12. 2016 + 0
2017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7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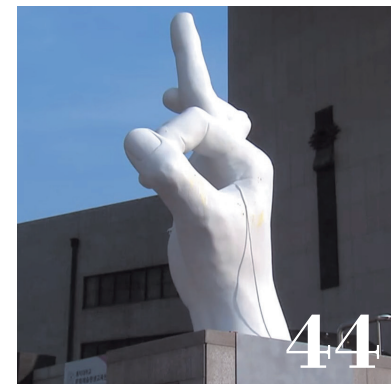




7월의 테마토크

한국문학 세계화의 화두, 번역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로 꼽히는 맨부커상을 수상하면서 한국문학의 잠재력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도 좀 더 넓게 열렸다. 특히 이번 수상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역자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이 거론된다. 작가 특유의 서정적인 문체를 효과적으로 살린 것이 주효했다는 것. 세계 여러 무대에서 한국문학이 호평받고 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때, [문화+서울] 7월의 테마토크에서는 한국문학의 번역에 대해 조명해보고자 한다.



사람과 사람

‘스트리트뮤지엄’ ‘예술통 축제’ 만든 박동훈 핸즈BTL미디어그룹 대표

후미진 필동 인쇄골목에 3년 전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작고 독특한 전시 공간, 이른바 ‘스트리트뮤지엄’이 하나둘 주변에 들어서면서 ‘예술골목’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 거리를 지나는 이들 누구나 24시간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에는 온기가 돈다. 놀랍게도 이 변화는 개인이 사비를 털어 진행하는 것이다. 지난 5월에는 예술가 120여 명이 참여한 골목축제를 기획했다. 필동 24번지 핸즈BTL미디어그룹 박동훈 대표의 이야기다.

진실 혹은 대담

공공성을 명목으로 한 선택, 배제, 검열

최근 몇 년 사이 문화예술계 전 장르에서 검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돼왔다. 연극, 영화, 미술계에서 권력의 입김을 의심할 만한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더 심각한 것은 권력이든 시장 메커니즘이든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예술행정과 예술가 심지어 시민들까지 점점 무감각해지는 상황이다.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정책위원회 예술가소위의 첫 번째 의제로 검열의 일상성을 다루어보았다.

쟁점2

홍대 일베 상징 조형물과 표현의 자유

지난 5월 홍대 정문에 등장한 일베 상징 조형물과 이를 훼손한 사건은 ‘표현의 자유’ 논쟁에 불을 지폈다.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보장해야 할까, 타인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훼손하는 것은 정당한 일일까.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contents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조선희

편집기획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 오니트(주)

디자인 오니트(주) 사진 249 스튜디오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00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발행일 2016년 6월 30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02 커버스토리 | 이달의 표지 작가 서기환

테마 토크

한국문학 세계화의 화두, 번역

- 06 출발어와 도착어 사이 제2의 창작, 번역 | 한국문학에서 세계문학으로
- 12 한강 작가 신작 소설 〈흰〉 낭독회 현장 |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으로 글을 쓴다”
- 14 소설 〈채식주의자〉번역가 데보라 스미스 기자간담회 현장 | “문학은 천천히 오래 번져나가는 것”
- 16 글로벌 무대에서의 한국문학 | 작품, 좋은 번역, 활발한 세일즈의 조화

사람과 사람

- 20 ‘스트리트뮤지엄’ ‘예술통 축제’ 만든 박동훈 핸즈BTL미디어그룹 대표 | 필동 인쇄골목에 예술의 싹을 틔우다
- 26 AiE심화과정 연구 및 운영 교수 3인 | 예술, 그리고 예술교육의 의미

- 30 진실 혹은 대담 | 공공성을 명목으로 한 선택, 배제, 검열
- 38 예술가의 밥그릇 | 동심을 바느질하는 컬러링북 아티스트 송지혜
- 40 서울 잘나 | 내가 세상에서 가장 질투하는 것, 당신의 첫,

이슈&토픽

- 42 쟁점 1 | 조영남 작품 대작(代作) 논란
- 44 쟁점 2 | 홍대 일베 상징 조형물과 표현의 자유
- 46 화제 1 | 〈바람난 미술〉 ‘그림가게’ with 카카오
- 48 화제 2 | 서울예술교육총서 신간 발간

50 아트 캠페인 〈바람난 미술〉

공간, 공감

- 52 공간 1 | 문래예술공장 지역문화예술 지원 프로젝트 〈MEET〉
- 54 공간 2 | 일상을 벗고 예술로 씻는 행화탕
- 56 공감 1 | 연극 〈햄릿〉과 〈리어 누아르〉
- 58 공감 2 | 전시 〈오를랑 테크노바디 1966-2016〉와 〈미스터 브레인워시: Life is Beautiful〉
- 60 공감 3 | 책 〈고맙습니다〉와 〈웃으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방법〉

62 예술적 상담소

Soul of Seoul

- 64 메모리 인 서울 | 한강이 수상 레포츠포츠와 시민의 쉼터로 자리 잡기까지
- 66 서울 단상 | 서울살이가 담긴 노래 〈서울 사람〉 〈300/30〉 〈이호선〉
- 68 이명석의 썰(設) | 예술의 매체, 광장의 목소리가 된 포스트잇
- 70 장운선의 음악 정원으로 | 클래식 음악의 연주와 평가에 대해
- 72 서울 건축 읽기 |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한국 건축의 ‘융적’ 게임

74 연극 10분 회극 릴레이 | 김호준 작 〈바람을 잡다〉

7월의 서울문화매뉴얼

- 76 7월 Calendar
- 84 편집 후기



〈사람풍경_Insomnia II〉
비단에 채색 | 130.3×97.0cm | 2015



〈사람풍경_Jungle Life2〉
비단에 채색 | 112×145.5cm | 2014

이달의 표지 작가 서기환

나는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의 행복을 그린다. 이것은 물론 현실을 기초로 한 상상화다. 내가 겪고 살아가는 가정의 일상을 희화화해서 초현실적으로 유쾌하게 풀어낸다. 그림에는 전투복 개념의 검은 슈트를 입은 남편과 머리띠를 한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등장한다. 가족의 다양하고 생생한 삶의 체험, 그 장면들을 일기 쓰듯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한 장의 스냅사진 같다. 사진이 대상과 사실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저장하는 매체라면, 그림은 거기에 상상과 꿈, 희망, 행복 등을 섞어 표현한다. 그래서 현실적인 동시에 다소 비현실적이고 상상과 '쾌(快)'가 뒤섞인 사람 풍경이 된다. 매일 살을 비비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삶의 무게와 인간관계, 행복과 상상 등이 현실에서는 좀처럼 가능하지 않더라도 그림에서는 가능하도록 좀 더 유쾌한 세계로 풀어가려 한다. 나는 그림을 통해 '가족은 바로 나이며 행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려 한다.

표지작 〈사람풍경_Night travel〉은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장면을 담은 작품이다. 두 아이를 데리고 길을 나서면 모든 게 즐겁지만은 않다. 낮에는 고속도로가 차로 꽉 막히기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떠나고자 아이들이 잠드는 밤에 길을 나선다. 남편은 쉬지 않고 운전을 해야 하며, 아이들은 뒷좌석 키드시트에 몇 시간을 묶여 있어야 하고, 아내는 정신없이 아이들을 챙기고 먹여야 한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지친 여행을 일탈을 꿈

꾸는 여행길로 바꿔 그려보았다.

아이들은 키드시트에서 벗어나 바람을 느끼며 자유로이 날아다니고, 아내는 육아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상징하는 낚시를 즐긴다. 육지를 달리던 자동차는 물고기로 변해 바다를 쉬지 않고 달리지만, 남편은 가족의 일탈을 위해 묵묵히 자기 일을 해야 하는, 변함없는 상황을 물속에서 잠수 모자를 쓰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해보았다. ^{서기환}



표지작 〈사람풍경_Night travel〉
비단에 채색 | 145.5×112cm |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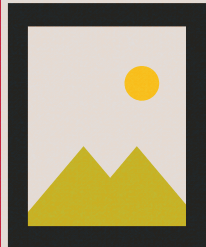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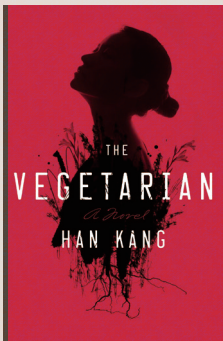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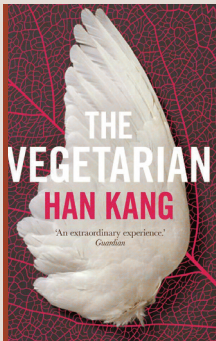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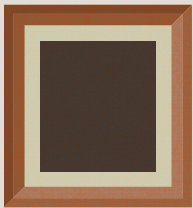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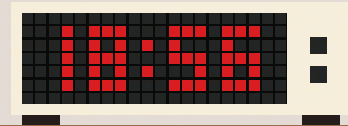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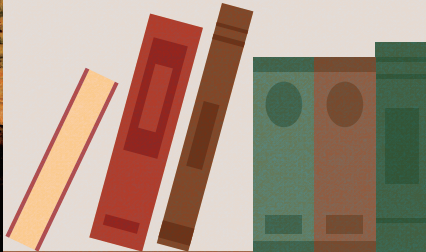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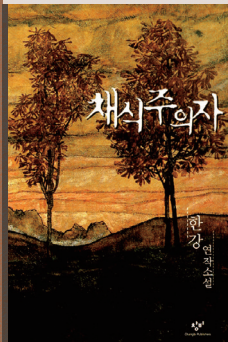
서기환

2015~2016년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 분야 지원작가. 계명대학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동양화와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서기환-사람풍경〉(충무아트홀갤러리, 서울, 2015)을 비롯한 18회의 개인전과 〈봄엔 사랑〉(암웨이 미술관, 경기), 〈21세기 풍속화〉(이천시립월전미술관, 경기)를 비롯해 다수 그룹전을 통해 관객과 만났다. 피로한 일상의 풍경을 특유의 상상력을 가미해 재치 있게 묘사한 '사람풍경' 연작을 선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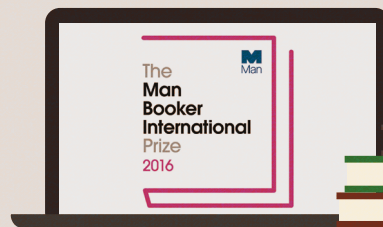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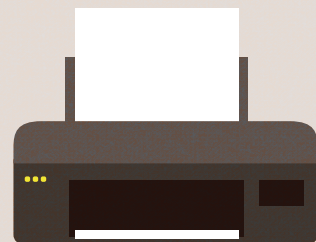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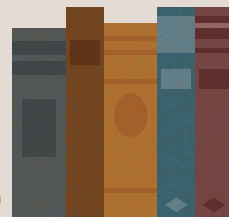
〈나무종경, Father tree〉
비단에 채색 | 91.0×72.7cm | 2014



THE VEGETARIAN



HUMAN A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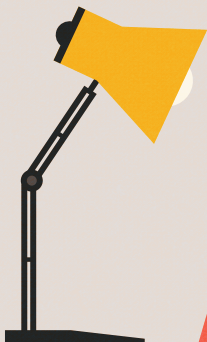


THE INVESTIGATION



한국문학 세계화의 화두, 번역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로 손꼽히는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하면서 한국문학의 잠재력을 세계에 알릴 기회도 좀 더 넓게 열렸다. 이번 수상에는 역자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이 큰 역할을 했다고 거론된다. 작가 특유의 서정적인 문체를 효과적으로 살린 것이 주효했다는 것. 세계 여러 무대에서 한국문학이 호평받고 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때, 어떤 노력이 뒷받침돼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는지, 한국문학이 세계적으로 읽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번역'을 중심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출발어와 도착어 사이 제2의 창작, 번역

한국문학에서 세계문학으로

번역은 또 다른 창조 작업이다. 양측 언어의 특질과 작가 및 작품의 배경이 되는 국가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며, 원작을 동일하게 옮길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문학을 해외에 알리는 과정에서 ‘번역’을 중요시해온 노력은 해외 독자의 점진적인 호응과 중요 문학상 수상의 쾌거로 돌아왔다. 이제 한국문학의 세계 무대 진출은 다른 단계에 접어들었다. ‘왜 한국문학이 세계적으로 읽혀야 할까’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질 때다.

“Dark woods. No people. the Sharp-pointed leaves on the trees, my torn feet.”

“Dawn breaking as slowly as an iceberg, every slowly sort of cracks away”

“I had never considered the possibility that our life together might undergo such an appalling 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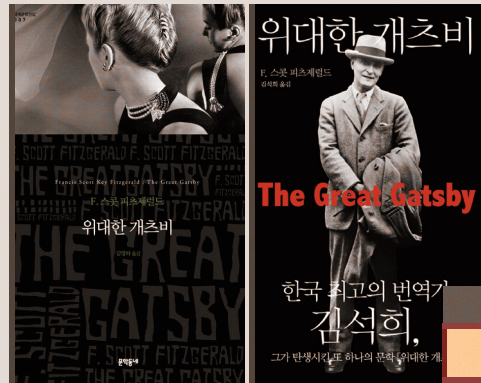
“The thing that hurts is my chest. Something is stuck in my solar plexus. I don’t know what it might be. It’s lodged there permanently these days. Even though I’ve stopped wearing a bra. I can feel this lump all the time. No matter how deeply I inhale, it doesn’t go away. Yells and howls, threaded together layer upon layer, are enmeshed to form that lump. Because of meat. I ate too much meat. The lives of the animals I ate have all lodged there. Blood and flesh, all those butchered bodies are scattered in every nook and cranny, and though the physical remnants were excreted, their lives still stick stubbornly to my insides.”

“어두운 숲이었어. 아무도 없었어. 뾰족한 잎이 돋은 나무들을 헤치느라고 얼굴에, 팔에 상처가 났어.”

“서서히 조여 오는 거대한 열음 같은 새벽빛 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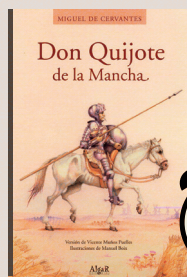
“나는 우리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상상한 적이 없었다.”

“아픈 건 가슴이야. 뭔가가 명치에 걸려 있어. 그게 뭔지 몰라. 언제나 그게 거기 멈춰 있어. 이젠 브레이저를 하지 않아도 덩어리가 느껴져. 아무리 길게 숨을 내쉬어도 가슴이 시원하지 않아. 어떤 고향이, 울부짖음이 겹겹이 뭉쳐져. 거기 박혀 있어. 고기 때문이야. 너무 많은 고기를 먹었어. 그 목숨들이 고스란히 그 자리에 걸려 있는 거야. 틀림없어. 피와 살은 모두 소화돼 몸 구석구석으로 흩어지고, 찌꺼기는 배설됐지만, 목숨들만은 끈질기게 명치에 달라붙어 있는 거야.”



제2의 창작, 번역

지난 6월 15일 <뉴욕타임스>는 이례적으로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 전날 작고한 한 번역가의 부고 기사를 실었다. 기사의 주인공은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그레고리 라바사 (Gregory Rabassa)라는 인물이다. 그는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스페인 문학과 포르투갈어 문학을 전공한 후 20여 년간 같은 대학에서 강의했고, 후에 뉴욕시립대학 퀸스칼리지로 자리를 옮겨 은퇴하기까지 라틴아메리카 문학을 미국 (영어권)에 소개한 번역가다. 그는 1967년 아르헨티나의 소설가 훌리오 코르타사르의 실험성이 강한 소설 <팔방미기 놀이>를 번역해 그해 내셔널 어워드 번역상을 수상했고, 이후 가르시아 마르케스, 옥타비오 파스,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등 라틴아메리카 출신의 노벨상 수상 작가의 작품-그의 번역 공로를 높이 평가하기 위해 굳이 말한다면 그의 번역 이후 이 작가들은 노벨상을 수상했다-, 브라질 현대 소설의 대표적인 작가인 조르주 아마도의 소설, 스페인어권 독자와 연구자들조차 고개를 저을 정도로 난해한 작품인 쿠바의 소설가 레사마 리마의 <천국> 등 라틴아메리카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의 작품을 30여 년간 번역했다. 그 과정에서 1977년 펜 번역상, 1982년에는 번역 부문 펜·랄프만하임 메달, 2001년에는 그레고리 콜로바코스상을 수상했고 2006년에는 그의 번역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 예술 메달(National Medal of Arts)을 받았다.



THE OWL'S ABSENCE

그의 번역을 둘러싼 일화는 무수히 많지만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들자면,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친구인 훌리오 코르타사르의 조언을 받아들여 3년을 기다리며 자신의 소설 <백년의 고독> 번역을 그에게 의뢰했다.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죽장의 가을> 등 다른 많은 소설도 그에게 번역을 의뢰했는데 마르케스는 그를 영어권의 가장 뛰어난 라틴아메리카 작가라고 평했다. 미국에는 스페인어와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히스패닉이 많은데 그들은 라틴아메리카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스페인어본보다 그레고리 라바사의 영역본을 선호한다고 한다. 미국 문단과 문학 연구자들이 '소설의 고갈'을 심각하게 논의하던 즈음 다시 '소설의 소생'을 이야기하게 하고, 대학에서 라틴아메리카 문학작품을 읽고 토론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그인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문학은



RECITATION

번역, 송신자가 아닌 수신자의 과제

언제부터인가 한국문학의 과제 중 하나가 한국어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었다. 거기에서 만난 것이 번역이다. 한국 문학 세계화의 1차 과제가 번역이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번역에 대한 심각한 인식의 오류가 발생했다. 한국문학의 번역 문제가 한국문학이 짊어져야 하는 과제로 둔갑한 것이다. 이런 사정은 한국문학을 제대로 번역할 수 있는 번역가가 많지 않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타자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지나치게 작동하고 있는 데서 연유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한국문학은 우수하다’라는 자부심과 함께, 이러한 생각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했을 때도 언론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한국문학은 우수한데 그동안 번역이 시원치 않아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면서 작가 이상으로 작품을 번역한 번역가를 조명했다. 이런 자세가 문제가 되는 것은 뒤에 더 논의하겠지만 왜 한국문학이 국제 진출을 해야 하고 교류를 해야 하는가 하는 목표 설정의 문제에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외국 문학을 번역 수용하는 우리 현실로 돌아와 다시 생각해보자. 현재 국내 대형 출판사에서 출간되어 많이 읽히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 대한 두 가지 번역본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옛날, 이름까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라만차 지방의 어느 마을에...” “라만차의 어느 마을, 지금 그 마을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여하튼 얼마 전 그곳에...” 독자는 당장 궁금할 것이다. 화자는 그

1960년대 이전에는 영어권 독자에게 거의 소개된 바가 없었고, 따라서 그 존재감이 없던 문학이다. 그레고리 라바사는 번역을 통해 생소한 외국 문학을 자연스럽게 미국 문학으로 만들어 미국 문학을 풍성하게 했다. <뉴욕타임스>는 부고 기사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소설가들이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하던 1960년대에 그들 문학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입구”였다고 그를 평가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 그가 생전에 받은 상과 메달과 훈장은 라틴아메리카 문학을 미국에 잘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정부가 수여한 것이 아니다. 그에 의해 작품이 번역된 라틴아메리카 작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그의 번역을 극찬하고 노고에 경의를 표했지만, 그의 죽음을 추모하는 부고 기사는 스페인어권이나 포르투갈어권 언론의 기사보다는 미국과 미국의 통신(AP)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문학작품의 번역과 번역가 문제는 작품을 생산한 국가의 관심거리라기보다는 그것을 번역해 수용하는 언어권 독자들의 문제다.



THE WHITE BOOK ! &

라만차 마을 이름을 잊었는가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가. 중학교를 마치면 누구나 원어로 암송하는 햄릿의 저 구절,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는 과연 원문에 맞는 번역인가. 이상하리만치 한국 독자가 사랑하는 미국 소설 <위대한 개츠비>를 국내의 한 유명한 소설가가 번역한 것이 다른 번역본과 비교되면서 번역의 문제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논란이 있었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작품을 생산한 국가의 문예 기관이나 학자들이 상기한 한국어 번역본에 대해 잘된 번역이니 아니니 논의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올해 세르반테스 서거 400주기를 기념하는 다양한 문학 학술 행사가 세르반테스 인스티튜트를 주축으로 치러지지만 <돈키호테>에 대한 외국어 번역의 질을 논의하는 마당이 있다는 걸 필자는 알지 못한다.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기를 맞는 영국의 브리티시 아트 카운슬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글로벌한 문학 번역 지원 프로그램, 특성화에서 스탠더드 방식으로

번역이 송신자의 문제가 아니라 수신자의 문제라는 것은 자국 도서의 외국어 번역 출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명료해진다. 영국이나 미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 대부분과 상당수의 아시아, 중남미 국가들이 자국 도서의 외국어 번역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문학 작품의 외국어 번역 지원을 마치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으로 오해해 이를 비정상적인 임시방편의 제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더러 있는데 이는 밖의 사정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도서의 숫자로만 보면 자국 도서 외국어 번역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많은 도서를 지원하는 국가는 국제 출판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독일과 프랑스다. 한국의 한국문학 외국어 번역 출판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만의 특수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프로그램이다.



A GREATER MUSIC

단, 이런 글로벌한 프로그램을 한국에서는 우리만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은 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샘플 번역의 질을 가장 중요한 지원 선정 기준으로 삼아왔다. 외국의 자국 도서 번역 지원 프로그램도 샘플 번역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까. 필자가 조사한 20여 국가의 자국 도서 외국어 번역 출판 지원 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번역의 질을 평가하지 않는다. 신청 서류에 샘플 번역은 없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요청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는 도서의 출간에 전제되는 저작권 계약서 사본이다. 그리고 지원금은 번역가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도서를 번역·출판하고자 하는 외국 출판사에 준다. 단 지원금의 명목은 번역 지원금이며 번역가에게 지원되도록 조건을 단다. 사업의 검증은 책이 번역·출간된 후 한두 권을 답변받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자국의 도서가 외국에 잘 수용될 수 있도록 번역을 진흥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지만 번역의 질에 대한 검증은 번역이 이루어지고 수용되는 곳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다시 비교해 정리하면, 외국 지원 프로그램은 이미 번역 출판을 위한 저작권 계약이 이루어진 도서의 번역지원금을 해당 출판사에 지원하고, 우리는 아직 출판사가 정해지지 않은 한국문학 작

품을 (샘플)번역 지원해 이 원고로 출판사를 섭외해가는 과정이다.

수용자의 것인 번역 문제를 송신자가 끌어안고 있어야 하는 우리의 사정은, 앞서 언급했지만 신뢰할 만한 번역가가 많지 않고 또 한국문학 작품이 해외 출판 시장에서 활발하게 저작권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우수한 번역가가 나오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해외 출판사 담당자들에게 한국문학이 매력 있는 문학이라는 설득이 동반되어야 한다. 한국문학번역원은 2년 과정의 한국문학번역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젊은 원어민 번역가를 키워내고 있다. 이 새로운 젊은 번역가들이 이제 한국문학의 번역을 짊어질 것이다.

또한 작년부터 외국의 자국 도서 번역 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해외 출판사가 한국문학 작품의 저작권을 계약하고 번역가를 선정해 지원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번역의 질을 평가하는 대신 원작의 작품성, 출판 계획의 타당성, 출판사의 위상 등을 판단해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번역원은 해외 출판사에 한국문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그들 스스로 번역 출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시행 첫해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작품이 이런 방식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글로벌 스탠더드 방식으로 가는 것이다.



지금, 한국문학 세계화 과정의 새로운 단계

정부 차원에서 한국문학 세계화 사업이 시작된 이후 30여년간 우리는 끊임없이 번역에 집착했다. 그런데 이제 한강 작가의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 수상은 한국문학의 국제 진출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문학이 그토록 간절하게 바란 외국의 권위로부터 비롯된 인정-그 인정을 받고자 우리는 좋은 번역에 그리 매달렸다는 다시 우리 문학을 돌아보게 하고 있다. 한국문학 연구자와 독자는 과연 출간된 지 10년 된 이른바 세계 3대 문학상 수상작을 어떻게 읽었고 평가했는가.

T.S. 엘리엇은 과거의 작품에 의해 구축된 예술 전통은 후대에 생산되는 작품에 의해 끊임없이 수정되고 재편된다고 했다. 한국문학의 전통은 일차적으로 한국문학 연구자, 그리고 한국 독자에 의해 세워졌고 엘리엇의 주장대로 지금도 수정되고 재편되면서 살아 움직인다. 그런데 그것은 한국인에 의한 한국문학의 가치 평가와 전통이었다. 이제 한국문학은 외국의 권위라는 새로운 평가자와 만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문학의 국제 진출과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타자의 시각이 들어오면서, 한국문학에 대한 평가도 좀 더 넓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문학의 전통

을 한국인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게 되었다. 우리가 이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다면 한국문학은 한결 풍성해질 것이고 한국문학의 가치와 전통은 한국인만의 것이 아니라 세계문학의 전통과 자산으로 확장될 것이다. 한국문학이 왜 국제적으로 널리 읽혀야 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올해 8월부터 문학진흥법이 시행된다. 한국문학을 다룬 문화예술 장에서 때어내어 체계적으로 진흥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기구를 두도록 법으로 정한, 한국문학에서 일대 사건이다. 이 법은 크게, ① 한국문학의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전, 연구하고, ② 당대 문학의 창작 활성화와 국민의 향유를 증진하며, ③ 한국문학의 유산과 성과를 해외 진출과 국제 교류를 통해 세계문학·독자와 공유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①을 위해 설립되는 기구가 국립한국문학관이고, ②를 위해서는 작가와 독자를 대상으로 예산을 동반한 다양한 지원 제도와 프로그램이 실행될 것이며, ③을 위해 한국문학번역원이 한국문학의 국제 진출과 교류를 담당하게 된다. 그동안 한국문학에서 이 세가지 단계는 개별적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문학진흥법으로 한국문학의 국내 창작과 해외 진출을 하나의 논리선상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다. 우수한 한국문학 작품이 생산되면 자연스럽게 해외 진출이 이루어지고, 해외에서의 평가는 다시 한국문학에 자양분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한국문학이 국제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한국문학을 풍성하게 하려는 데 있어야 하고 한국문학의 사유와 지평이 전 지구적인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레고리 라바사는 1974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번역가가 펜을 들기 전에 이미 작가의 기량이 전쟁의 승패 절반을 좌우합니다. (중략) 원작이 좋은 경우 번역을 망치기 위해서는 번역가의 난도질이 필요하고, 작품이 위대하면 어쨌든번역가도 번역해도 그 진가는 살아납니다.” 라바사가 아니었어도 라틴아메리카의 걸작은 누군가에 의해 영역되고 불을 일으켰을 것이다. 전 유럽에서도 라틴아메리카 소설은 불을 일으켰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경우 적지 않은 작가와 독자들이 중역으로 출간된 <백년의 고독>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하지 않았던가. 당연한 이야기지만 번역이 아무리 중요해도 한국문학의 국제 진출의 바탕은 ‘작품’이다. ³²⁾

글
고영일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출판본부장

사진 제공
한국문학번역원



한강 작가 신작 <흰> 낭독회 현장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으로 글을 쓴다”

지난 6월 한강 작가의 신작 <흰> 낭독회 자리에는 그의 팬이 100명 남짓 자리해 작가의 소설 낭독을 경청했다. 오랜만에 ‘그의 편’을 만난 작가는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며 글을 쓴다는 것, 작품을 이어간다는 것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지난 6월 16일 마포아트센터에서 한강 작가의 신작 소설 <흰> 낭독회가 진행됐다. 지난 5월 소설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한 후 서점가에서 <채식주의자>의 판매율이 급등했고 귀국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 1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리는 등 그에 대한 대중과 한국 언론의 관심은 크게 고조됐다. 기자간담회에서 “빨리 내 방에 숨어서 글을 쓰고 싶다”고 밝혔듯 갑자기 집중된 스포트라이트가 편하지 않았을 터. 그래서인지 낭독회를 시작하며 한강 작가는 “이

제야 제 편이 모인 자리에 온 것 같아 기쁘다”며 긴장을 푼 듯 웃어 보였다. 온라인 서점 네 곳을 통해 참여를 신청한 독자들만 모인 자리였기에 그의 기존 작품과 수상에 대한 이야기보다 신작을 천천히 편하게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란 뜻이었다. 작가의 기대처럼 이날 낭독회는 작가와 사회자(문학평론가 권희철)의 소설 <흰> 낭독으로 대부분 채워졌다. 세간의 열기와는 달리 작품에 집중된 차분한 대화와 소소한 유머가 오간 자리였다.

‘화이트’도 ‘하얀’도 아닌 ‘흰’

낭독회는 한강 작가와 사회자가 소설에서 준비한 부분을 낭독하고 중간중간 그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는 형식이었다. 몇 챕터의 낭독을 마치고 작가는 소설의 집필 배경에 대해 이야기했다. <흰>은 그가 2014년에 폴란드 바르샤바에 머물며 구상하고 집필을 시작한 책이다.

“<소년이 온다>를 쓸 때 님들이 제게 아주 가까이 와 있다고 느꼈고, 혼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흰 것에 대해 쓰고 싶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구요. 그런 님과 흰 것에 대해 생각할 때 바르샤바에 가게 된 거예요.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던 도시가 복원된 모습을 보면서, 그 도시를 닮은



사람을 상상하게 됐고 그런 이미지가 확장되어서 책을 쓰게 됐죠. (중략) 〈흰〉은 저의 내면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간 책이에요. 밝지만 그 안에 삶과 죽음이 다 들어 있는, 그런 흰 것에 대해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를 닮은 사람’은 실제 태어난 지 두 시간 만에 숨을 거두었다는 한강 작가의 언니다. 소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언니에게 작가가 건네는 마지막 인사이자 담담한 선물로 느껴지기도 한다. 〈흰〉 출간기념회에서 그는 “그 사람에게 삶의 어떤 부분을 주고 싶다면 그건 아마 흰 것들일 거라고 생각했다. 더럽히려야 더럽힐 수 없는 투명한 생명, 눈부신 것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설에 등장하는 65개의 소재와 ‘흰’이라는 제목 자체에는 삶과 죽음이 공존한다.

이런 의미는 영어 부제에서도 드러난다. 한국판 〈흰〉에는 ‘The Elegy of Whiteness(엘레지 오브 화이트니스)’라는 부제가 붙었는데, 이 부제는 영문판의 제목이기도 하다.

“하얀’하고 ‘흰’은 느낌이 다르죠. ‘흰’이라는 형용사의 상태에 있을 때 삶과 죽음의 서늘함이 다 담긴다고 생각했어요. 영국의 편집자와 이야기 나누다가 ‘하얀’과 ‘흰’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영어로는 다 똑같아서 그것을 표현하려면 제목을 이렇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물어보더라고요. 어찌

면 이 영문 제목을 부제로 넣으면 한국 독자들도 ‘흰’의 느낌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제를 붙이게 됐어요.”

의도하지 않은 독특한 실험

작품에서 한강 작가 특유의 시적인 문체와 이미지의 강렬함은 그대로다. 종종 시(詩) 혹은 산문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일반적인 소설에 비해 챕터가 잘게 나뉘어 읽기 편하게 다가오면서도 소설로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작가는 작품의 형식적인 면에 대해 “실험의 의지 없이 써가다 보니 실험적인 형식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흰〉 역시 해외 출판을 타진하기 위해 해외 에이전트에 전달됐다. 〈채식주의자〉의 번역가 데бора 스미스는 ‘〈채식주의자〉가 지닌 연작소설이라는 형식이 영국에는 없는 것이라 신선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 작품 역시 형식적으로 독특하고, 모티프가 보편성을 띠는 동시에 각 소재의 한국적인 특징이 더해져 한국뿐 아니라 해외 독자에게도 매력적으로 읽힐 것으로 기대된다.

작가가 던지는 질문을 따라가는 경험

낭독회의 말미에 권희철 평론가가 “이 책의 구성이 나와 그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흰 것과 마주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고 건네자 작가는 자신의 글쓰기에 대해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으로 글을 쓴다”고 답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언어로서 무엇을 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책 속의 이야기에게 감히 줄 수 있다고, 주고 싶다고 생각한 그 흰 순간들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으니, 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흰 것들을 그녀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기도 하고 저 자신, 또 다른 모두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기도 해요.”

소설을 쓰며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이어나가는 식으로 다음 소설을 쓴다는 한강 작가의 낭독회는 그녀의 현재에 대해 듣는 자리였고, 소설 〈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그가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그는 독자와 만나는 자리를 여느 때보다 편하고 즐겁게 여기며 소설만큼 여백이 많은 이야기를 풀어보았다. 한강의 작품을 읽는 것은 끈끈한 대화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연결된 질문, 어떤 끈을 따라가는 경험이다. 이 경험이 지금처럼 차분하게 오래, 지구 어딘가의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지속되기를 기대해본다.

소설 <채식주의자>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 기자간담회 현장

“문학은 천천히 오래 번져나가는 것”

<채식주의자>의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가 지난 5월 맨부커상 수상 이후 처음 한국을 방문해 공식적인 자리를 가졌다. 세계적인 문학상 수상으로 들뜬 한국 언론의 관심과 질문에 그는 수상을 공동의 성과로 돌리며 번역가로서 지닌 소신을 차분히 밝혔다.

번역은 겸손한 작업, 수상은 공동의 성과

지난 6월 15일,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의 주인공 중 한 명인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가 방한해 서울국제도서전 행사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개막한 서울국제도서전 기간 중 한국문학번역원 주최로 열린 ‘한국문학 세계화

포럼’(6. 19)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고, 남은 일정 동안 출판 관계자들과 만나 앞으로의 번역 출판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는 작년에 런던에서 출판사 틸티드 악시스(Tilted Axis Press)를 설립했다. 아시아권 현대문학을 주로 소개할 계획으로 한국문학번역원과도 MOU를 체결해 매년 한 권 이상의 한국 소설을 번역 출판한다. 가깝게는 올해 10월에 황정은 작가의 소설을, 2017년에는 한유주 작가의 작품을 출간할 예정이다.

맨부커상 수상 시점으로부터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났지만 수상 후 첫 한국 방문에 언론과의 공식적인 만남이었기에 취재 열기는 뜨거웠다. 데보라 스미스는 한국 언론의 열띤 반응이 여전히 낯선 모습이었고, 수상 소감을 글로 준비해 먼저 발표했다. 번역가로서 느끼는 책임감을 진정성 있게 드러내고 한강 작가 원작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그녀의 소감은 겸손했다. 이번 수상으로 인해 자신의 번역을 인정받은 것은 기쁘지만 이것이 작가와 번역가 외에 편집자, 에이전시 등 여러 주체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한 ‘공동의 성과’임에 감사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또한 우회적으로나마 번역계의 현실 문제에 대해 짧게 언급하기도 했다. “정하연 교수께서



맨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작
한강 <채식주의자 The Vegetarian> 번역가

〈코리아타임스〉에 밝히신 것과 같이, 배경이나 자격 요건에 따라 특정 번역가를 제외하거나 우선시하는 관행은 위험하다는 말씀을 강조하고자 한다. 번역가의 문학에 대한 애정, 인내심,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이 번역에 이르게 되는 개인적 과정 또는 작품의 출발보다 더 중요하며,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 이와 같은 대안적인 견해도 충분히 필요하다.”

문학은 천천히 확산되는 문화다

데보라 스미스의 소감문 발표 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는데, 한국문학과 번역에 우리가 가진 일종의 고정관념에 대해 차근차근 생각해볼 만한 응답도 있었다. 노벨문학상에 대한 한국 특유의 관심을 드러내는 질문에 그는 “작가가 좋은 작품을 쓰고 독자가 그 작품을 즐기면 그것만으로 작가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상은 그저 상일 뿐이다.”라고 솔직 명료하게 답했다. 한국문학의 매력은 무엇이며 그 확산에 있어 걸림돌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도 인상적이었다.

“한국문학에도 다양한 작가와 작품이 있고, 독자의 취향이 주관적이고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국가마다 ‘우수한 문학

은 이런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문학의 매력에 대해 답하기는 어렵다. 해외에서 번역 출간된 한국문학이 많지 않은데 점점 그 수가 늘면서 해외의 독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학은 본래 확산 속도가 매우 느린 문화다. 성질이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문학이 확산된다는 것은 곧 독자가 특정 문화를 이해할 기회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그 속도가 매우 느림에도 데보라 스미스는 번역가로서 자기 나름의 시도를 즐기는 듯 보였다. ‘한국의 문화적인 개념을 해외에 어떻게 전달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번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소주, 만화, 선생님 같은 표현을 그대로 썼는데, 편집자들은 독자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겠느냐며 소주를 ‘코리안 보드카’로 쓰거나 만화를 ‘코리안 망가’로 쓰는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어떤 문화적인 개념에 대해 그것이 타국의 문화에서 파생했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편집자들을 설득했다. 번역을 계속하면서 즐거운 것은 번역한 작품이 쌓여갈수록 독자들이 그 문화에 대해 느끼는 친밀도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식주의자〉를 번역하고 나서 〈소년이 온다〉를 번역했는데, 〈소년이 온다〉에서는 형, 언니 등의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썼다. 독자들이 이전에 내가 번역한 작품을 읽어서 그 표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국문학 작품을 소개하다 보면 ‘스시’ ‘요가’가 무엇인지 영국인들도 알듯이 한국어에 대해서도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국문학이 세계적으로 읽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데보라 스미스는 자신이 번역가가 된 이유에 대해 ‘내가 사랑하는 작품을 더 많은 사람이 읽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문학상 수상이나 세간의 인정이 아닌 ‘문학의 즐거움’ 자체임을 그는 수차례 강조했다.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자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국문학을 세계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문학의 즐거움을 세계인과 공유하기 위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더 훌륭한 문학작품의 탄생에 기여하기 위해, 그것은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대할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한 번역가는 이야기한다.



글
이아림
사진
김창제

글로벌 무대에서의 한국문학

작품, 좋은 번역, 활발한 세일즈의 조화

문학은 예술 장르 중 창작자를 통한 ‘직접 구매’가 가장 어려운 분야다. 불특정 다수 독자 대부분은 많은 책이 모여 있는 서점, 즉 시장을 통해서 책과 만난다는 뜻이다. 작품과 이를 다른 언어로 전하는 번역의 우수성에 더해 세계시장을 향한 ‘유통 전략’의 조화가 중요한 이유다.



문학이 독자와 만나는 곳은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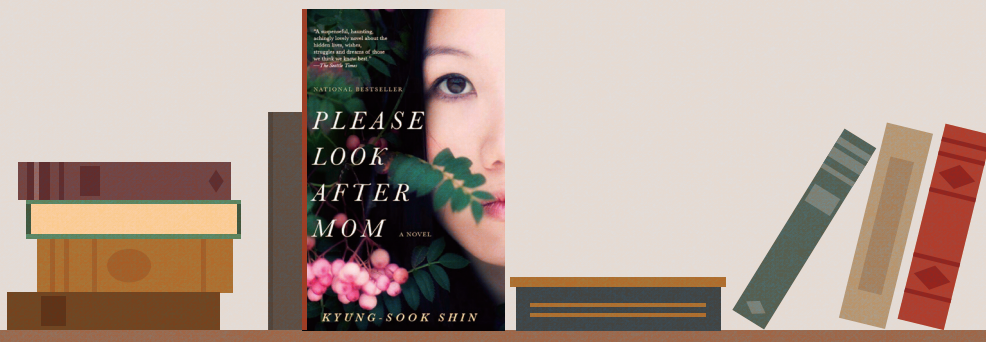
종이가 귀하고 인쇄 문화가 대중에게 널리 보급되지 않았던 그 시절, 조상들은 하나의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하고, 형편이 나은 이는 필사를 통해 그것을 주변과 나누고, 또 보급하기도 했다. 많은 이에게 널리 퍼져나갈수록 그 이야기의 힘은 더 큰 힘을 발휘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수의 고전 문학이 그렇게 전파되며 수백 년을 내려왔다. 그러다가 근현대 들어 출판이라는 하나의 산업과 만나면서 한국문학은 출판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독자와 본격적으로 소통하게 되었다. 결국 문학도 미술이나 음악 등 다른 예술 영역과 마찬가지로 많은 대중과 활발히 소통할 때 그것이 지니고 있는 힘과 가치가 발휘된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셈이다.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세계 출판 시장에서 한국문학이 자체의 경쟁력으로 정면승부하며 좁은 영역이나 마 확보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십수 년 전의 일이다. 사람들은 군중이 운집한 씨름판 한가운데 나서 당당히 도전장을 던지며 누군가와 어깨를 맞대고 승부를 겨룰 때 그에게 관심을 보인다. 아무리 뛰어난 기량을 가진 선수더라도 지켜보는 사

람 없는 공간에서 홀로 기술만 연마하며 힘만 키울 뿐 씨름판 중앙으로 나와 대결하며 소통하지 않으면 그의 멋진 기량과 진가는 노출되지 않아 그 누구로부터도 인정받기 어렵다. 불과 15~20년 전 세계 출판 시장에 나선 한국문학의 자화상이다. 그렇다 보니 한국문학은 영미권과 유럽에서는 물론이고 아시아 전역에서도 일찍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무라카미 하루키를 포함한 일본 작가의 문학이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에 이미 미국에서 번역 출간되는 등 그간 세계 40여 나라 독자와 만나오고 있던 것과 대비된다.

출판은 비즈니스이며, 문학도 출판을 거쳐 서점가로 나오는 순간부터 상품이 된다. 셰익스피어 문학도, 세르반테스 문학도, 조앤 롤링 문학도 모두 그렇다. 베토벤과 바흐의 음악도, 피카소와 샤갈의 그림도 시장으로 나오는 순간 모두 상품이 된다. 예술과 상품을 따로 떼어놓고 볼 필요가 없는 대목이다. 예술적 가치는 다수의 대중과 호호하며 공감할 때 더욱 빛을 발한다.

한국문학이 글로벌 무대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출판 시장에서 산업적인 성공을 거둬야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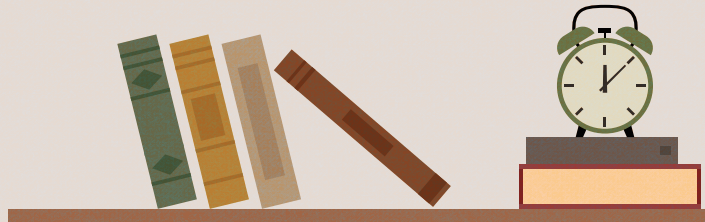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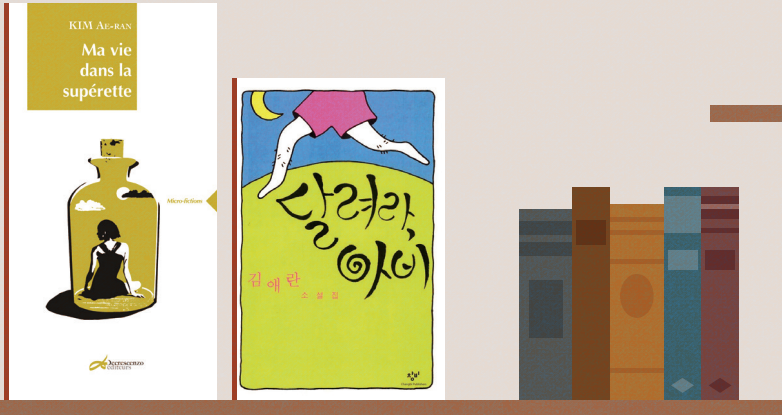
다. 영미권에서는 유럽에서는 한국문학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독자와 소통하게 된다면 그들은 더 많은 한국문학을 찾게 될 것이다. 해외 현지의 수많은 유력 언론, 출판인, 편집자, 그리고 독자들 모두 한국문학에 적극적인 리브콜을 보내게 될 것이다. 한국문학의 대중화는 바로 이 시점에서 일어난다. 필자를 통해 영미권으로 진출해 현지에서 책이 번역 출판됐거나 앞으로 나올 예정인 작가가 10명이다. 2005년부터 한국문학의 영미권 진출 시도를 본격화했으니 평균적으로 1년에 한 작가를 진출시킨 셈이다. 김영하, 조정란, 신경숙, 공지영, 이정명, 황선미, 안도현, 한강, 편혜영 그리고 북한작가 반디에 이르기까지, 각 장르에서 저마다 독특한 개성을 보여온 작가들이다. 이러한 진출 과정에서 다양한 성과가 나왔다.

세계 각지에서 읽히기 시작한 한국문학

2012년 신경숙은 <엄마를 부탁해>를 통해 '2011 맨아시아 문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2016년엔 한강이 <채식주의자>를 통해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했다.

한국문학이 해외 출판 시장에서 번역 출간되고 있는 나라 수도 어느덧 40개국에 육박한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는 지금까지 35개 나라에 진출했다. 이 작품은 한국 작가 최초로 맨아시아문학상을 받은 것 외에, 미국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상업적인 결실도 함께 거두는 성과를 올렸다.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은 영국과 미국을 포함, 지금까지 모두 29개 나라로 수출됐다. 이 책은 '이달의 아마존 도서', 영국 워터스톤스 서점 베스트셀러인 동시에 워터스톤스 북클럽 선정 도서 목록에 올랐으며, 영국 전역에 걸친 독립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 '인디출판사 톱10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포함됐고, 영국의 출판전문지 <북셀러>가 선정한 올해의 도서로도 이름을 올렸다. 그뿐만 아니라 폴란드에서는 '2013년 최고의 아동도서'로 선정되어 그 문학적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맨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6월 말 현재 영국과 미국을 포함해 모두 32개 나라로 판권이 팔리는 가운데, 그의 또 다른 작품 <소년이 온다> 역시 영미권을 포함해 모두 13개 나라로 판권이 팔렸다.

이정명의 <별을 스치는 바람>은 2015년 영국에서 '인



디펜던트 해외소설문학상(Independent Foreign Fiction Prize)’ 후보에 올라 글로벌 출판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 이 책은 영국과 미국을 비롯, 13개 나라에서 번역 출간됐다. 그의 또 다른 책 <천국의 소년> <뿌리 깊은 나무> 그리고 <바람의 화원>도 미국,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로 진출해 그만의 문학 세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정유정도 <7년의 밤>을 통해 글로벌 출판인들 사이에서 관심 작가 반열에 올랐다. 이 소설은 지난 2015년에 독일 유력 주간지 <디 차이트(Die Zeit)>가 선정한 ‘2015 범죄소설 톱 10’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독일어권에서 한국문학이 주요 매체나 기관에서 선정한 순위 리스트에 오른 첫 사례다. 이 책은 독일어권은 물론 프랑스,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등으로도 번역 판권이 팔려 대부분 출간되었으며, 태국에서는 올해 안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김애란의 단편집 <달려라 아비>는 2014년 프랑스에서 현지 비평가와 기자들이 선정해 수여하는 ‘주목 받지 못한 작품 상’을 받았다. 이 상은 뛰어난 작품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주목받지 못한 작품 중에서 엄선해 주는 상으로, 더 많은 현지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다. 이 상은 과거에 신경숙의 <외딴방>이 받은 바 있다. 김애란의 장편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은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대만, 베트남 등으로 진출했다.

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조정란의 <혀>, 그리고 김영하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를 비롯한

그의 대부분의 장편소설, 안도현의 <연어> 등의 책도 영미권을 중심으로 유럽 및 아시아 등 10여 개 이상의 언어권에서 번역 출간되어 현지 독자와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편혜영의 <재와 빨강>과 <홀> 두 작품은 이례적으로 한꺼번에 최근 미국의 한 출판사로 진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외에도 이경혜, 김중혁, 그리고 김연수 등의 작품도 동서의 다양한 언어권으로 진출해 한국문학의 개성과 다양성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있다.

훌륭한 작품, 번역, 그리고 유통 전략의 삼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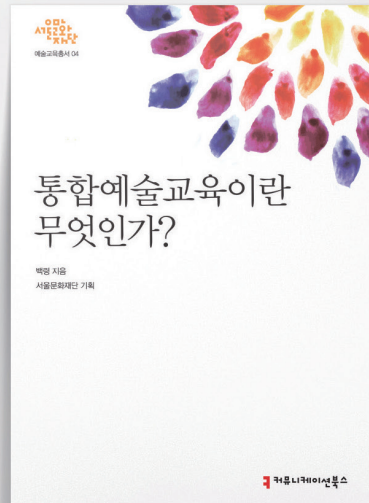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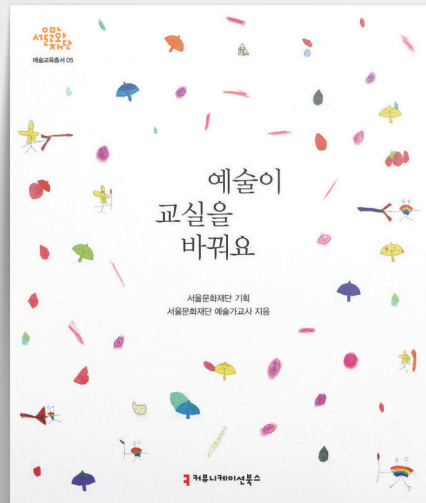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작가 및 작품을 발굴해 해외 출판 시장 각 언어권으로 진출시켜 번역 출판될 수 있도록 하는 번역 판권 세일즈 유통 전략과 현지 독자들이 현지 작가가 쓴 훌륭한 작품인 듯 즉각적으로 몰입해 읽을 수 있는 유려한 번역이 조화를 잘 이룬다면 세계 출판 시장에서는 물론이고 세계 문단에서 풍요로운 결실을 이끌어내는 것은 시간문제다.

글
이구용
케이엘매니지먼트
대표, 출판칼럼니스트

사진 제공
케이엘매니지먼트

책多방

신간 안내



〈예술이 교실을 바꿔요〉

무용, 연극, 시각, 음악 등 여러 장르가 융합된 다양한 예술교육 방법을 지난 10년간 쌓아 온 현장 노하우와 함께 담았습니다. '상호작용', '변형', '움직임', '상상' 4개의 키워드로 21개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실용서

〈통합예술교육이란 무엇인가?〉

미래교육, 전인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육방법을 알고 싶은 교사, 교육정책가, 전공생, 학부모를 위한 통합예술교육 입문서



〈1995년 서울, 삼풍〉

'메모리인(人) 서울' 기억수집가 15인이 1995년 삼풍백화점 사건 유가족, 생존자, 봉사자, 구조대 등 100여명의 시민들을 직접 만나 목소리를 기록하고 이 소중한 목소리가 사회적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엮은 구술집

〈2016 연회〉

지난 한 해 연회문학창작촌을 다년간 국내외 문인들의 이야기와 작품이 담겨있는 문학전문잡지



서울문화재단

※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 가능

‘스트리트뮤지엄’ ‘예술통 축제’ 만든 박동훈 핸즈BTL미디어그룹 대표

필동 인쇄골목에 예술의 싹을 틔우다

후미진 필동 인쇄골목에 3년 전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작고 독특한 전시 공간, 이른바 ‘스트리트뮤지엄’이 하나둘 주변에
들어서면서 ‘예술골목’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 거리를 지나는 이들 누구나
24시간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에는 온기가 돈다.
놀랍게도 이 변화는 개인이 사비를 털어 진행하는 것이다.
지난 5월에는 예술가 120여 명이 참여한 골목축제를 기획했다.
필동 24번지 핸즈BTL미디어그룹의 박동훈 대표의 이야기다.

Park Donghun





신이 쌓아온 것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자문하다 ‘필동’이란 답을 얻었다. 더불어 그가 거리에서 일을 익혔듯 다음의 누군가는 이 거리에서 예술을 아주 일상적으로 만나면 좋겠다는 마음에 후미진 필동 골목을 문화예술로 채워 보답하기로 했다. 3년간 충무로 일대 곳곳에 채운 8개의 스트리트뮤지엄은 모두 그가 디자인했다. 그리고 올해 5월, 예술가들과 함께 ‘필동 골목축제 예·술·통’을 시작했다.

박 대표가 현재 진행하는 일을 가늠하며 누군가는 그의 미래에 대해 ‘예술의 방향으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표현했다. 적어도 새로운 판을 짜서 예술축제의 다른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보면 그가 원하는 ‘작가와 관객의 가교 역할’이 일단 성공적인 듯하다.

광고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축제기획자·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계시다.

어떤 면에서는 예술통 골목축제도 광고회사 운영의 연장선에 있는 셈이다. 회사에서 프로모션 이벤트, 신제품 론칭 등을 많이 해봤고, 그런 행사들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간과 되는 것을 많이 봐왔다. 예술통 축제가 열린 공간을 보면 관객이 축제를 즐기는 공간만큼 공연자가 공연을 준비하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 출연자가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100% 이끌어내려면 공연 전후에 긴장을 풀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경험을 통해 그런 것이 행사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했기에 예술통 축제를 하면서는 그런 부분에도 중점을 뒀다. 더불어 재구매, 즉 어떻게 하면 관객이 다시 방문하게 할 것인지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박동훈 대표의 명함에는 광고기획사 ‘헨즈BTL미디어그룹’ 외에 여러 로고가 함께 들어가 있다. 스트리트뮤지엄, 24번가 서재, 코쿤뮤직, 아이스크림푸드컴퍼니 등이 그것이다. 경남 산청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와 청계고가 아래에서 폐지를 줍는 것으로 밥벌이를 시작한 그는 폐지터미에서 만화를 발견한 것을 계기로 애니메이터 일을 했고, 식당을 차리고 싶어 중국음식점 배달원도 했으며 막노동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게 다양한 직업을 거쳐 충무로로 들어와 커리어를 쌓은 분야는 광고. 눈썰미와 손재주가 좋은 그는 그곳에서 보고 듣고 익히고 일해 1992년에 헨즈BTL미디어그룹을 설립했고, 승승장구했다.

20년 만에 필동 24번지에 사옥을 마련한 그는 문득 자





2



3

예술통 축제 전에 대표님이 문화예술계에 알려진 중요한 계기는 ‘스트리트뮤지엄’이다. 스트리트뮤지엄의 개념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것인가. 필동과의 인연도 각별하다고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이곳 필동은 나에게 많은 걸 가르쳐준 선생이자 학교 같은 존재다. 고향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청계천에서 폐지 줍는 일로 시작해 배달, 행상, 막노동 등 다양한 일을 하며 충무로 인쇄골목에 들어오게 됐다. 명보극장 옆에 있던 인쇄소에서 일하다가 광고회사에 스카우트됐는데 직무가 인쇄 담당이었고, 그렇게 여기서 겪고 배운 것이 쌓여 광고회사를 차리게 되었다. 미술도 광고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는 나에게 필동은 학교이고 선생님 셈이다. 학비를 갚듯이 이 지역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먼저 이곳에 부족한 것, 사라진 것을 찾아보기 위해 필동주민센터에 찾아갔고 1년 동안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했다. 나는 필동에서 일만 하느라 몰랐는데, 역사적으로 덜 알려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그게 문화예술적으로 어떻게 조명되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필동 프로젝트에서는 이곳에 필요한 것, 존재의 당위성이 분명한 것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시작이 스트리트뮤지엄인데, 충무로가 사진, 영화, 광고 등 시각매체와 인연이 깊은 곳이고 이들이 모두 순수예술에 젖줄을 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순수예술 콘텐츠를 이곳에 만들고 싶었는데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넓은 범위를 묶을 수 있는 게 지역의 공간 공간에 씨앗 뿌리듯이 작은 뮤지엄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들이 나중에 모이고 연결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스트리트뮤지엄을 만들게 되었다.

스트리트뮤지엄의 모델이 되거나 영감을 준 곳이 있다.

해외의 타운 프로젝트 사례를 많이 찾아봤는데 그중 가장 인상적인 곳이 영국의 테이트모던과 일본의 나옴시마 재생 프로젝트였다. 결정적으로 참고하고자 한 곳은 화력발전소를 재생해 만든 테이트모던이다. 나옴시마는 환경적인 요소가 컸고 공공 자금이 꽤 많이 투입돼 만들어졌다. 두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박물관에 간 관광객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반면 테이트모던에 갔을 때엔 관광객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기여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모두에게 열려 있고 유취적이다. 그곳에 가면 꼬마들이 슬라이딩하면서 미술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공간에는 빈 종지와 펜이 놓여 있는데 아이들이 작품 앞에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린다. 그런 풍경을 보면서 시스템의 관리자들과 아이들(관객)이 모두 예술에 열려 있는 점이 꼭 인상 깊었다.

미술이 일반인과 만나려면 서로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본다. 365일 내내 작품을 볼 수 있되 미술관의 기능을 온전히 가진 곳, 규모가 작아도 온도·습도 조절과 보안, 보험 등 작품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잘 갖춰 있어 제 기능을 하는 곳을 만들고 싶었다.

공적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사재를 털어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게 놀랍다.

처음에는 내가 필동에서 얻은 것에 대한 빚을 갚자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일이 점점 커졌다(웃음). 공공 영역에서도 이 사업에 관심을 가졌고 주변에서도 지원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런 도움을 받는 것으

- 1 제1회 필동 골목축제 예술통의 오프닝에서 진행된 캘리그래피 강병인 선생의 퍼포먼스.
- 2 예술통 기간(21일)에 코뮤직에서는 다양한 팀의 음악 공연이 진행됐다(사진은 이스터녹스의 공연).
- 3 스트리트뮤지엄 모형이.



4
예술통 축제를
즐기기 위해 필동
24번지 골목을 찾은
관객들. 뒤로 보이는
미디어파사드는
한성필 작가의
작품이다.

로 알고 있고.

이곳 뮤지엄들은 좋은 자재를 써서 비용이 많이 들거나
공사에 1년 6개월이 걸리는 등 내 마음대로 짓고 있다. 공기
관의 지원을 받았다면 기금 신청서와 보고서를 쓰는 데 시간
을 많이 할애해야 했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 '필동의 머슴'이
라고 칭하곤 하는데 기관의 지원을 받아 페이퍼워크에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했다면 다른 의미로 머슴이 된 느낌을 받았
을 것 같다. 프로젝트를 온전히 완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추가로 건물을 지어갔고, 적어도 내가 여기 있는 한 지속적
으로 이곳을 키워가려고 한다(현재 스트리트뮤지엄은 8개
가 완성됐으며 앞으로 24개까지 만드는 것이 목표다). 3년은
공간을 마련하고 그 후 2년은 콘텐츠를 채워가야 어느 정도
대중이 인지할 수 있고 이곳이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을 갖출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래서 최근에 하는 작업들은
콘텐츠나 사람을 채우는 것이다.

**여러 예술가와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고 그게 올해 시작한 예술통
골목축제의 원동력이 됐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술가들과 인연
을 맺어온 비결은 무엇일까.**

나는 순수예술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애정은 남달랐다. 회사
직원들에게도 순수예술에서 출발하는 것이 많으니 관심을
놓지 말라고 한다. 필동 프로젝트를 하면서 파인아트가 이
곳에 들어와야 한다는 생각을 한 후로 예술가와 소통할 방

법을 찾았다. 미술 쪽에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
일까 고민했는데 갤러리에서 전시 오프닝이 있을 때 케이터
링 서비스를 이용하더라. 우리 회사에서 음식 관련 광고를
많이 하고 건물 지하에 쿠킹 스튜디오와 케이터링 서비스를
운영하던 터라, 마침 아는 분이 성북동의 한 갤러리에 이야
기를 전해주셨고 그곳의 행사에 케이터링 서비스를 재료비
만 받고 제공했다. 이를 계기로 갤러리에 초대받아 작가들
을 비롯한 미술 관련 사람들을 만나며 미술이 무엇인지 이
야기도 듣고 친해졌다. 작가들의 전시에 초대받는 일도 늘
었고, 내가 가진 자산을 나누면서 순수예술에 지극한 관심
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공통분모 삼아 다양한 사람과 만나
게 됐다. 작가들이 종종 '뭘 하고 싶냐'고 물어보는데, 나
는 작품을 사고파는 역할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작가들
의 작품이 대중과 만나는 데 가교 구실을 하고 싶다고 이야
기해왔다.

**예술통 골목축제는 동적인 예술 형태다. 거의 모든 장르의 예술가들
이 모인다. 정적인 형태의 스트리트뮤지엄에서 왁자지껄한 축제
활동을 이어가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예를 하나 들면, 전주소리예술축제에 간 적이 있는데 개별
콘텐츠는 너무 좋은 반면 음악 외의 다른 장르에는 신경을
쓰지 않더라. 공연장에서 음악을 흠뻑 즐기고 나왔을 때 전
주의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갖추어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즉 음악에서 느낀 감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른 여러 장르
와 협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계기로 만든 것
이 예술통 골목축제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을 한데 모아
보자, 그래서 협업해보자, 그렇게 예술가들을 한 통에 담으
면 다른 문화가 만들어지고 소통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
발했다.

공연 공간인 코쿤뮤직을 만들기 전에 실험적인 무대를
기획한 적이 있다. 재즈 뮤지션 정관과 개념미술 작가인 박
영훈, 그리고 벨기에에서 분자요리를 하던 조계형 셰프와
함께 '우리가 한 번 프로젝트 공연을 해보자'고 했다. 그 세
장르가 만나면 색다른 무대가 나올 것 같았다. 아트센터 나
비의 노소영 관장과 상의해서 타작마당(통섭인재양성소)에
서 공연하기로 하고 사람을 모았다. 음악 장르는 크로스오
버였는데 그에 맞춰서 박영훈 작가가 무대 디자인을 했다.
바다를 콘셉트로 꾸며 어부들을 유혹하는 세이렌의 음악이
나오면 무대에서 LED 조명을 이용해 천장에 물이 일렁이게



보일 수 있도록 효과를 주고, 스모그를 뿜으면 요리가 등장하는 식. 이런 협업에 대해 함께한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

이것이 예술통 축제의 전조가 됐다고도 볼 수 있다. 축제의 방향성은 ‘장르 간 협업’이 되었고, 그것이 작가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시작된다면 더 좋을 것 같다. 축제가 만들어졌을 때 작가들이 어떻게 다음을 이어가도록 고민하는지가 중요하다. 예술통을 계기로 다양한 콘텐츠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제1회 필동 골목축제: 예술통’은 5월 19~21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예(藝)와 술(術)이 통하였느냐’, 즉 이름의 뜻을 그대로 옮긴 슬로건 아래 미술, 음악, 문학, 음식이 다채롭게 조화를 이루는 자리였다. 앞으로 예술통은 1년에 네 번 본축제를 개최하면서 그 중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작은 프로그램을 열어 지속성을 가질 계획이다. 먼저 기획 중인 프로그램은 골목영화제 ‘六甲(육갑)하고 자빠Cine(씨네)’. 이렇게 한 장르를 모티브 삼은 작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열고, 3개월에 한 번 여는 본축제에서 이들 장르가 협업해 예술적 시너지를 일으키는 큰 장을 선보이고자 한다. 예술통 축제에서는 아티스트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아티스트도 즐기고 관객 역시 부담 없이 예술을 만나는 장으로, 이는 문화예술 관에서 골목축제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박동훈 대표는 이 모든 활동이 궁극적으로 타운의 발전을 향한다는 점을 잊지 않는다.

사실 성공적인 축제의 공통점으로, 마니아가 멀리서부터 찾아올 정도로 특색이 분명하고 특정 범위에 집중된 주제여야 한다는 점을 꼽곤 한다. ‘모든 게 다 있는’ 백화점식 구성이 아니라, 예술통 골목축제에서 문화예술의 다양한 장르가 만나 협업하고 시너지를 내는 것도 좋지만 결국 그게 어떤 특색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축제를 보는 관점은 모두 다르겠지만 우리는 축제가 이 지역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중요하게 의식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을 언제든 방문해도 축제에 오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다. 먼저 시도한 것은 예술통 축제 후에 스탬프투어를 기획해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맥주와 와인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축제가 이어지기를 바랐다. 작가들께도 이곳에 설치한 작품들을 축제가 끝나면 다시 가져가기보다는 이곳에 두고 가시길 부탁드린다. 축

제가 끝나도 관객이 작품을 볼 수 있는, 이 타운 전체가 미술관이 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축제를 3개월에 한 번씩 이어나가면 운영에 노하우가 생기면서 축제를 치르는 비용도 힘도 점점 덜 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시에서 축제를 허가해줄 때 ‘너무 자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시더라. 나는 지속가능한 것을 원한다. 그게 지역(필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맞다고 본다. 계절마다 한 번,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하고 1년 내내 축제가 열리도록 하고 싶다.

최근에는 축제 운영 및 후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재단법인 명석’을 설립하셨다.

재단법인 설립에는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축제에 후원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이들이 어디에 어떻게 후원해야 할지 주체가 없던 것이다. 예술통 골목축제를 하며 ‘예술통축제조직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임시 조직일 뿐이어서, 후원과 관련한 업무를 운영할 시스템이 필요했다. 서울시나 중구청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받게 될 때도 필요할 시스템이기 때문에 재단을 만들게 됐다.

대표님의 현재보다 미래가 사실 더 궁금하다. 어떤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을지, 대표님의 꿈과 비전에 대해 얘기해달라.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꿈이다.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하지 않을 뿐이다’라는 말을 하곤 한다. 예전에는 소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경로가 한정적이었는데 지금은 좋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하게 열려 있으니 소통을 꾸준히 하면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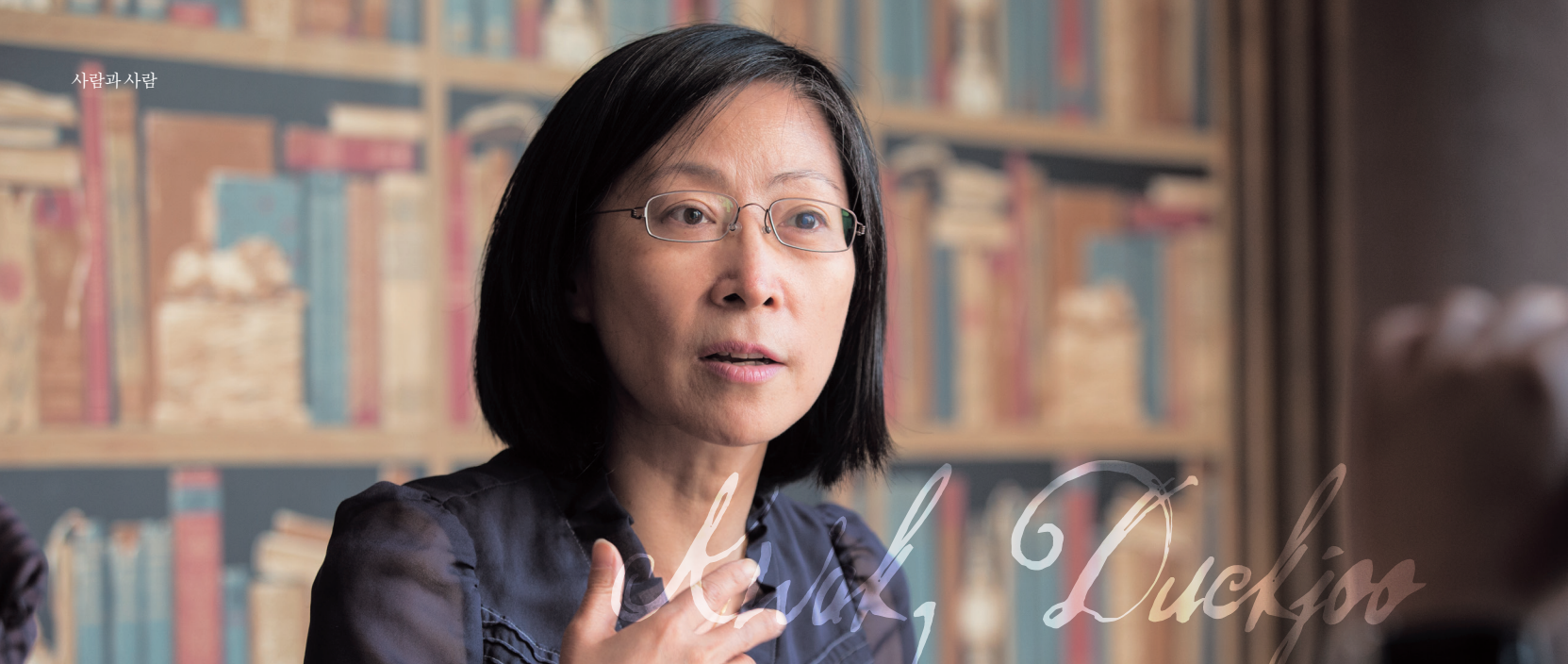
내가 어릴 때 스트리트뮤지엄처럼 쉽게 문화예술을 경험할 기회가 있었다면 지금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해본 적이 있다. 지금 누군가가 그런 경험을 자연스럽게 하고 나중에 창작자가 됐을 때 ‘어떻게 작가가 되었냐’는 질문에 ‘우리 집 앞에 스트리트뮤지엄이 있었어요’라고 대답하는 걸 들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아이들 돌잔치에서 돌잡이하듯이 그들이 창조적인 것을 선택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손이 닿는 곳에 문화예술을 씨앗 뿌리듯이 뿌려놓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기성세대가 소통하는 방식과는 또 다르게, 다음 세대가 자발적으로 소통하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진행
김영호
서울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정리
안현미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차장
이아림

사진
최영진

축제 사진 제공
헨즈BTL미디어그룹



AiE심화과정 연구 및 운영 교수 3인

예술, 그리고 예술교육의 의미

서울문화재단이 2007년부터 운영해온 〈서울창의예술교육아카데미〉는 국내 최초로 예술가교사(TA, Teaching Artist)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미적체험통합예술교육’이라는 개념의 보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얼핏 들어서는 이해하기 힘든 이 추상적인 개념을 알리기 위해 2012년부터 수강생(예술교육가)들과 꾸준히 만나온 곽덕주 교수(교육철학), 남인우 연출(연극 장르), 최우정 교수(음악 장르)와 함께 예술과 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다.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으로 들쭉인다. 과연 앞으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가치와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을 인간의 본질적 가치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본질적 가치를 탐구하고 지키기 위해서 교육이 해야 할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고민에 대해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창의예술교육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의 프로그램 연구와 강의를 맡고 있는 곽덕주 교수(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남인우 연출(극단 북새통 예술감독), 최우정 교수(서울대학교 작곡과)와 함께 교육학적 측면, 예술교육의 측면, 그리고 예술가적 시점 등으로 이야기해보았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빠른 속도로 변화할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미처 언급하지 못하고 지나치고 있는 가치, 채우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보았다. 과연 예술교육이 이 어려운걸 채울 수 있을까.

예술교육가들과의 만남 그리고 교감

2011년 서울문화재단에서 ‘미적체험통합예술교육’이라는 용어를 정의해서 사용하기 시작할 때부터 함께해온 곽덕주 교수는 “아카데미 수업은 매 기수가 단순히 학습을 한다는 개념에서 나아가 참가자들이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교감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참가자들의 성장일지¹를 읽을 때마다 ‘아 참가자들의 내면에서 뭔가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 운영에서 빚어지는 힘든 점에 대해 “교육과정에서 예술 장르별 강사들

이 장르의 예술언어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맡은 역할은 새로운 예술교육 방법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시간이기도 하다. 현직 예술가, 예술가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참가자 대부분은 가슴으로, 마음으로 와 닿는 이야기를 해주어야 교감이 되는 데 나는 문자로 정리하고, 논리적인 사고로 풀어야 이해가 되는 사람이다 보니 ‘가슴을 터치하는 언어’에 대해 항상 고민한다”고 말했다.

남인우 연출은 “지속적으로 진행해오면서 커리큘럼과 강사진 스스로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느낀다.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을 만나면서, 초창기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교육연극)을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술교육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과연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다”고 덧붙여 말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을 아카데미 수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한 것일까.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최우정 교수는 “아카데미 수업에 참여하면서 수강생들이 수료 후 어떻게 수업하는지 실제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다. 대표적인 아카데미 수료자, 재단의 예술가교사가 파견되는 〈예술로플러스²〉 수업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다. 앞으로 내 작품 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카데미에 참여해 예술가교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느꼈고, 엄청난 동기부여가 됐다”며, “수업에서 예술가교사들이 아이들과 교감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이걸 하기 위해 이 아카데미 사업에 참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1
음악 장르를 담당하는
최우정 교수의
수업 모습.
2
좌로부터
최우정, 팽덕주, 남인우.

예술을 한다는 것과 예술교육을 한다는 것

남 인우는 “이번에 우리 셋이 함께 진행하는 아카데미의 마지막 수업 제목은 ‘내 안의 창조적 에너지(Creative Energy) 회복을 위하여’다. ‘창조적 에너지’라는 말은 아카데미 초창기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할 수 없는 단어였다. 예술가교사들이 예술가로서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길이 커리큘럼을 분석하고 만드는 것보다 더 우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과정과 예술가로서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은 주제를 정하고, 관찰과 리서치를 진행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형상화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과정이 완료된 후에 감상과 인지화를 통해 스스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팽 교수는 “남이 느끼는 감정과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교감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예술 작품을 통해서 하게 된다. 그래서 예술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감정교육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다. 감정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예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다”라고 했다.

최 교수는 <장자의 예술정신>(한홍섭 저)에 언급된 바다거북과 우물 안 개구리 우화에 비유해, “말로 설득하려 하다 죽음을 맞이한 소크라테스와 다르게 개구리가 원할 때 단지 내가 경험해 아는 것을 이야기해준 장자의 거북처럼, 내가 예술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개인적으로 느낀 것들을 참



가자들과 공유하는 것이, 이미 예술교육을 하고 있는 예술교육가(수강생)들이 스스로 느끼고, 자기만의 방법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수업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최 교수의 말처럼 서울문화재단이 지향하는 예술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의 ‘교감’이다. 끊임없는 소통과 공유를 통해 교감하는 교육, 재단의 대표적인 어린이 창의예술교육사업인 <예술로플러스>는 그러한 방법을 잘 적용해 흔히 말하는 통합예술교육을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교과 연계 예술교육 수업의 형태로 실현하고 있다. 이때까지 교육자의 입장에서 예술을 가르치려 하는 것이 공교육의 예술교육이었다면, 재단의 예술교육은 “(예술을 규정짓지 않고, 예술이라는) 재료를 활용해 교과에서 제시한 주제를 가지고 옆의 친구와 같이 놀게끔 해주는 것”이다.

요즘 학생들은 학교 정규교육 시간이 끝나고 나면 교과

를 보충하기 위한 각종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예술을 경험할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 아이들의 일상 속으로 예술이 들어가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는 아이들을 찾아가서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예술로플러스>이다.

갈등을 들여다보는 용기, 창조적 에너지의 회복이란

세 사람은 아카데미 프로그램 연구를 위해 사전에 수차례 만났다. 지속적인 만남에서 ‘갈등’이라는 주제는 예술의 미적 요소로서, 또 사회 공동체를 이해하는 주요 요소로서 자주 언급되었다. 최 교수는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예술은 갈등에서 나오더라,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갈등이 있기에 가능한 것 같다. 조화를 강요하는 과정이 아닌, 조화가 깨지는 순간을 경험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예술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 교수는 따르면 “다원적 사회에서 갈등은 대부분의 사람이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고, 종종 개인의 내면, 인격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인간 사회에서 제거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교육적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 남 연출은 “갈등’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린다.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사회에서 갈등은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술에서는 ‘갈등’이라는 딜레마를 깊이 다루고 잘 경험해 극복할 수 있도록 성찰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관객과 나눈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는 내면의 갈등, 타인과의 갈등, 사회와의 갈등을 들여다볼 용기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오는 것 같다. 내가 왜 화가 났고, 그 화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누구와 이야기해야 하는지 제대로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예술이 다양한 언어로 갈등의 지점을 추구한다는 것은 예술교육이 이 시대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이유다”라고 했다.

또한 “공교육은 사실 근대 이후로 ‘효율성의 극대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위해 시작된 것인데, 더 이상 효율성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게 되었다. 그런 시점에서, 예술교육은 유일하게 효율성이 아닌 것을 이야기한다. 교육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 하는 것인 만큼 이제는 공교육의 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이다”라며, “요즘 학생들은 지식과 정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 많은 사람이 자신

의 경험과 감정을 타인과 공유하고 나누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데, 자신의 경험을 예술 작품에 투영하고 학습하는 예술교육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 교수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예술교육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외국(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국가)의 소위 예술교육 좀 한다는 기관은 그들의 역사적 배경과 경험의 바탕 위에 예술이라는 언어를 입히고 다듬어서 그들 나름의 방법론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창의력인 것 같다”며 “이들은 공통된 교육철학적 가치를 공유하지만, 그 위에 각 나라에 따라 방법론적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남 연출은 “(유럽의 예술교육기관의 방법론은) 그들의 문체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시작했다. 우리의 예술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 사회가 어떤지부터 다시 봐야 한다. 짧게 거슬러 올라가서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 왜 우리가 우리의 것을 통째로 잃어버리게 되었나,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들여다보고 그것으로 알 수 있는 자신감, 자존감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우리 고유의 예술교육 방법론을 구성하는 과정에는 물론 예술가의 창작 활동에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술가로서 창조적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예술의 본질을 경험하게 해주는 탐구

인터뷰 말미에 처음 던진 질문에 대해 다시 고민하던 세 명의 강사진은 “예술이라는 것이 각각의 장르별로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것일 뿐, 그것을 구성하는 본질, 요소는 같다”며, “예술교육을 실행하는 예술가교사들이 각자 개발한 커리큘럼을 토대로 예술이 왜 필요하고 왜 알아야 하는지를 교육하는 역할보다는, 예술 자체의 본질을 경험하게 해주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미적체험통합예술교육’은 경험한 예술 작품의 미적 요소를 각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게 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발전하는 것이니 예술교육가들이 예술가로서 경험한 미적 요소에 대한 탐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길 바란다.

1 성찰일지: 창의예술교육과정 참가자들은 기수별로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 본인들의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성찰일지를 제출한다.

2 <예술로플러스>: 서울문화재단 어린이창의예술교육사업으로 초등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한 예술교육 수업이다. 서울문화재단TA와 교사가 초등교과의 내용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해 수업을 직접 개발하고 2명의 TA가 학교 정규교과시간에 수업을 진행한다. 2016년에는 4학년 국어교과로 진행하고 있다.

진행
서명구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장

정리
김영지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

사진
최영진, 서울문화재단

곽
효
환

고
영
직
문
학
수

공공성을 명목으로 한 선택, 배제, 검열

검열의 일상성 또는 무감각에 대하여

최근 몇 년 사이 문화예술계 전 장르에서 검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돼왔다.
연극, 영화, 미술계에서 권력의 입김을 의심할 만한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더 심각한 것은 권력이든 시장 메커니즘이든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힘'에 예술행정가와 예술가, 심지어 시민까지 점점 무감각해지는 상황이다.
공공성이라는 명목으로 공공성이 훼손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 예술가소위의 첫 번째 의제로 검열의 일상성을 다루었다.

박
신
의
이
양
구

사회 **곽효환** 시인, 대산문화재단 상무,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
토론 **고영직** 문학평론가, 전 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
문학수 경향신문 편집국 부국장
박신의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이양구 극단 해인 극작가 겸 연출가
이규석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본부장
임인자 독립문화기획자,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
최선 설치미술가,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
일시 2016. 6. 13(월) 15:00~17:30
장소 대학로연습실 다목적실

앵커 진정한 의미에서 ‘문화’는 정치와는 많이 다릅니다. 문화는 어느 쪽도 배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문화란 본래, 가치가 뒤섞이는 지점을 말합니다. 문화는 49%와 51%를 또다시 뒤섞어놓습니다.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두 개의 국민 가운데 하나의 국민을 배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두 개의 국민 가운데 하나의 국민을 탈락시킨다는 것은 ‘문화’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로 ‘정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열 언어의 정치학: 두 개의 국민〉(김재엽 작·연출) 중에서

어제 검열에 대한 연극(검열 언어의 정치학: 두 개의 국민)을 보고 나서 머리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검열에 대한 위기감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먼저 정의해보면 좋겠습니다. 검열의 공공성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토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성의 회복, 검열이 없는 예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양구 작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창작산실지원사업에 선정된 박근형 연출가의 작품 선정을 취소하면서, 예술위의 직원 2명이 작가를 찾아가서 포기를 종용하고 예술위 직원들이 국가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 접속해서 포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안이 도종환 의원이 말했듯이 전자기록위작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충분히 공감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팝업씨어터에서는 역시 예술위 직원들에 의해 공연 방해 행위가 있었습니다. 예술위 직원들은 자신들이 기획한 김정 연출가의 〈이 아이〉(프랑스 작가 조엘 폼프라 작품)가 세월호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담당 직원을 시켜 공연 취소를 종용하다가 여의치 않자 공연

당일 현장에서 공연팀이 의자를 못 옮기게 하거나, 공연 장소이던 씨어터 카페의 음악 소리를 크게 하기도 하고, 공연을 시작한 직후에는 관객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공연을 중단시키는 등 방해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정부는 물론 검찰도 조사하지 않았고 시민사회도 처벌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 직원들은 그대로 일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고영직 지금 검열의 양상은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의 고강도 탄압 방식, 이를테면 작가를 구속한다든가 하는 방식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다만 공공기관 지원금을 매개로 선택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2008년 광우병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예술위가 〈내일을 여는 작가〉지 발행을 포함해서 3400만 원의 지원을 취소하는 일이 있었어요. 작년부터는 ‘우수문예지지원’을 어떤 명목을 들어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저강도 탄압의 방식으로 바뀌고 있고, 몸의 모세혈관처럼 우리의 일상, 생각, 의식과 무의식까지도 지배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양상이 더 무서운 겁니다.

문학수 지금의 상황은 연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친구가 모 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열흘 후에 담당자가 죄송하지만 강의가 취소되었다고 전화했어요. 말하자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산하단체에서 지원하는 강연이었는데요. 작년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운동에 이 친구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청와대가 임명하는 문화부 장관, 단체장을 장관이 임명하는 산하단체의 지원금으로 만들어지는 강연회가 실행될 때까지 일련의 사이클에 제동이 걸린 것이지요. 저도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연극계에서 지난해 일어난 상황에 대해 기사화했지만, 저 역시 검열을 받고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문인이나 예술가를 붙잡아 갈 때는 명목이 국가보안법 아니면 반공법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검열에는 반드시 주체와 객체가 공모하는 지점이 있어요. 결코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양구 극단 해인 극작가 겸 연출가

사람의 정체성을 51%가 압도적으로 지배할 때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배합을 다양화하는 데 예술이 기여하는 것이고요.

고영직 문학평론가, 전 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

공공성이라는 잣대를 예술가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술가들이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쳐나가는 것이

예술 발전의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수 경향신문 편집국 부국장

렇지 않습니다. 지원금에서 배제한다거나 공연 기회를 박탈하는 방식입니다.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알아서 기는 양상이 벌어지는데,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박신의 저는 작년에 해외에서 이 소식을 접하고는 상황이 아주 고약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일은 오래전부터 반복되던 일인데, 표현의 자유나 예술의 자율성 침해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지 못한 사실에 대한 불만 정도로 축소해버리는 것이지요. 또는 당사자의 개인적 성향이나 작품성에 따른 문제로 치부해버리면 서 뭔가 예술인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시니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양구 저강도 탄압이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사태를 바라보는 인식 차이라고 생각해요. 박근혜 연

출가는 작년에 자신에게 작품 포기를 종용하는 예술위 직원들이 ‘불쌍한 공무원들’이라고 했어요. 저는 직원들이 불쌍하다는 논리가 이해가 안 돼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불쌍하다’면서 포기 작서를 써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도 성립이 안 돼요. 너무 명확하게 내 앞에 와서 불법을 저지르는 게 보이는 겁니다.

박신의 저는 요즘 ‘공무원과 준공무원의 DNA는 무엇일까’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검열 사건에 연루된 예술위 직원들은 참여정부 때부터 잘 알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진정성도 전 여전히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사실 문화부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 역시 참여정부 때부터 계속 있어왔는데, 왜 태도가 이렇게 변하는지... 정권의 성향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인지, 스스로 그렇게 판단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정권의 그늘 아래서 이들은 문화계 인사를 선별하고 배제하는 일을 자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허탈하기만 합니다.



문학수 20세기 검열 하면 나치의 검열, 스탈린의 검열, 혼적으로 남아 있는 박정희 시대의 검열이 떠오르는데요. 역사적인 경험 속에서 ‘검열’이라는 언어가 뚜렷하게 인식화되어 있지만 지금은 그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저는 검열이라는 기제가 분명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다른 언어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고영직 지금은 검열이라는 말로는 포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데이비드 그레이버(David Graeber, 1961~)의 <관료제 유토피아>라는 책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과 절차의 얼굴을 하고 당연한 듯이 복종을 요구한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권력의 작동 방식이 과거처럼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독주하고 있어요. 예술가들은 시장화한 창작 환경 속에서 자기 작업을 하기 위한 토대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저항 이상의 언어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양구 연극계에서 벌어진 사태는 규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문제입니다. 직권을 남용했고 문서를 위조했고 업무방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계속 느낀 것은 선배 연출가 세대들은 이것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검열이라고 하지만 범죄행위와 범죄행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나누어서 얘기해야지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박신의 한국에서 문화 정책은 1960년대를 거쳐 70년대까지 그야말로 검열 그 자체였잖아요. 그때 국가의 강력한 직접 통제와 기제 속에서 일어났다면, 이번 사건은 산하기관의 매개 인력들이 나선 것이어서 문제가 거대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라 봅니다.

문학수 지금의 검열적 상황이 정권이 바뀌어도 내재화되고 영구화되는 것이 두려운 부분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건 소박한 것이고요. 저는 국가의 검열이라기 보다는 권력자의 검열이라고 보거든요. 예전에는 권력자가 정보기관을 앞세워서 했는데, 지금은 산하기관장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검열하는 상황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 눈치를 보지요. 저는 하부구조에 있는 직원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뿌리가 무엇인지, 구조가 무엇인지 더 치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신의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면서 예술위에 사무처장이 새로 왔을 때 예술위 직원들은 3일 동안 출근 저지 투쟁을 했지요. 예술위 직원들이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술위 직원들도 괴로운 상황이지 않

을까 짐작합니다만... 사실 이들이 괴롭다는 것은, 자신들의 예술에 대한 소신과 신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검열이 이뤄지면 얻는 쪽이 있고 잃는 쪽이 있을 텐데요. 누가 무엇을 얻고 누가 무엇을 잃었을까요.

문학수 가장 상처받는 사람들은 진정성을 가진 건강한 예술가들입니다. 시장 논리 속에서 싸워서 이겨낼 만한 상황도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데요. 국가 하부기관들이 계속 장난을 치는 상황에서는 결국 건강한 예술가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통해 이익을 보는 예술가들도 분명 있습니다. 예술가뿐 아니라 그 주변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이 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정부기관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지배 구조에서는 살아남기 힘들고 지원을 많이 따내 권력을 가져야 하는, 조폭 구조 비슷하게 문화예술계가 굴러가는 이 상황에 어디선가 제동을 걸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박신의 현재 예술행정 현장직은 결코 행복한 직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CEO나 직원들이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면서 사업마다 성과를 중시하는 상황에서 꼭 막힌 형국이라고나 할까요. 예술가와 예술 현장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요. 이런 식의 성과 중심 조직 문화가 이 정권에 들어와서 더 심해졌어요. 문화부조차 문화정책에 대한 기초와 신념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산하기관에 성과를 요구하는 격이다 보니, 갑으로서 지위에 대한 반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검열이 진행된다는 것도 곧 예술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결과로도 볼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모든 것이 행정 위주의 관리체제화, 혹은 탈정치화, 중성화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공공성은 배려와 톨레랑스(관용), 타인에 대한 이해, 공정함과 정의로움입니다.

박신의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예술은 사실 그 누구도 무엇도 의식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모두를 위하고 모두에게 공헌하는 것’입니다.

곽효환 시인, 대산문화재단 상무,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

검열은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규석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본부장

문화부에서 개입하는 행위가 이 시대의 검열이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만 그 행위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임인자 독립문화기획자,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

또 다른 주체인 시민사회, 국민에게는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까요.

고영직 지금 문화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예술지원이 아니에요. 교육 지원에 있어요. 예술 지원은 계륵같이 여겨요. 집중 지원은 기금 고갈을 포장하는 방식이에요. 중요한 건 소신 있게 작업하는 작가들이 지원 과정에서 소외되고요. 저는 비유적으로 '평상을 하나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어요.¹ 지금의 문화 정책은 추진은 잘하는데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가 없어요. 추진은 보이게 만드는 것이고 추구는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건데요.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중간 체계, 평상이라는 협치가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 후유증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요.

이양구 검열에는 주체와 객체가 공모하는 지점이 있어요. 이 지점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연출 건에 주목하는 겁니다. 부당한 지시가 왔으면 직원들은 본인 선에서 거부했어야 해요. 박근혜 연출가도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했어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다 도망갔잖아요. 국가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술위 직원들과 연출가가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겁니다. 검열이란 게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가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 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 방식으로 최선의 합의를 한 거라고 봐야죠. 사회가 자신들을 가장 비난하지 않을 방식,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지키는 방식으로 합의한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이해 못할 바는 아니겠지만요. 이때 훼손된 건 국가의 법질서고요. 피해는 다 같이 보는 거지요. 정말 난감한 것은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와중에 서로 다른 공모에 같은 작품을 응모해서 선정됐다는 겁니다. 물론 법적인 권리로 보면 아무 문제도 없는 일이죠.

지금의 검열적 상황은 공공성을 명목으로 이뤄지고 있거든요. 예술문화 전반에서 이뤄져야 할 공공성이 무엇인지 정의해보면 좋겠어요.

문학수 공공성이라는 말은 많이 쓰고 있지만 실체가 불명확

하죠. 사전적 정의는 '모두에게 공통된 이익'인데 이것 자체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잖아요. 어차피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뺏길 수밖에 없는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해나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이고,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반영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의 개념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양구 공공성의 개념은 조한상 선생님이 알프레드 링켄(Alfred Rincken)을 인용해서 잘 정리해놓으셨는데요.² 어원은 라틴어 퍼블리쿠스(publicus, 인민의)이고 포폴러스(populus)의 형용사인 데 퍼플(people)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인민, 시민, 이들이 곧 공공성이다, 두 번째는 공통의 이해, 공공복리. 세 번째가 공개성,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고 합니다. 공공성은 의사소통의 과정, 토론을 통해 검증된다는 거죠. 공공성의 개념을 공적으로 논의해가는 과정 자체가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들어가면 공론장의 개념이지요. 물리적인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포럼처럼 공적인 논의 공간이 다 공공성이예요. 일단 검열이 되면 아르코예술극장과 같은 물리적 공간을 빼앗기는 문제로 우선 다가오죠. 지원금, 지원 제도에 대한 모든 공적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이고, 심사 결과에 대한 비판적 토론도 거부되고요.

박신의 일반적으로 공공성에 대해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공공성이 국가에 관계된 공적인 것, 그리고 모두에게 해당하는 공통적인 이익이라는 의미를 갖지만, 현실에서는 계급 계층에 따라 선별과 배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 향유를 최대화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국가가 규정하는 문화가 교육받은 자에 한정할 경우 논란거리가 될 수 있지요. 그리고 공통의 이익에 대해서도 누구에게나 똑같을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이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늘 있어왔음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양구 작년에 해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의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모두에게 똑같은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서는 공통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각자 모두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관점의 다양성이 공공성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검열에 들어가면 비판적인 논의, 관점의 다양성이 부정당합니다.

고영직 예술은 상상력의 빈곤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다양한 것이잖아요. 사람의 정체성을 51%가 압

도적으로 지배할 때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배합을 어떻게 다양화할 것인지에 예술이 기여하는 것이고요.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지만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연애할 수 있는 것을 지향하는 의미의 공통성, 좋은 예술의 가치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신의 저는 예술경영을 ‘예술의 사회화’라고 정의해요. 예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아직 우리나라 예술행평가들은 이러한 지점에서 전문성과 자신의 소신을 갖추었다고 보기 힘들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예술경영의 역사가 짧은 탓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는 서서히 그런 전문성을 본격적으로 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 박근형 연출가의 경우도 전문가들에 의해 작품이 선정되었으면, 직원들은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공공성이지요. 결국 예술행평가의 공공성이란 전문성이고, 그 전문성은 예술의 가치와 예술을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나 목표에 대해 신념을 갖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아직 우리에게 강력한 문화예술 리더가 없다는 것도 이러한 불행의 원인이기도 해요. 만일 이번에도 강력한 리더가 방패가 되어주었다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이규석 제가 공공성의 의미를 얘기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나 관점이 갈등적 상황에서도 공존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지원기관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정치적 환경이 늘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맞서서 갈등적 공존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의 문제거든요. 거기에는 소신의 문제가 작동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그 이유가 명확하다면 갈등적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존시켜내려는 에너지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중요한 공공성의 미덕이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검열은 보수 정권의 절박한 정치적 욕망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으로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정치, 사회, 문화적 연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 스스로가 내부적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박신의 우리에게 강력한 리더가 없다 보니 자기 취향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초기에 서울대 출신 교수와 화가를 대상으로 초대

권리장전 2016 검열각하

2016. 6. 9
대학로 연우소극장 및 야외공간
10.30

검열에 말씀을 드립니다

권리장전2016 검열각하
일시 2016.6.9-10.30 매주 목-일 | 장소 대학로 연우소극장

권리장전2016 검열각하는 한국의 예술계에 일어난 검열 사태에 맞서는 연극인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한 장기 릴레이 발언대입니다. 스무 개의 극단이, 스물 한 편의 공연을 다섯달 동안 무대 위에 올리며, 작품을 통해 예술검열에 대한 발언을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권리장전을 만듭니다!

권리장전2016 검열각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은 문화예술 지원금이 아닌 소셜 펀딩을 통해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시민과 예술가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권리장전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금기간 2016년 4월 17일 - 6월 16일

모금처 tumblr.com/projectforright | 텀블러 '권리장전'

문의사항 facebook.com/project.for.right
project.for.right@gmail.com

개별후원 우리 1005-702-539358, 김수희(극단미인)

한 것이나, 자신의 재임 기간에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을 하겠다는 식의, 공정심을 잃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공공성은 배려와 톨레랑스(관용), 타인에 대한 이해, 공정함과 정의로 움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취향을 드러내서 균형을 깨뜨리고, 직원들에게 그러한 업무를 하달하는 식이다 보니, 직원들이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성장하게 하는 데 장애가 되는 리더의 모습이 여전하다고 봅니다.

최선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비정상적 정상화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비정상적 정상이라고 말했는데, 다른 관점에는 비정상이라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의하는 것은 그것을 범죄라고 얘기하지 못함으로써 그 룰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술계에서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다 룰이 무너진 것들이었고, 많은 예술가에게 큰 실망감을 넘어 절망감을 주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심각합니다. 누군가는 비정상이라고 말했는데, 다른 관점에서는 정상이라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선 설치미술가,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

임인자 저는 문화부에서 개입하는 행위가 이 시대의 검열이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만 그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상황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검열로 재정의하는 게 더 필요합니다. 예술위를 지키려고 했던 직원이 왜 검열의 당사자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문화부 산하기관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예술가들이 같이 들고일어났다면, 예술위를 우리가 지켰다면, 지금의 검열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었을 거예요. 그 담당자들은 이양구 연출님의 <필경사 바틀비>의 대사처럼 ‘프리퍼 나트 투(prefer not to)’, ‘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을 거예요. 이 상황은 예술가와 행정가, 시민들이 공통으로 만들어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한 검열적 상황, 공공성의 상황에서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문학수 결국 민주적으로 성숙해질수록 공공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더라도 예술가들에게는 어떤 것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공공성이라는 잣대를 예술가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술가들은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쳐나가야 하고 그것이 예술 발전의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기관들은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초래하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예술가들과 문화계 사람들이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가 많아지면서 구조적인 시스템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이양구 팝업씨어터 검열 때 문제가 된 것은 세월호였거든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가 세월호가 갖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담당 직원 김진이 씨가 방송에 출연했을 때 ‘아티스트와 관객을 만나게 하는 게 내 역할이고 그렇게 4년간 일했는데 어느 날 내가 못 만나게 하고 있었다, 여기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자기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³ 예술이 공공성을 가진다고 할 때 예술은 국가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연출가는 자신에게 작품 포기를 중용한 예술 위 직원들을 jbc 인터뷰에서 불쌍한 문화예술 공무원이라

고 규정했습니다. 두 직원도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어떤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제가 이 방송이 나간 뒤에 대학로 X 포럼에 그들이 불쌍한 공무원이 아니라 공직자들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팝업씨어터에서 공연 방해로 지시받은 또 다른 예술위 직원 김진이 씨는 예술행정 공직자로서 자기 역할을 자각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진이 씨를 통해서 팝업씨어터 공연 방해 사건이 <이 아이>의 공연팀(연출 김정)이 짓밟힌 사건이면서 동시에 예술행정 직원의 공적 업무가 짓밟힌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예술위 직원이라는 ‘인간’을 누구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걸까요?

고영직 공공의 더 큰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공유지가 사익화하고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브레히트(Bertolt Brecht, 1898~1956)가 ‘예술가는 사회에 대해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사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이 검열 사태뿐만 아니라 예술하는 시민으로서 잡아야 할 공공성의 토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신의 공공성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은 그 공공성의 이니셔티브가 관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일본에서는 문을 닫으려는 지역 문예회관을 시민이 다시 살려서 시민 문화 공간으로 운영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그분들의 주장은 공공성의 이니셔티브를 관으로부터 시민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공공성을 ‘공공권’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자는 것이었어요. 저희도 이니셔티브를 예술 현장으로 옮겨오으로써 대안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영의 ‘시여, 침을 뱉어라’⁴에 나오는 ‘예술은 사실 그 누구도 무것도 의식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모두를 위하고 모두에게 공헌하는 것’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결국 차이를 존중하는 것, 다름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술경영자와 예술행정가의 몫이라고 봅니다. 예술행정가들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공공의 담론을 두텁게 형성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5,6,7}

1 고영직 ‘[크리티크] ‘평상’ 하나 놓읍시다’(한겨레, 2016. 6. 3)

2 <공공성이란 무엇인가>(조한상 지음, 책세상)

3 C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 2015년 11월 3일 방송

‘연극계 검열과 탄압실태’(인터뷰 전문 www.nocutnews.co.kr/news/4498609).

4 ‘시여, 침을 뱉어라-힘으로서의 시의 존재’

(1968년 4월, 부산에서 펜클럽 주최로 행한 문학세미나에서의 발표 원고)

* 토론 내용은 서울문화재단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며 [문화+서울]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산예술센터
2016 시즌 프로그램

2015 제 5회
벽산회곡상
수상작

오대산
아트센터

국립극단
아랑진

곰의 아내

고연옥 작
고선웅 각색/연출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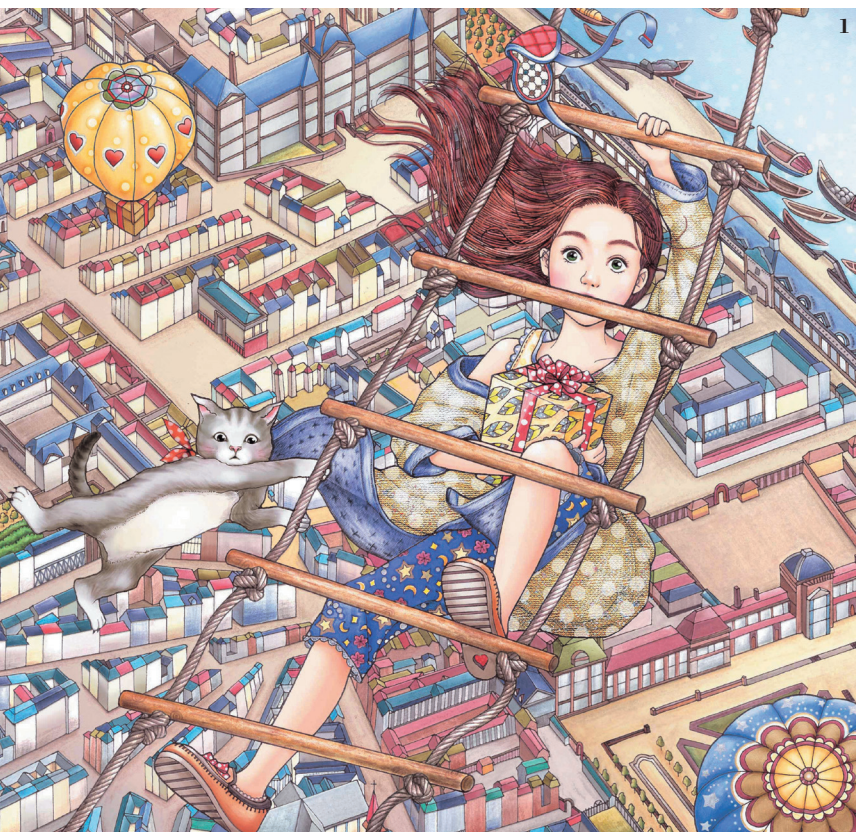
출연진

김호정
안성현
최용민
유병훈
김명기
김성현
손고명
강득중
이지현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서울문화재단
극공작소 마방진
제작
남산예술센터
극공작소 마방진
제작지원
벽산문화재단
후원
벽산엔지니어링(주)
예매
남산예술센터
인터파크
대학로티켓닷컴
문의
남산예술센터
02-758-2150

7.01
- 7.17

NAMSAN ARTS CENTER



동심을 바느질하는 컬러링북 아티스트 송지혜

그의 색칠놀이에는 따뜻한 이야기가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서점가에서 컬러링북이 인기를 끌고 있다. 스케치된 그림에 펜으로 아름다운 색을 칠하는 사이 마음과 생각이 정돈되는 ‘힐링’의 효과 덕이다.

섬유예술을 공부하고 작업을 이어나가던 송지혜 작가는 우연찮은 기회에 컬러링북을 만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의 작품에는 이전의 다른 책에 없던 캐릭터와 스토리텔링이 있다.



섬유 아티스트, 컬러링북을 만나다

언젠가부터 카페에서 다 큰 어른들이 커피 한 잔을 옆에 놓아둔 채 색연필을 꺼내 들고 무언가를 열심히 칠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몇몇이겠거니 했는데 그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았다. 자세히 보니 어릴 때 문방구에서 팔던 ‘색칠놀이’와 비슷한 책을 펴놓고 있었다. 꼬맹이 시절, 몸집보다 큰 가방을 메고 친구들과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꼭 들러 한참을 구경하곤 하던, 공책처럼 생긴 색칠놀이 말이다. 그 안에는 큰 눈망울에 물결치는 긴 머리의 공주님들 대신 유명하다는 프랑스 작가의 그림이 채워져 있는 것, 그리고 ‘색칠놀이’라는 유치한 명칭 대신에 ‘컬러링북’이라는 좀 더 멋져 보이는 명칭으로 바뀌어 있는 것 말고는 똑같았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한 편집자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블로그에서 내 작품을 보았으며 컬러링북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는 제의를 받았다. 대학에서 섬유예술과를 졸업한 후 섬유 아티스트로 활동하며 천과 여러 가지 재료를 종합해 작품을 만들어오던 활동과는 많이 달라서 거절하려던 찰나, 서랍장 속의 해묵은 도안들이 문득 생각났다. 수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해오면서 섬유예술 작품을 만들기 전에는 늘 구상한 내용을 스케치로 남겨놓곤 했는데 매마침 내 서랍장 안에는 그런 도안이 한가득 쌓여 있었다. 판형에 맞게 간단히 수정 작업만 하면 될 것 같았다. 서랍장을 열어 예전에 그려둔 도안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니 하나의 스토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패턴이나 풍경을 단순히 나열한 수많은 해외 컬러링북 사이에서 어쩌면 이것이 내 컬러링북의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의 정원>(북라이프, 2014)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컬러링북의 ‘스토리텔링’이라는 차별점

컬러링북으로 알려지기 전에 나는 섬유와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유년기의 동화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섬유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었다. 내 작품의 중심 테마는 ‘동심의 세계’다. 인간적인 따스함이 최대한 묻어나게끔 손바느질과 페인팅 등을 결합한 나만의 제작 기법으로 시각예술 작품을 완성했다.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로 하여금 잠시나마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떠올릴 수 있도록 작은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 목표다. 소소하지만 가슴 한 편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나는 유년기의

추억들을 조심스레 꺼내 한 편의 동화 같은 이야기를 만들고 이를 시각적인 작품에 투영하기 시작했다. 나의 작품 세계에서 스토리텔링은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스토리를 그대로 옮겨온 <시간의 정원>이라는, 차별화된 콘셉트의 컬러링북은 곧바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 받게 되었다. 처음 출간한 책이 순식간에 서점 종합 베스트 순위에 오르는 믿기지 않는 일이 생긴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차별점 덕에 주목받아 해외 진출의 길이 열렸고, 북미에서 국내 단행본 역사상 최고 금액으로 판권을 수출하는 일까지 생겼다. 지금은 중국, 일본 및 동남아 국가, 미국·영국·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 남미와 스페인 등 스페인어권 국가, 기타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과 이스라엘까지 거의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 해외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에서 이러한 기회와 행운이 찾아왔다는 것이 아직도 꿈같이 느껴질 뿐이다.

물론 작가의 길을 걷기까지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도 있었다. 어릴 때부터 가장 자신할 수 있는 일은 그림 그리는 것이었지만, 막상 꿈꾸던 일에 도전하기에는 이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 않았다. 무명의 신진 작가가 그림으로만 생활하기는 어려웠기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다른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작품 활동에만 집중할 수 없는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그 시기가 결코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나를 알아주고 응원해주는 소수의 컬렉터들, 그리고 이 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나는 행복한 작가였다.

작품 속에서 성장하며 행복을 전하는 ‘소녀’처럼

돌이켜보면 내 작품 세계의 터닝포인트에는 언제나 우연인 듯 필연적인 만남이 있었던 것 같다. 컬러링북과의 만남이 그러했고, 소녀와의 만남이 그러했다. 언제부터인가 내 작품 속에는 늘 어린 소녀가 등장한다. 소녀는 관객이다. 그녀는 독자로서 하여금 순수한 어린이의 시선으로 작품 속 세상을 탐험하며 감정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 구실을 한다. 소녀는 또 ‘나’이기도 하다. 여행을 좋아하는 아버지를 따라 미국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보낸 내 유년기가 그대로 투영된 존재다. 나는 성장했지만 내 마음속의 소녀는 여전히 어린이의 모습으로 남아서 내가 어른이 되어도 소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준다. 그 소녀는 <시간의 정원>에서는 빠



꾸기 시계 속에서 태업을 감는 붉은 머리 요정과 함께 환상의 시간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시간의 방>(북라이프, 2015)에서는 점차 어른이 되어가는 소녀가 동심을 잃지 않도록, 빠꾸기 시계에서 현실 세계로 나온 붉은 머리 요정이 그녀의 기억을 되살려줄 마법의 도구들을 뿌려놓는다. 최근에 출간한 세 번째 컬러링북 <세상의 모든 선물>(앵글북스, 2015)에서는 ‘행복을 전하는 소녀’가 되어 선물 꾸러미를 세상의 이웃과 나누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환상 여행이 펼쳐진다. 나는 이 책의 스토리 그대로, 세 번째 컬러링북의 국내 인쇄 전액을 승일희망재단을 통해 루게릭병원 건립에 기부하고 있다. 작가의 삶과 내가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진실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결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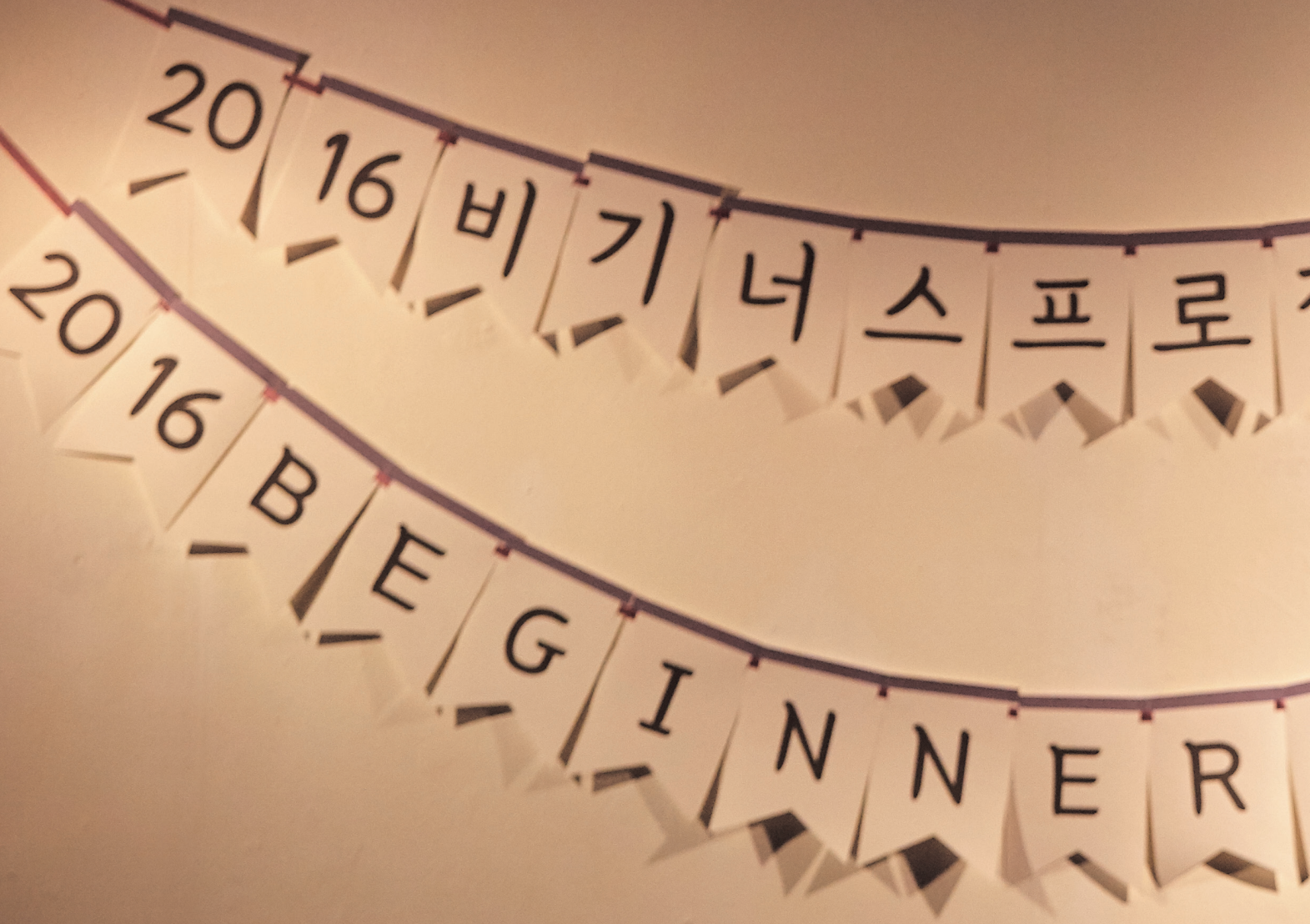
이렇게 소녀의 이야기는 과거로부터 현재로,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자리 잡고 앉아 색칠놀이에 열중하는 어른들을 보면 저들의 마음속에도 소녀가 있는 것은 아닐지, 따뜻한 꿈을 꾸게 된다.

‘컬러링북 아티스트’가 되려면?

- 1 스케치 실력을 키우자. 요즘 아무리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손맛이 느껴지는 스케치 실력은 기본!
- 2 본인만의 색깔이 필요하다. 컬러링북은 보통 색이 들어가지 않은 흑백의 스케치로 구성되기 때문에 작가 개인의 개성을 드러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럴수록 그림체나 스토리, 혹은 필선에 개성이 묻어나도록 그리는 것이 포인트!
- 3 그래픽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 독자에게는 내 그림의 원본이 아닌, 인쇄된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포토샵·일러스트 등의 프로그램으로 효과를 넣거나 색감을 보정하는, 즉 그림을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다.



글·사진 송지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섬유예술을 공부하고 섬유예술 아티스트,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했다.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컬러링북 <시간의 정원>을 시작으로 <시간의 방> <세상의 모든 선물>을 내며 컬러링북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절망하는 것,
당신의 첫,

-김혜순의 시 <첫> 중에서



조영남 작품 대작(代作) 논란

화투 그림이 개념미술이라고요?

지난 5월 불거진 ‘조영남 대작 논란’은 미술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대작을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는 입장과 그의 작품이 개념미술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고 비판하는 입장이 맞섰고, 이는 현대미술을 둘러싸고 미세하게 다른 의견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존재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작가 조영남으로서 그가 간과한 것은 무엇이며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현대미술에 대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조영남 씨 대작(代作) 논쟁은 애초에 길을 크게 잘못 들어섰다. ‘콘셉트를 제공했다면 문제 될 게 없다’는 게 사달의 시초였다. 조 씨의 작업이 개념미술의 범주에 속한다면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다. 개념이 미술품의 핵심인 것이 곧 개념미술이기 때문이다. 개념미술이나 개념주의 미술에선 창작 노동, 개념의 물리적 구현, 기법의 완성으로서 스타일, 질료의 이해 등은 거의 또는 전적으로 무의미하다. 그런데 조 씨의 화투 그림류를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 만일 화투가 개념이라면, 송기창 씨처럼 통상의 수준을 능가하는 재능과 연륜을 지닌 대작화가가 동원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는가? 택시기사보다 많은 인건비까지 지불하면서 말이다.

조 씨의 화투 그림은 조금도 개념적이지 않다. 화투를 ‘소재’라면 모를까, ‘개념’이라 할 수야 없다. 화투 그림 자체가 이미 구체적인 회화적 실현 과정의 산물이다. 조 씨거나 조 씨 아닌 누군가의 손과 노동과 감각이 개입한 흔적이라는 의미에서다. 이 세계는 붓 터치 하나를 인식과 근육의 변증적 삼투, 질료와 사유의 상호 침투로 읽는 세계다. 색의 내밀하거나 거친 농담은 예술적 쟁점이 되고도 남는다. 터치는 가볍고 경쾌한가? 거칠거나 불규칙한가? 톤은 차분한가 아니면 긴장되어 있나... 결코 타자에게 위임되어선 안 될 주체가, 의식의 섬세한 변주가가 세계에선 그렇게 귀기한다. 자명하게도 조 씨의 화투 그림류는 이 같은 비옥한 참조들을 불러들일 만한 수준과는 한참 격세지감이다. 다만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논해보자.

작가의 수공성이 결여된 회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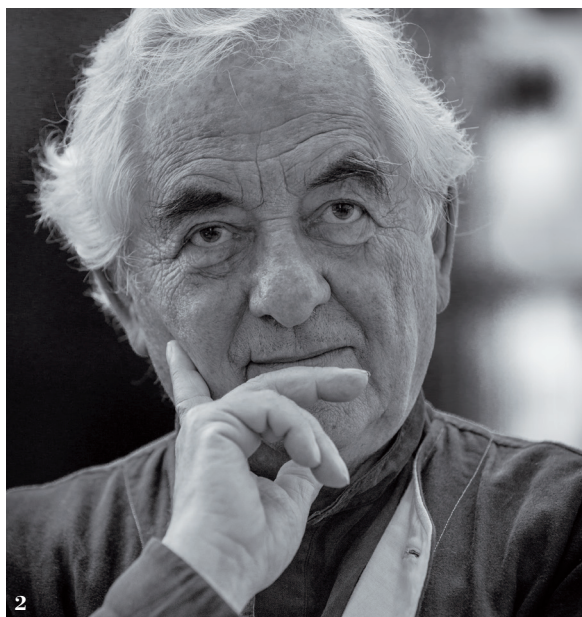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는 이 회화적 실현 과정을 ‘지속적 역동성’이라 했다. 마그리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내 마음은 자주 바뀌고 나는 그 변화를 좋아합니다.” 추상표현주의 화가 아실 고르키(Arshile Gorky)는 그 부단한 역동성의 추적이 더는 견디기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이 지난함을, 이 피할 수 없음을 어떻게 타인에게 위임하는가? 게다가 문자메시지 전송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신호에 실어서 말이다. 대경실색할 노릇이다. 사진을 찍어 보냈으니 문제 될 게 없다는 것도 해명으로서 무지하기가 이를 데 없다. 중요한 건 회화를 사진화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진을 회화화하는 과정이다. 전자는 기록에 근사한 반면, 후자는 예민한 해석적 과정, 곧 주체적, 거의 전적인 소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비록 전례 없이 경박한 시대를 지나고 있다고는 하나, 고작 앤디 워홀의 팩토리나 데미언 허스트의 허접한 상업주의 미학에



1 화투를 모티브로 한 조영남의 작품 〈극동에서 온 꽃〉.

2 프랑스의 다니엘 뷔랑은 미술의 상업화에 반기를 들었던 작가로, 공간의 특질을 작품에 끌어들이는 방식의 작업을 선보였다.

3 2012년 그랑 팔레에서 열린 다니엘 뷔랑의 전시 〈모뉴멘타〉.



분별력을 남김없이 저당잡히는 비극만큼은 피해보도록 애쓰자!

조 씨의 화투 그림을 변호하느라 몇몇 식자(識者)는 참 멀리까지 나아가는 수고를 마다치 않았다. 그렇더라도 마르셀 뒤샹까지 여야 했을지는 의문이다. 이들의 주장은 개략 이러한 듯하다. 어차피 미술 부리듯 명칭만 부여하면 ‘변기’도 예술인 판에, 굳이 ‘그리기’를 기준으로 삼는 시대착오에 기댈 일은 아니지 않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뒤샹을 이런 식으로 인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뒤샹에 대한 모독일 개연성이 크다. 알다시피 뒤샹의 <레디 메이드(ready-made)>는 2000년 서구 패러다임, 이데아와 형상의 이분법이라는 플라톤의 망령과 맞서 싸운 보상이었다. 기성품 미학이야말로 ‘그리기’에 대해 서구가 일관해온 케케묵은 편견과 버거운 사투를 벌인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그것을 그리기에 대한 플라톤적 폄하를 변호하는 데 다시 끌어다 쓰다니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다. 플라톤주의의 현대적 현현을 옹호하기 위해 반평생을 플라톤의 악몽에 시달렸던 사내를 불러들인 셈이다.

아마도 신사실주의 비평가인 피에르 레스타니(Pierre Restany)까지만 나갔더라도 우정을 확인하는 데는 충분했으리라. 레스타니는 미술의 미래가 ‘오만한 수공적 경향’을 버리고, 상대적 객관성을 향해 나아갈 거라 예측했다. 그리고 그 예견이 전적으로 틀리지는 않아, 오늘날 창작 노동의 비중이 현저하게 삭감되긴 했다. 하지만 수공적 방식을 등지는 조 씨의 방식은 재고의 여지없이 협잡(挾雜)하기만 하다. 조 씨의 화투 그림은 뒤

샹이 내동댕이쳤던 것을 오히려 집착적으로 공치고, 레스타니가 예견한 ‘수공성으로부터의 후퇴’를 전략적으로 이용했다.

미술의 상업성을 배격한 개념미술가들

개념미술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짚도록 하자. 1970년대 개념미술은 대전 이후 속수무책으로 자본화, 상업화되어가던 미술계에 대한 반대의 높은 기치로서 역사에 등장했다. 개념주의자들에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서구적 물신(物神)의 양상한 선동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다. ‘왜 미술관인가?’ ‘왜 미술품은 인생보다 더 밝은 조명 아래서 더 오래 보존되어야 하는가?’... 해서 개념미술가들은 재산목록화가 어려운 미술, 유가증권화가 불가능한 것, 매매나 소유의 원천적 불가능성으로서의 개념에 다가섰다. 프랑스의 다니엘 뷔랑(Daniel Buren)은 자신의 이미지가 거래 품목으로 정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이미지들을 파리 시내로 흐트러뜨리곤 했다. 회화가 특권을 누려야 할 어떤 이유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은, 뉴욕 브롱스 출신의 개념미술가 로렌스 와이너(Lawrens Weiner)도 같은 이유에서 어떤 ‘타블로(tableau)’도 그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지금 조 씨의 화투 그림은 대작된 신체에 운신을 의탁하고 있다. 신체치고도 참으로 구차한 신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안에서 자본의 세례와 상업주의가 내린 영성체의 흔적을 목격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³²⁾

글
심상용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과
동 대학원에서 회화와
서양화를 전공했다.
파리 8대학에서
조형예술학으로
석사와 D.E.A.를,
파리 1대학에서
미술사학으로
박사학위(1994)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
<예술, 상처를
말하다>(시공사,
2011), <시장미술의
탄생>(아트북스, 2010),
<속도의 예술>(한길사,
2008), <천재는
죽었다>(아트북스,
2003) 등이 있다.

홍익대 일베 상징 조형물과 표현의 자유

무엇을 위한 ‘표현의 자유’인가

지난 5월 홍익대 정문에 등장한 일베 상징 조형물과 이를 훼손한 사건은 ‘표현의 자유’ 논쟁에 불을 지폈다.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보장해야 할까, 타인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훼손하는 것은 정당한 일일까.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5월 30일, 서울 홍익대학교 정문에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를 의미하는 손가락을 표현한 대형 조각상이 설치됐다. 조각상이 설치된 이후 부적절한 상징물을 전시했다며 조각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급기야 6월 1일 새벽에는 한 20대 남성이 조각상을 직접 파괴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표현의 자유’ 논란이 시작됐다.

조각상의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편에서는 일베 조각상 자체에서 혐오감을 느꼈다며 이 작품은 ‘표현의 자유’ 논리를 적용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국만의 ‘표현의 자유’ 허용 기준 필요

대한민국 헌법은 21조 1항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4항에서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홍대 앞 일베 조형물을 둘러싼 논란은 좁게 보면 이 조형물이 ‘표현의 자유’의 예외에 들어가는지 아니냐’로 볼 수 있다.

법학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대하는 미국과 독일의 차이를 통해 우리만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선진국 중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성조기를 공공장소에서 불태운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한 바 있다. 성조기를 불태우는 행위는 미국 국민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지만, 그 행위 자체가 물리적인 폭력 등 범죄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1
지난 5월 30일
홍익대 정문에 설치된
일베 조각상.

2
조각상이 설치된 후
이를 본 학생과 시민이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3, 4
6월 1일 한 남성은
‘조각상 설치
폭력’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메시지(사진3)를
남기고 일베 조각상을
훼손했으며(사진4),
이는 표현의 자유
논란이 더욱 심화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반면 나치 지배의 경험이 있는 독일은 미국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 나치와 관련 있는 상징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하기만 해도 독일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내 상당수 국가들은 나치를 찬양하거나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고 있다. 지난해 유럽 의회에서는 나치식 경례를 한 의원 두 명이 열흘간 직무정지를 당한 예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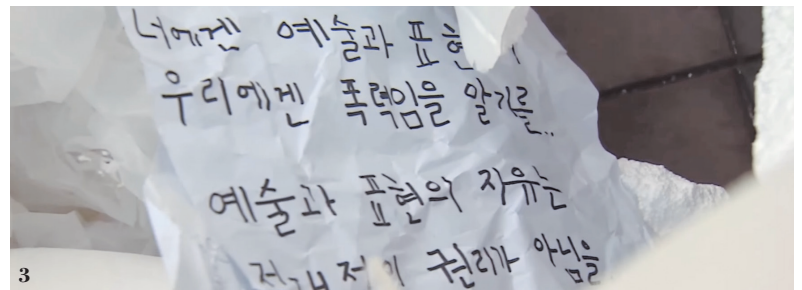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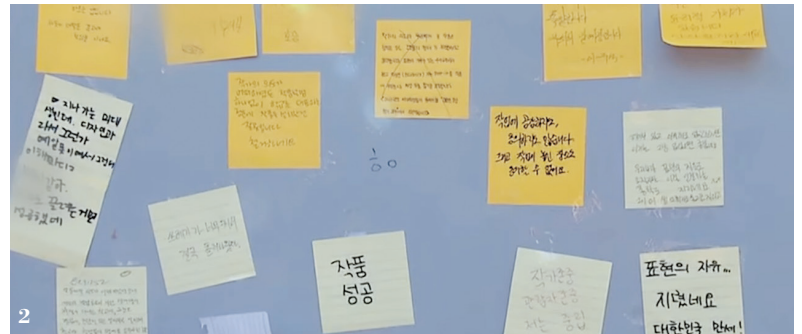
표현의 자유는 왜 보장되어야 할까

일베 조형물 문제가 불거지자 일각에서는 이 조형물이 나치의 하켄크로이츠(나치 깃발)나 일본의 욱일승천기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베 조형물을 전시한 것만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규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법학자들은 일베라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독일의 나치와 동급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나치의 경우 한 때 독일의 집권 정당이었으며, 일련의 체계를 갖춘 조직이었다. 또한 일베 조형물의 작가가 일베를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형물을 만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이런 조형물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를 만들기도 어렵거니와, 선불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게 법학자들의 지적이다.

사회학자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틀뿐만 아니라 표현의 내용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여성학자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애초 ‘표현의 자유’는 여성이나 장애인,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발언권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된 것인데, 인종차별, 성차별, 지역 차별에 해당하는 표현이 표현의 자유를 명분으로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문제다. 일베 조각상도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소수자를 쉽게 혐오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벌어진 일로 봐야 한다는 관점이다.

표현의 자유 논의에는 ‘소수자 혐오 표현 규제’가 전제돼야

표현의 자유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만난 여러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 소수자를 혐오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는 데에는 대체로 동감했다. 소수자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아무런 설명 없이 일베 상징 표현을 조각한 작품이 거리로 쉽게 나오지 못했을 것이고, 애초에 일간베스트저장소라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주목받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소수자를 공격하는 ‘혐오 표현’에 대해 사회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는 추



상적인 주제로 소모적인 감정 싸움만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선진국도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증오심, 폭력을 부추기는 표현까지 지켜주진 않는다.

해외에서는 혐오 표현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제 수위를 정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일례로 영국의 시민단체 아티클 나인틴(Article 19)은 2009년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캠펀 원칙’을 발표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혐오 표현’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제 수준에 대한 연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법학자들은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소수자의 발언권을 침해하는 ‘혐오 표현’은 규제돼야 한다고 봤다. 공영방송 이사가 공개 석상에서 “동성애자는 더럽다”고 말해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잘못이라는 국가적인 선언이 있어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글
백철
주간경향 기자

사진
YTN NEWS
영상 갈무리
(goo.gl/3auE6A
본 영상의 저작권은
YTN에 있습니다)



1

〈바람난 미술〉 ‘그림가게’ with 카카오

전시장을 나온 미술, 온라인에서도 ‘바람’나다

시민이 일상에서 미술 작품을 만나는 계기를 제공해온 아트캠페인 〈바람난 미술〉이 온라인 플랫폼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카카오(Kakao)와 협업해 포털 다음의 ‘스토리펀딩’에서 작가 개별 펀딩을 오픈하는 것. 시민이 미술 작품을 좀 더 가까이서 쉽고 편한 방법으로 만날 수 있도록 문을 하나 더 연 셈이다.

아트캠페인 〈바람난 미술〉은 일상에서 미술을 향유하는 ‘바람(wish)’에서 시작된 ‘바람(wind)’으로, 미술관 문턱을 넘어 누구나 미술을 쉽고 편하게 만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 미술을 즐기는 방법을 제안한다. 작가에게는 미술관 밖에서 창작 활동과 작품을 소개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대중에게는 보다 가까이 존재하는 미술로서 일상 속 작품 감상과 합리적인 가격에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 1월, ‘찾아가는 전시’로 첫 번째 바람이 불었다. 이후 2015년 12월까지 ‘전시장을 나온 미술, 예술이 넘치는 거리’라는 테마로 서울시청 시민청, 서울의료원, 구로구청 등에서 시민과 접점을 마련하며 작가의 작품(원화)을 전시해왔다. 이와 함께 ‘지하철 플랫폼’ ‘그림가게’ 등 공공 갤러리 조성으로 서울시민의 일상 공간을 넘나들었다.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든 〈바람난 미술〉에 변화가 일어났다. 오프라인 중심의 미술 플랫폼을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한 것. 민간 기업 카카오(Kakao)와 협업해 포털 다음(Daum)의 ‘스토리펀딩’ 서비스를 통해 개별 작가 펀딩을 오픈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통해 작가의 창작 활동에 관한 생각과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대중은 창작자에 대한 이해와 동시대 시각예술의 경향을 엿볼 수 있게 되고, 나아가 미술에 관심을 꾸준히 가지면서 창작 활동에 대한 순수 후원 및 작품 구매로 이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오프라인 ‘그림가게’를 상설 운영해 대중이 미술 작품을 조금 더 쉽고 편한 방법으로 접하고 소장(구매)할 수 있는 기회와 접근 경로를 확대하고자 한다.

〈바람난 미술〉은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미술이 지닌 비대중성을 넘어 대중에게 ‘창작’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다. 창작에 대해 소개하고 이해를 넓혀 대중이 미술의 문턱을 쉽게 넘나들 수 있는 단초로 함께하길 희망한다.



동시대의 신진 예술가를 모으다

작가들은 자신만의 감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창작 활동으로 대중과 마주한다. <바람난 미술>은 대중이 작가의 창작 활동을 통해 현대미술의 흐름을 엿볼 수 있도록 회화, 입체, 사진, 설치, 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군을 선발해 스펙트럼을 넓혔다.

그동안 <바람난 미술>이 일반 공모를 통해 참여 작가(작품)를 모집해왔다면, 올해는 참여 작가 선정을 위해 서울권역의 시각 분야 전문 미술공간(기관)에 작가 추천을 요청해 분야의 전문성을 높였다. 서울문화재단의 대표적인 시각 관련 창작공간인 금천예술공장, 서교예술실험센터를 비롯해 대안공간 루프, 아트스페이스 풀,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시립), 금호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국립현대), 서울예술재단, 아르코 인사미술공간, 경기창작센터, 송은아트스페이스, OCI미술관 등의 기관이 참여했다. 신예 작가를 선별하기 위해 35세 이하(또는 내외의)의 작가로 참여를 제한했으며, 그 결과 14개 기관에서 작가 후보 104인을 추천받았다. 지난 6월 9일 시각 분야 전문가인 평론가, 교수, 작가, 기획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작가별로 제출된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해 40명의 작가를 최종 선발했다.

미술과 사람을 잇다

이렇게 모인 작가 개개인의 독립적인 창작 활동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온라인 '스토리 펀딩'과 오프라인 '그림가게'를 계획했다. 작가의 작품과 창작 활동에 범점을 찍고 작가의 진솔한 이야기를 끌어내 단순히 작품의 감상과 구매에 그치지 않고 가치를 공유하고자 한다. 미술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 다만 우리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잊고 있을 뿐이다. 아트캠페인 바람난 미술은 미술과 대중을 연결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왔다. 일부터 미술관을 찾아가기 전에 사람들의

'생활공간으로 찾아가는 미술'이라는 전략을 실행에 옮긴 것처럼, 이제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넘나들며 작가와 작가, 작가와 대중을 잇는 연결고리가 되어줄 것이다.

미술계에서 이러한 변화는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이미 미술계에서는 무수히 많이 시도되었다. <바람난 미술>은 '펀딩'을 통해 작가를 대중에게 소개하고, 대중은 작가의 창작을 후원해 소정의 리워드(보답)를 받게 된다. 창작자를 응원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바람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다. 온라인으로 보는 작가의 창작물이 오프라인에서 직접 볼 때 느낄 수 있는 감동을 대신할 수는 없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의 무궁무진한 활용법을 통해 작가와 대중이 만나는 접점을 확대하고자 했다.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미술관이 되기도 하고, 지나가다 잠시 머물며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갤러리가 되기도 한다. 더 많은 사람이, 한결 편하게 더 많은 예술 작품을 향유하고 작가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였다.

온라인 '스토리 펀딩'을 통해 작가를 응원하고, 우리가 응원한 작가에게 모인 기금은 지속적인 창작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다시 사용된다. 이렇게 시민과 작가,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이 함께 빛어내는 <바람난 미술>은 작가의 창작 활동을 지속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미술계에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이 될 것이다.

Daum 스토리 펀딩 | storyfunding.daum.net

'스토리 펀딩'은 포털 다음(Daum)에서 미디어 실험인 '뉴스 펀딩'으로 시작했다. 이후 2014년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스토리 펀딩'으로 개편됐다.

저널리즘, 라이프, 캠페인, 스타트업, 아트, 출판 등 총 6개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단순 기부를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창작자와 독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소셜 펀딩 서비스다.

- 1 2014 바람난 미술 '찾아가는 전시' @서울의료원 (2014. 10. 7~18).
- 2 2014 바람난 미술 '찾아가는 전시' @송파구청 (2014. 9. 15~10. 2).
- 3 2014 바람난 미술 '찾아가는 전시' @시민청 (2014. 10. 21~11. 2).

글
황은아
서울문화재단
공공예술센터

사진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교육총서 신간 발간

예술이 바꾸는 교육, 교육이 바꾸는 사회를 위한 가이드북

국내 예술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확산하기 위해 서울문화재단에서 2011년부터 발간하고 있는 예술교육총서 시리즈에 최근 두 권의 신간이 추가되었다. 예술과 삶의 통합, 다양한 예술 장르의 통합을 통해 학습자의 자기표현을 이끌어내어 감수성, 상상력,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통합예술교육'을 실행하는 예술교육가들을 위한 가이드북이다. 통합예술교육의 이론과 실재를 골고루 담아낸 화제의 신간을 만나본다.

삶과 예술이 하나가 되는 '통합예술교육'

우리는 오직 인간의 창조물인 예술이 아이러니하게도 점차 인간의 삶에서 유리된 곳에 존재함을 자주 본다. 예술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정체성이자 우리의 모습과 생활을 담고 있는 매개다. 어쩌면 예술가가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 더욱 필요한 예술교육이란 얼마나 그림을 멋지게 그리고, 악기를 잘 연주할 수 있게 하는지가 아니라 '예술이 삶에서 분리되어 대상화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닐까? 첫 번째 신간 <통합예술이란 무엇인가?>는 25년간 예술교육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백령 교수와 서울문화재단이 함께 기획한 통합예술교육 입문서다. 삶과 통합되는 예술, 다양한 장르가 통합되는 교육으로서 '통합예술교육'의 철학과 등장 배경, 구성 요소, 효과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교육설계자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술 장르를 포함하는 교육 설계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과정 개발 모형과 진행 사례를 함께 소개하면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통합예술이란 무엇인가>
백령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5. 12

<예술이 교실을 바꿨어요>
서울문화재단 예술가교사(TA)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6. 5



‘예술이 교실을 바꾸는’ 다양한 방법 소개

“나는 저기 쪽 뿐 아니라 나뭇가지의 나뭇잎이 되어볼래요!” “정답은 없는 거죠. 우리 마음껏 상상해도 되는 거죠?” 예술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이 보이는 반응은 너무나 활기차고 참신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을 더욱 북돋워줄 수 있을까 자연스레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에 대한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두 번째 신간인 <예술이 교실을 바꿔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은 무용, 연극, 시각, 음악 등 여러 장르가 융합된 다양한 예술교육 방법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알기 쉽게 설명해 수록하고 있어 실용적이다. 교육 요소별로 ‘상호작용’ ‘변형’ ‘움직임’ ‘상상’으로 구분해 21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선별했고, 모든 수업 과정을 대화체로 재현해 예술교육을 처음 시도해보는 교사들이라도 바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술이 교실을 바꿔요>는 서울시 초등학교 돌봄교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로 돌봄’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만들

어졌다. 2007년 처음 시작한 이래 10년째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 지속 운영되고 있는 ‘예술로 돌봄’은 매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아이들의 참여도·몰입도 및 학교 측과 교사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인기 프로그램이다. 예술 언어에 대한 이해와 교육적 역량을 겸비한, 엄선된 예술가교사(Teaching Artist, TA)들이 그간의 예술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활용 팁과 노하우를 직접 알려준다. 교육 방법과 현장 활용 요령, 교사의 자세, 학습자 반응과 효과 등에 대해 TA들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설명하는 ‘TA 가이드’를 각 부에 수록해 프로그램의 특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창의적 예술교육을 확산하는 총서 시리즈

서울문화재단은 링컨센터 교육철학자 맥신 그린의 강의록인 제1권 <블루기타 변주곡> 번역서를 시작으로 창의예술교육의 종합 입문서에 해당하는 제2권 <미적체험과 예술교육>, 유럽 예술교육의 현장 보고서인 제3권 <유럽에서 만난 예술교육>을 발간한 바 있다.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총서는 상대적으로 학문 형성 초기 단계로 전문 서적 및 연구 자료가 적은 국내 예술교육 분야에 미적체험형 예술교육의 개념을 전파하면서 예술교육가·교사들의 프로그램 설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예술가들의 사회참여, 예술행정가들의 올바른 정책 반영 등 예술교육 발전의 선순환을 이루는 기반이 되고 있다. 향후 예술교육총서는 보다 깊이 있는 연구 활동과 우수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대중과 공유함과 동시에, 미적 체험을 통한 시민 치유 등의 전인적 변화와 시민사회 변화의 영역까지 그 역할을 점차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글
이교은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 대리

사진
서울문화재단





전시장을 나온 미술, 예술이 넘치는 거리

작가에게는 세상에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시민에게는 생활 속 예술 감상의 기회를 주는 아트 캠페인 '바람난 미술'. 이번 호에서는 한 공간에 있되 서로 단절된 채 각자 차가운 정체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건조하게 표현한 조은주 작가의 <비 오는 날>과, 작가가 접한 하늘, 바다, 철문 등의 풍경을 한 장면 안에 조심스레 조합해 익숙한 듯 낯선 이야기를 그려낸 장원호 작가의 <다섯 사이에>를 소개한다.



조은주
비 오는 날

장지에 아크릴
80×100cm
2015
170만 원



장원호
다섯 사이에

캔버스에 유채
61×70cm
2014
90만 원

‘바람난 미술’ 사용법

- 나는 시민입니다. 작품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 우리는 기업입니다. 작품을 구매 혹은 대여해서 우리 회사의 예술지수를 높이고 싶습니다.
- 나는 작가입니다. 내 작품이 시민과 만나면 좋겠습니다. 대여와 판매의 길도 찾고 있습니다.
- 바람난 미술 전체 작품을 보려면?
바람난 미술 온라인 아트 갤러리를 방문해보세요.
www.sfac.or.kr/artsgallery

* 문의 02-3290-7140(서울문화재단 공공예술센터)

문래예술공장 지역문화예술 지원 프로젝트 <MEET>

예술이 뜬다, 문래가 뜬다

6월 10일 대단원의 막이 오른 <MEET 2016>

첫 무대의 '문래날래(Mullaenale)' 예술축제 현장은
지역의 따뜻한 나눔과 소통의 한마당이 되었다.

지역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예술축제로,
문화적 삶의 새로운 가치 생성과 공생적 의미를 기대해본다.

철공단지 이제는 예술단지로 탈바꿈하다

고려시대에 문익점이 목화를 최초로 재배했다고 해서 문래동이
라고도 하고, 물이 들어오는 동네라고 해서 '물래'라고 하는 문래
동*은 일제 강점기에 종연·동양 등 방직회사가 들어서면서 공장
으로 채워진 공업단지로 형성되었다. 그러다, 1960년대 초 무
렵부터 도로변(경인로)을 중심으로 철재상이 모여들기 시작해
1970년대를 거쳐 1980년대에 이르러 철재상 수가 800개를 상
회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고도성장을
이끈 대한민국 대표 공업 지역이다. 철공의 메카로 알려진 이곳

은 이제는 철공과 예술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철
공소 주변 곳곳에 작업실과 문화 공간이 들어서면서 다소 이색적
인 풍경이 펼쳐지되고 있는 것. 카페 내부의 예술 작품 전시, 낡
은 주택 안의 신선한 퓨전 음식, 골목길 이곳저곳의 작업실, 공
방, 갤러리... 이들이 철공소와 이채롭게 어우러진 모습은 문래
동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른 여름, 문래에서는 예술축제가 한창이다. 지난 6월 10
일부터 시작된 '문래날래(Mullaenale)'가 그것이다. 문래날래는
문래와 비엔날레의 합성어로 '함께 노래하고, 함께 공감하고, 함
께 놀아보자'의 의미로 지역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든 지역 예
술축제다. 축제에는 렉스, 라이엇키즈, 데이드림, 원톤 등 30여
개 록 밴드의 릴레이 공연과 노맨, 모트, 배드팅, 스티브, 장용빈,
준키, 지고스트, 피타 등 작가들의 다양한 개성을 느낄 수 있는
배드핸즈 기획전시, 그리고 중고장터 '플리마켓'과 바비큐, 캠페
일 등 다양한 먹거리 장터 '푸드컨벤션'이 선보였다. 이날은 스컹
크프로덕션의 예술단체를 비롯해 몬스터박스, 문래돼지불백, 번
영천막, 이주민방송, 왕코등갈비 등 지역 상인과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예술축제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번 예술축제 문래날래를 준비한 스컹크 프로덕션 원종희 대표
에 따르면 "몇 년 전 처음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에는 철공소 풍
경이 다소 생소했지만, 점점 주변 환경에 신기한 예술이 입혀졌
다"고. 생계를 위해 철공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자투리 시간
에 만든 공예품들을 공장 한 칸에 전시했는데, 이들을 보면서 예





술가와 함께 이끌어나가는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 문래날래의 기획전시에 쓰인 구조물은 철공상인들의 아이디어와 손에서 나왔으며, 행사의 먹거리와 플리마켓의 판매품 또한 지역 주민이 제공했다.

‘문래날래’ 예술로 날갯짓하다

문래날래의 중심은 역시 젊은 열기를 느낄 수 있는 록 밴드의 릴레이 공연이었다. 신진부터 베테랑까지 모인 30여 개 밴드의 연합 공연은 밴드마다 각기 다른 색깔의 무대로 관객의 열기를 끌어올리기에 충분했다. 동네 아저씨, 지역 상인, 학생, 예술가가 함께 어우러진 예술 축제는 록 음악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지하 공연장에서 에너지가 분출되는 사이, 2층에서 진행된 전시는 또 다른 풍경을 선사했다. 전시의 주제는 ‘서브컬처’. 작가의 애장품을 활용한 오브제와 그림 전시는 각각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드러냈고, 보드·자전거·티셔츠·모자·기타 등에 그려진 화려한 장식과 그림은 서브컬처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었다. 보편적인 관념에서 벗어난 패션과 작가의 상상력은 전시의 매력을 십분 더해주었다.

축제의 행복 중 하나는 단연 먹거리! 공연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 건물 밖에서 열린 ‘푸드컨벤션’에서는 바비큐, 칵테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 공연과 전시를 즐기느라 출출해졌을 관객의 허기를 딱 기분 좋게 채워주었다. 숯불로 구운 고기와 해산물은 축제를 즐기러 온 이들에게 생각지 못한 선물이 되었다. 또한

플리마켓은 판매자와 축제 관람객의 신선한 대화의 장이 되었는데, 애장품에 담긴 숨은 이야기들은 축제에 소소한 재미를 주었다. 낮부터 시작된 축제는 늦은 저녁이 되어서도 그 열기가 식지 않았다. 작품에 얹힌 이야기, 지칠 줄 모르고 이어진 록 밴드의 음악, 그리고 이를 즐기는 관객의 에너지는 문래동의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갔다.

문래동 전역이 무대가 되는 지역 문화예술축제

201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년째 접어든 문래예술공장의 <MEET>(Mullae Emerging and Energie Tic)는 문래동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전시, 공연, 축제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지역 예술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지난 6년 동안 이 프로젝트에 457명의 예술가가 참여해 92개의 프로그램이 소개되었다. 이번 <MEET 2016>에는 최종 17개 예술단체(개인 포함)가 선정돼 전시, 공연, 독립영화, 도서 출간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6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문래예술공장을 비롯한 17개의 문래동 소재 문화 공간에서 진행되는 <MEET 2016>은 자생적 예술인 마을인 문래창작촌만의 독특한 예술 색채를 감상하고 뜨거운 예술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 문래를 그대로 읽으면 ‘물래’로 발음이 나는데, 이는 방직기계의 우리식 표현인 ‘물레’에서 나온 말이다.

글
최정필
서울문화재단
문래예술공장 차장

사진
서울문화재단



일상을 벗고 예술로 씻는 행화탕

예술로 목욕합니다!

재개발로 헐릴 예정인 시한부 건물.

기존의 유휴 시설을 활용한 복합 문화 공간들과는 무언가 다르다.

나중에 자본에 의해 쫓겨날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떠날 것을 알고 시작하는 행화탕 프로젝트 애기다.

왕년엔 최고(最古)의 목욕탕

행화탕은 아현동 재개발 지구의 신축 브랜드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둘러싸여 있다. 옆집 한옥과는 담 없이 벽을 공유한다. 이질적인 건물들 사이에서 있는데, 그 모습이 어색하지 않다. 데칼코마니 같은 두 개의 출입문 중 한 곳으로 들어가 보니, 목욕탕이던 시절에는 서로 한 번도 보지 못했을 남탕과 여탕이 벽 없이 하나가 되어 있다. 아쉽게도 온탕과 냉탕은 없다. 목욕 시설은 이미 정리된 상태로 오랫동안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내부는 아직 음산하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한쪽 벽이 허물어져 있고 보일러실로

이어지는 구멍도 그대로 뚫려 있다. 목욕탕만 있는 게 아니라 뒤 편에는 2층 양욕이 숨어 있다. 엄밀히 말하면 지하까지 3층이다. 여기에 마당, 창고, 기름저장실까지 합치면 그 규모가 엄청나다. 일과 삶의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일종의 상가주택이다. 양욕의 1층은 공동작업실로 사용하고 2층의 방3개는 입주를 받았다.

행화탕은 원래 1960년대 초 문을 연,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목욕탕이었다. 파란 타일이 붙은 타원형의 욕조는 전형적인 근대식 목욕탕 구조였다. 50여 년간 아현동 주민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씻겨주다가 2007년경 문을 닫았다. 주택에 살고 있던 주인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난 후 집도 방치되었다. 오래전부터 재개발에 묶여 있어 언제 헐릴지 모르는 상태라 보수를 할 수도 다시 지을 수도 없었다.

행화탕의 마지막 손님

쓸쓸하게 버려져 있던 행화탕을 마지막 순간까지 돌보기로 결심한 이는 '축제행성'의 공동대표 서상혁과 주왕택이다. 행화탕은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축제행성'의 첫 번째 프로젝트다. 축제도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해온 서상혁은 후즈살롱의 대표이며, 주왕택은 서울댄스프로젝트 기술감독으로 첫 회부터

1
행화탕 개관
전시작품 중
'예술로 목욕하는
공간'을 표현한 이원형
작가의 <몸의 정원>.

참여해온 테크니컬 슈퍼바이저다. 서로 알고 지낸 지는 햇수로 5년. 사실 두 사람은 이 동네 주민이 아니다. 과거에 행화탕을 이용해본 적도 없다. 정말 아무런 연고가 없단다.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구하다가 우연히 행화탕을 발견했다. 일단 질러보기로 하고 올해 2월 22일 덜컥 임대차 계약부터 했다. “행화탕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찾지 않아 흉물스럽게 고독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가는 길을 아름답게 예술로 상조한다는 느낌으로 시작했어요.”(서상혁)

행화탕 프로젝트를 같이 이끌어 나갈 공동기획단 61311(육일삼일일)의 이름은 지번(아현동 613-11)에서 따왔다. 서상혁 대표는 하고 싶은 걸 하게끔 하는 관계에 관심을 두고, 공간을 매개로 여러 장르의 사람들과 작업해보고 싶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10명 모두 30대이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도 있고, 절반은 프리랜서다. 1년에 1회 2주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행화탕에서 진행할 수 있다. 활동 기간은 건물이 재개발될 때까지. 자칭 목욕주의자였다가 서상혁 대표는 샤워주의자에 대응하는 목욕주의자를 위한 축제, 급하게 하는 샤워가 아니라 스스로 노동을 하면서 온전히 자신을 벗겨내는 목욕재계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다. “샤워는 혼자 할 수 있지만 등은 혼자 밀지 못해요.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야 하죠. 등을 맡긴다는 의미도 있고요. 커뮤니티가 거기에서 생겨날 수 있어요.”

공간 보수는 61311 구성원인 이원형 건축가(워니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직접 진행했다. 목욕탕 천장을 걷어내어 숨어 있던 사까래를 드러냈다. 건물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라 원래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려고 했다. 행사의 성격에 따라 출입구가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 수많은 동선이 나올 수 있다. 본업이 있는 기획단원들은 틈날 때마다 와서 공사와 청소를 거들었다. 공간이 워낙 넓다 보니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처음부터 완전히 다 갖추고 시작하기보다는 일단 개관부터 하고 차차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2016년 5월 15일, 폭우 속에 치른 개관식에는 200여 명이 다녀갔다. 정돈된 10곳의 공간을 활용해 퍼포먼스 4개, 전시 3개 작품을 선보였다. 6월 29일부터는 서울문화재단의 ‘복작복작 예술로(路)’사업의 지원을 받아 ‘예술로 목욕합시다’를 시작한다. 61311 권효진 기획자와 후즈살롱이 같이 신청했다. 잘 먹기, 그리기, 입히기와 같은 의식주를 기반으로 하고 예술을 전면에 드러내지 않는다. 행화탕을 아현동 주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작업이다.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던 행화탕에 다시 주민들이 찾아와 명절 대목처럼 복작복작해질 조짐이다.



행화탕과 아름답게 이별하는 방법

철거를 앞둔 건물에 들어가 화사한 꽃을 심고 잠시나마 사람의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일, 재개발로 인해 점점 사라지는 서울의 오래된 동네와 이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 2년 후 행화탕이 사라져도 아쉬울지언정 마음은 덜 아프게 말이다. “이 건물은 노년의 사람이고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여러 사람이 때를 밀던 목욕탕 영업은 종료되었지만 예술로 다 큰 목욕을 하는 것으로 기억되어서 각자의 USB에 담겨지고 이 건물이 사라지더라도 함께했던 사람들이 남았으면 좋겠어요.”(서상혁)

2
행화탕 전경. 목욕탕
굴뚝은 그대로이고 노란
벽에 이름이 걸려 있던
흔적도 역력하다.

3
행화탕 개관 공연,
상상발전소의
<수중인간>.

글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사진 제공
축제행성,
박창현 사진 작가

연극 <햄릿>과 <리어 누아르>

고전을 즐기는 두 가지 방법

연극이 고전이라는 재료를 요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레시피에 충실하거나, 아니면 퓨전 요리를 만드는 것. 같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요리하는 연극 2편이 무대에 오른다.



베테랑 배우 9인의 호연을 한자리에서 <햄릿>, 7. 12~8. 7,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한국 연극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고(故) 이해랑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립극장과 신시컴퍼니가 공동 제작한 연극 <햄릿>은 원작에 충실한 작품이다. <햄릿>은 이해랑 선생이 1951년 연출가로서 국내 최초로 전막 공연을 한 작품이다. 그리고 그가 생전 마지막 예술혼을 불태운 작품 또한 <햄릿>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햄릿>만큼 그를 기리는 데 적합한 것은 없으며, 원작에 충실한 것이 취지에도 맞다.

이 정도만 보면 <햄릿>은 익숙한 맛을 낼 것만 같은 요리로만 보인다. 그럼에도 기대가 되는 것은 요리사 때문이다. 우선 초특급 출연진이 참여했다. 전무송, 박정자, 손숙, 정동환, 김성녀, 유인촌, 윤석화, 손봉숙, 한명구 등 현재 대한민국 연극계의 거장으로 꼽히는 배우 9명이 출연한다.

평균 나이 66세의 거장들은 27회 공연을 단일 캐스팅으로 출연하며 무대를 책임진다. 그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인물이 출연해야 마땅한 연극 <햄릿>을 소화하기 위해, 성별을 초월하고 단역, 앙상블의 병행도 마다하지 않는 고군분투를 보여준다. '작은 배우는 있어도 작은 배역은 없다'는 말을 몸소 증명해내는 것이다.

관객은 거장 배우들을 가까이서 보는 호사를 누릴 수 있다. 객석의 위치가 무대 위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관객과 배우가 더욱 가깝게 호흡하며 생생한 에너지를 느끼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연으로 만들려는 연출의 의도가 깃들여 있다. 연기 거장들이 내뿜는 숨소리, 열정적인 목소리, 움직이는 얼굴 근육까



지 생생하게 보고 느낄 수 있다.

여기에 연극을 풍성하게 해줄 스태프들이 배우 못지않게 화려하다. 대본 배삼식, 연출 손진책, 무대 디자이너 박동우, 프로듀서 박명성, 안무 안은미, 음악 정재일 등 분야별 최고의 스태프들이 의기투합했다. 이 정도면 요즘 표현으로 '어벤저스'급이다. 한국 공연 역사상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사건이다. 가격 3만~7만 원.

‘누아르’의 비정함과 스타일을 입은 리어왕 〈리어 누아르〉, 7. 14~23, 대학로 아트홀마리카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인 〈리어 왕〉을 ‘누아르(noir)’와 접목한 작품이다. 요리로 따지면 퓨전 스타일인 셈이다. ‘누아르’란 어둡다·검다는 뜻을 지닌 프랑스어로 폭력과 범죄, 도덕적 모호함, 성적 욕망에 대해 다룬 장르를 지칭한다.

작품의 줄거리는 이렇다. 고대 브리튼 왕국의 리어 왕이 노쇠하자 세 딸에게 효심 대결을 벌이게 해 왕국을 나눠준다. 이 과정에서 효심이 가장 깊은 막내딸 코딜리아가 아무 재산도 배분받지 못한다. 이후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은 두 딸에게서 배신을

당한 리어 왕이 광야를 헤매다가 막내딸의 주검 앞에서 실수를 느낀다.

〈리어 누아르〉는 큰 틀에서 원작의 스토리와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원작이 모든 것을 잃고 끔찍한 파국을 맞는 노년의 왕을 통해서 진실의 가치를 조명하고, 나아가 인간 정체성에 대해 냉혹하게 성찰한 작품이라면, 〈리어 누아르〉는 원작을 해체하고 재구성해 현시대의 근원적 문제인 ‘폭력’에 대해 고찰한다. 등장인물은 모두 도덕적 모호함, 선과 악의 뒤엉킴, 성적 욕망에 충실하게 지배받는 인물로 묘사되며, 트라우마에 의해 움직이는 인물로 해석되어 재창조되었다.

공연 형식과 스타일도 주목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필름을 통해 접하던 ‘누아르’의 느낌을 무대에서 재현하고자 노력했다. 절제된 블로킹으로 영화의 클로즈업과 같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농밀한 욕망을 극대화해 표현한다. 또 비틀린 시공간의 무대, 감각적인 영상이 시너지를 일으킨다.

연극은 미성년자 관람 불가 작품이다. 노출은 없지만 범죄물의 특성상 살인 장면이 많이 나오고, 인물들의 도덕적 모호함과 성적 동기 등을 강조하다 보니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저주를 퍼붓는 비윤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탓이다. 가격 1만 원.

1, 2
배우들의 앙상블이 기대되는 연극 〈헛웃〉. 연습실에는 진중한 에너지와 여유가 공존한다.
3, 4, 5
〈리어 누아르〉는 원작 〈리어왕〉을 해체 및 재구성하고 누아르적인 어법을 가미해 ‘폭력’에 대해 고찰한다.

글
유연석
CBS노컷뉴스
문화연예팀 기자

사진 제공
신시컴퍼니,
극단 경험과상상

전시 <오를랑 테크노바디 1966~2016>와

<미스터 브레인워시: Life is Beautiful>

현대미술의 두 파격

독특한 이력과 작품 세계를 가진 두 명의 해외 작가가 나란히 한국에서

개인전을 연다. 프랑스 작가 오를랑(ORLAN, 1947~)과

미국 팝아티스트 미스터 브레인워시(Mr. Brainwash, 1966~)다.

두 작가는 특정 미디어,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동시대 현대미술의 다양한 방법론을 생산하고 있다.

1
〈수술 전
시식하는 오를랑〉
시바크롬 프린트
165×110cm
1991
Courtesy the Artist.
2
〈베이징
오페라 가면 #10〉
파인아트타리타지
위에 피그먼트 프린트
흰 나무 프레임, 플렉시
글라스, 증강현실
120×120cm
2014
Courtesy the Artist
and Sejui Gallery.

자신을 재료로 실험을 거듭하는 아티스트

<오를랑 테크노바디 1966~2016>, 6. 17~10. 2, 성곡미술관

“나는 진심으로 몸을 옷처럼 갈아입을 수 있기를 바란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특한 패션. 머리 한가운데 가르마를 기준으로 흑발과 백발이 나뉜다. 겉모습만 봐서는 ‘괴짜 할머니’가 따로 없다. 머리 색깔이 다른 이유를 묻자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는 말이 돌아온다. 게다가 자신의 이름은 반드시 대문자로만 표기할 것을 요구한다. 주고받는 이메일은 본문 전체가 대문자(!)다. 그의 이름은 오를랑(ORLAN).

한국 개인전에 앞서 지난 5월, 프랑스 파리 아틀리에에서 만난 오를랑 작가는 두 시간에 걸쳐 자신의 작품 세계를 소개한 후 “나를 예술가로 보든 괴물로 보든 그건 여러분의 몫”이라는 말을 남겼다. 이 예술가는 왜 자신이 스스로 ‘괴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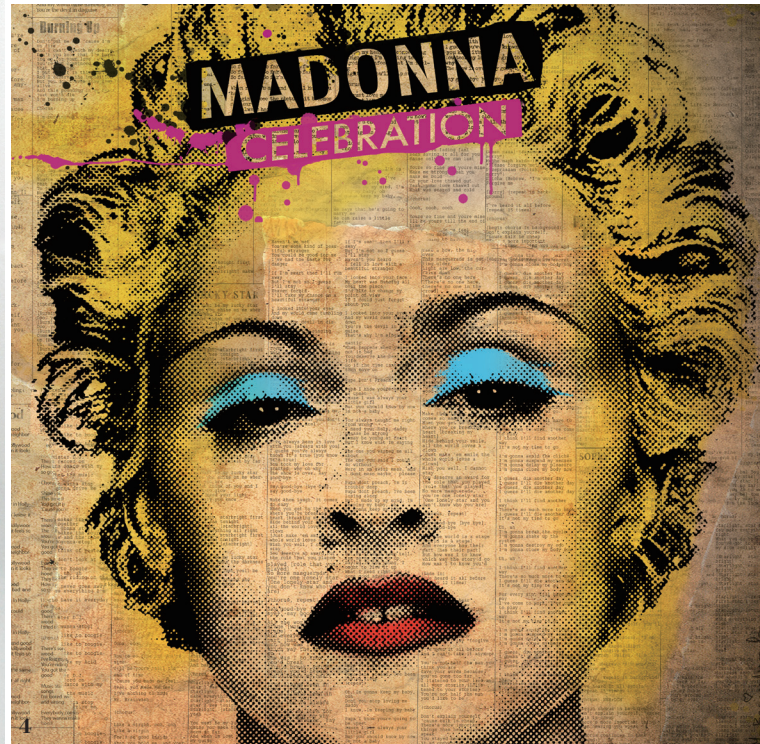
오를랑의 작품 세계는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여성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를 ‘온몸으로’ 거부해왔다. 시작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7년생인 작가는 10대 후반부터 자신의 나체를 이용한 퍼포먼스를 펼쳤다. 1977년 ‘예술가의 키스’라는 거리 퍼포먼스에서는 5프랑을 받고 관객과 키스를 나누는 행위를 펼쳤다. 또 성모 마리아에서 창부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스트립쇼를 선보이기도 했다.

1993년, 오를랑은 그 유명한 ‘성형수술 퍼포먼스’로 세계 미술계의 이목을 단박에 집중시켰다. 외과수술을 예술의 도구로, 수술실을 작업실로 삼은 퍼포먼스다. 작가는 자신이 직접 성형수술을 받는 장면을 위성으로 생중계했다. 이후 아홉 번에 걸친 성형수술 퍼포먼스를 감내하며 절개되고 변형돼가는 몸을 창작을 위한 실험 재료로 삼았다. 작가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양쪽 눈썹 위 불룩 튀어나온 반달 모양의 보형 물질도 이때 넣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웨어러블(Wearable) 기기를 이용한 비디오 게임, 의학, 생명공학, 디지털 합성, 증강현실 등을 작업에 도입하며 예술의 지평을 확장시키고 있다. 전처럼 수술대에 누워 칼을 대는 건 아니지만, 첨단 기술이라는 새로운 칼을 이용해 자신의 온몸을 변형시키는 방법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압력에 대해 끈질기게 질문하고 있다.

이번 한국 개인전은 196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50년간 오를랑의 작품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렸다. 정치, 사회, 종교에 의해 억눌려온 인간의 다양한 정체성을 꼬집어내고, 그 정체성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는 세계, 나아가 나와 남을 구분하는 낯과 관습적인 경계들이 사라진 새로운 카오스(Chaos)적 생태계를 꿈꾸는 오를랑의 예술 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미술관에서 만나는 스트리트 아티스트

〈미스터 브레인워시: Life is Beautiful〉, 6. 21~9. 25,
아라모던아트뮤지엄

이런 것도 예술이 될까. 아무렇게나 그어댄 것 같은 길거리 낙서. 그런데 미국 스미소니언 미술관, 뉴욕 현대미술관(MoMA), LA 카운티 미술관, 영국 런던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미술관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바로 미스터 브레인워시(Mr. Brainwash, 본명 Thierry Guetta)다.

프랑스에서 태어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유년기를 보낸 미스터 브레인워시는 영국 출신 스트리트 아트의 거장 뱅크시(Banksy)가 감독한 다큐멘터리 영화 〈선물가게를 지나야 출구(Exit through the gift shop)〉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페인트, 붓, 스프레이로 무장한 미스터 브레인워시는 빌리 홀리데이부터 존 레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아이콘을 자신만의 표현 방법으로 이미지화했다. 그는 마이클 잭슨의 〈Xscape〉 앨범과 마돈나의 〈Celebration〉 앨범 등을 협업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최근에는 벤츠, 코카콜라, 레이벤, 애플루트 보드카 등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예술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미스터 브레인워시의 대규모 개인전이 한국에서 열린다.

서울 인사동에 새롭게 문을 연 현대미술 전용 뮤지엄 아라모던아트에서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LA, 뉴욕, 마이애미, 런던 등지에서 선보여온 그의 대표작을 포함, 미공개 작품과 국내 전시를 위해 특별히 작업한 신작까지 총 300여 점 이상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스트리트 아트라는 장르를 미술관 공간에서 구현하기 위해 파격적인 기획과 디스플레이가 시도됐다. 대형 조형물과 그래피티, 미디어 아트가 어우러져 미술관 전체가 하나의 작품처럼 유기성을 갖도록 했다. 전시실 옆 영상관에서는 작가를 세상에 알린 〈선물가게를 지나야 출구〉의 하이라이트 필름이 상영된다. 영화와 함께 미스터 브레인워시가 그동안 어떠한 작품 활동을 했는지 그 여정을 보여주는 메이킹 영상과 그가 만든 미디어아트 영상도 상영된다. 구제 옷 가게를 운영하던 평범한 미스터 브레인워시가 전문적인 미술 교육 없이 유명한 스트리트 아티스트로 거듭나게 된 과정을 볼 수 있다.

미스터 브레인워시가 한국 관객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료하다.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3
〈Everyday Life〉
©2016
Amusement Art, LLC.
All Rights Reserved.
4
〈Madonna
Celebration〉
©2016
Amusement Art, LLC.
All Rights Reserved.

글
김아미
헤럴드경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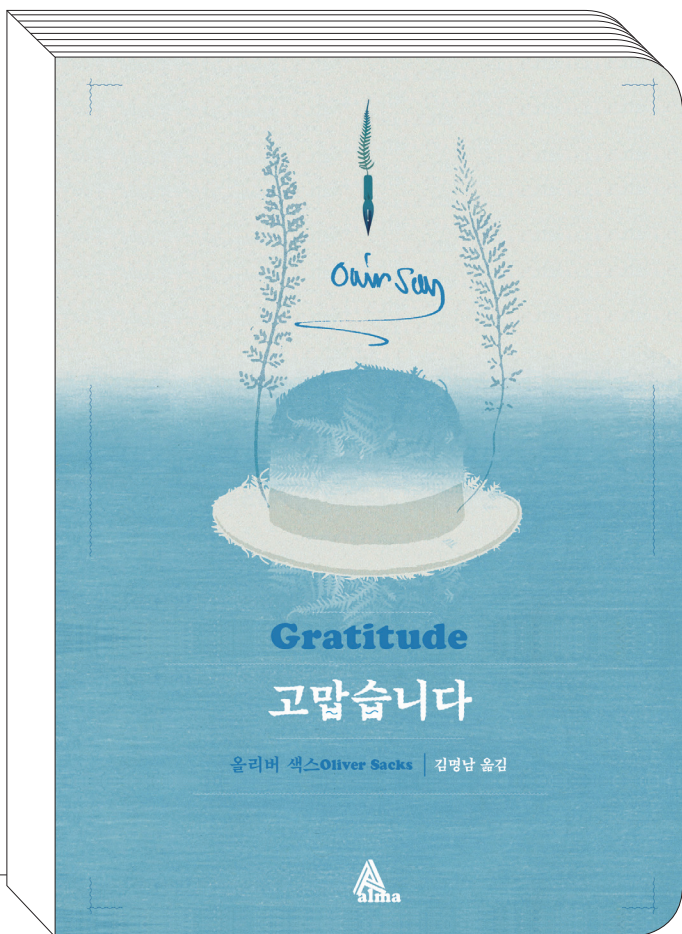
사진 제공
성곡미술관,
아라모던아트뮤지엄

책 〈고맙습니다〉와 〈웃으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방법〉

죽음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외면하고픈 게 죽음일 것이다. 신경정신학자 올리버 색스와 소설가 줄리언 반스가 각각 죽음에 대해 쓴 에세이가 나왔다. 작가들 모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지 않지만 그것이 삶의 한 과정이라는 것 역시 부정하지 않는다.



떨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너의 죽음, 그의 죽음, 그들의 죽음도 말하기 괴로운데, '나'의 죽음이라니... 더더욱 생각하기 고통스럽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 그러나 각자에게는 저마다의 죽음." 카뮈의 말이다. 우리는 모두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나에게서는 그런 사건이 닥치지 않을 것처럼 생을 살아간다. 계속 살아가라는 유전자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종(種)의 본능일 테다. 그러므로 이 낯고 익숙한 동사가 '나'를 주어로 할 때, 우리는 의식의 향방을 기필코 다른 쪽으로 돌려버린다.

올리버 색스의 〈고맙습니다〉(알마 발행)와 줄리언 반스의 〈웃으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방법〉(다산책방 발행)은 우아하면서도 우직한 태도로 자신의 죽음 앞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는 에세이다. 전자가 시한부 삶을 선고받고 생애 마지막 쓴 몽클하고 품격 있는 산문이라면, 후자는 나이 예수를 넘기며 자연스레 죽음의 임박을 체감하게 된 지식인의 지적이고도 시니컬한 '죽음론'이다. '이 삶은 좋았다'로 요약할 수 있는 올리버 색스의 산문이 따스하고도 인간적인 어조로 건네는 다정한 감사의 작별인사라면, 줄리언 반스의 〈웃으면서 죽음을...〉은 음악과 미술과 문학의 역사를 작가 자신의 가족사와 종횡으로 가로지르며 적나라한 죽음의 순간과 유형들을 독자 앞에 들이대는 저돌적인 '죽음학' 강의다. 스타일은 다르지만, 인간 존재라는 강도의 저 깊은 곳까지 탐침을 밀어 넣는 담대하고도 강인한 작가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에 감사한다

〈고맙습니다〉, 올리버 색스 지음·김명남 옮김, 알마

'의학계의 계관시인'으로 불려온 올리버 색스는 10년 전 진단받은 희귀병 안구흑색종이 간으로 전이돼 2015년 8월 별세했다. 생의 마지막 2년간 쓴 네 편의 에세이를 모은 책 〈고맙습니다〉는, 80세 생일을 맞는 설렘과 기대를 담은 첫 에세이 '수은'을 제외하면, 살아갈 수 있는 날이 6개월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의사들의 말을 들은 후 쓴 글이다. 〈나는 침대에서 내 다리를 주웠다〉 〈깨어남〉 등의 책을 통해 인간과 의학을 한데 엮은 휴먼 드라마를 선보여온 그는 감사의 염으로 여든 해 남짓의 생을 회고한다.

마지막 눈을 감는 날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해서,

그 삶이 쉽고 안락한 것이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열여덟 살의 색스는 아들이 게이인 것을 알게 된 어머니로부터 “혐오스러운 것.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라는 잔인한 말을 들어야 했고, 의사 자격을 획득한 27세에는 고향 영국을 훌쩍 떠나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고독한 신대륙에서 삶의 토대를 새로이 구축해야 했다. 신대륙에서는 암페타민 중독으로 죽었다 깨어났으며, 40대에는 등산 중 실족으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는 ‘중환자’의 처지가 되었다.

“두렵지 않은 척하지는 않겠다”고 고백하면서도 “무엇보다 강하게 느끼는 감정은 고마움”이라고 말할 때, 이 작가가 말하는 감사는 반경이 넓다. 사랑을 주고받았다, 남에게 많은 것을 받았고, 조금쯤은 돌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없었더라도 그는 감사의 말로 영원한 무의 세계로 떠나는 소회를 밝혔을 것이다. 생각하는 동물로서 사유하고, 사회적 동물답게 세계와 교류해온 충만한 삶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지각 있는 존재이자 생각하는 동물로 살았다. 그것은 그 자체

만으로도 엄청난 특권이자 모험이었다.” 인식과 사유에 바쳐진 삶. 죽음은 삶의 결산이지, 복권 같은 것이 아니다.

믿지 않는 신을 그리워함

〈웃으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방법〉,

줄리언 반스 지음·최세희 옮김, 다산책방

지성과 위트가 번득이는 글쓰기로 영국적 스타일의 전범을 보여 온 소설가 줄리언 반스(70)는 기독교 문명을 살아가는 무신론자가 죽음의 공포와 맞닥뜨렸을 때의 고통을 정면 돌파하고자 한다. 반스 가문의 족보와 예술사를 탈탈 털어 온갖 죽음의 유형을 집대성하는 그의 모습은 다소 신경증적으로 보일 정도지만, 누구도 죽음의 순간 의연하지는 못했다는 진실의 근거들이 축적될수록 독자는 절로 작가의 편이 된다. “나는 인간이 죽는 다양한 방식을 일람표로 만들 것”이라고 한 몽테뉴의 말을 실행에 옮기듯 반스는, 에밀 졸라는 막힌 굴뚝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었고, 괴테는 단 하루 동안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무시무시한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힌 채 숨을 거뒀으며, 라벨은 자신의 곡을 듣고 감탄하며 작곡가 이름을 알려달라고 할 정도의 기억상실 상태로 5년에 걸쳐 서서히 죽어갔음을 상세히 열거한다. 수많은 죽음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행해지지만, 사무치는 공포 속에 껌뻑한 무(無) 속으로 소멸해버린다는 본질에서는 모두 동일하다. 거기에는 동물 종의 차이조차 없다.

신을 믿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는 부류-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를 대표해 고금의 수많은 죽음을 주유하면서도, 작가는 생이 어떠해야 한다는 성급한 결론은 도출하지 않는다. 죽음에 관해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향후 서사가 자동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이 이 주제가 가진 힘이기 때문이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신이 그림다.” 이 문장으로 시작한 책은 그러므로 무신론자의 신을 재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나날의 삶 속에서, 인간사의 아웅다웅 속에서, 저마다 자신의 신성(神聖)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것. 믿지 않는 신을 그리워함은 바로 그런 것 아닐까. ‘나도 여기 있었다’를 대대손손 입증하려는 몸부림 대신 지금 여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죽음이 생에 부여하는 최후의 사명이 바로 이것일 터이다.

글 박선영
한국일보 문화부 기자

사진 제공
알마, 다산책방



별자리 운세도 신통치 않을 때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똑똑똑... 여기가 ‘예술적 상담소’ 맞나요?”

여러분의 어떤 고민도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리는 ‘예술적 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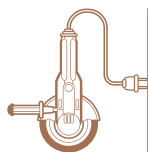
온라인으로 별도 공간을 마련해 고민 상담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주신 고민에 대한 예술적 대책을 찾아 답변을 달어드리니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sfac.or.kr) - 열린광장 혹은 페이스북 탭에서 예술적 상담소를 찾아주세요!

다른 사람의 고민에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채택된 질문은 [문화+서울]에 게재되며, 소정의 상품을 발송해드립니다.



마음 놓고 조소 작업을 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조소를 전공한 독자입니다. 대형 작업은 아니지만 글라진더나 용접, 화공약품을 사용할 때

주변에 소음 등으로 피해를 줄 염려가 적으면서, 무거운 작품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수도 시설이 갖춰진 작업실을 구하려 합니다. 조소 작업에는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고가 밀이나 비어 있는 방범초소 컨테이너가 눈에 많이 띄는데도 임차할 방법이 없어요. 서울시내에 조각가들을 위한 작업 공간이 필요합니다. 방치된 공간을 저렴하게 임차하는 방안을 지자체에서 마련해주면 좋을 텐데, 서울의 경우 어느 부분이 지원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으로 다니기엔 차도 필요하고 시간도 낭비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평론가들이 결정하는 작업 공간 대여가 아닌, 마음 놓고 작업할 공간인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예술적 상담소

창작의 첫걸음, 작업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작업실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인터넷 사이트 ‘레인보우큐브 작업실 커뮤니티’의 운영자 김성근입니다. 같은 이름의 공동작업

실을 망원동에서 6년째 운영하고 있고 합정동에 작은 갤러리 공간도 운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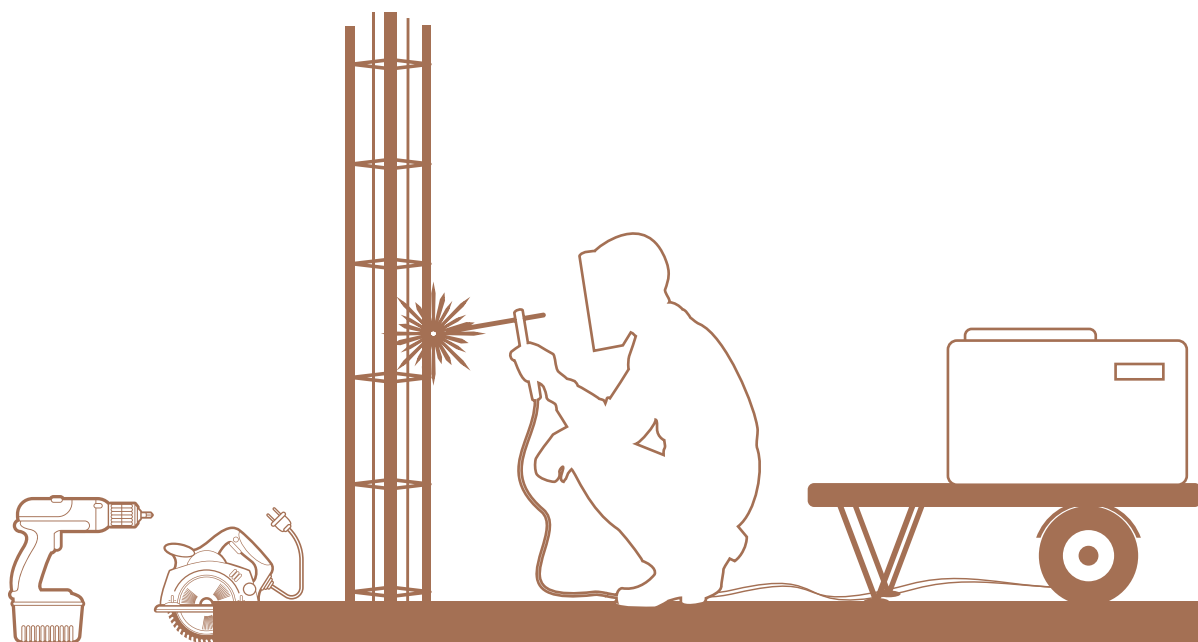
제가 처음 예술 분야와 인연을 맺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공간 찾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와 둘이서 공동작업실 한 칸을 빌려 월세를 내며 사용했고, 이후 부모님께 보증금을 빌려 작은 작업실을 얻었죠. 이후 좋은 인연을 만나 현재 망원동에 위치한 작업실을 좋은 조건에 임차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작업실을 거쳐간 작가 60여 명의 공통된 고민은 바로 안정적인 작업 공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고민이 예술가에게는 창작에 대한 고민보다 우선시되더군요. 회원이 자신이 속한 ‘회사’라는 공간으로 출근하고 자영업자에게는 손수 만든 음식·제품을 손님에게 선보일 공간이 필요하듯이, 예술을 업으로 하는 작가에게 ‘작업실’이라는 공간은 가장 필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발품도 팔아보고 작업실 고민을 주변에 소문내세요

다양한 기구와 약품을 다뤄야 하고 작품의 운반이 용이한 작업실을 구하려는 고충은 그림을 그리는 회화 작가들보다 조소 작가들이 더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글로 드리는 답변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조금이나마



<http://bit.ly/ltAX44>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여건에 맞는 개인 작업실을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기구와 약품을 다루며 작품의 운반이 용이한 작업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가능한 공간을 최대한 구해보시길 권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월세로 인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시야를 넓혀 다양한 지역을 들여다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저 또한 제가 원하는 공간을 찾기 위해 여러 지역과 부동산 중개업소를 오가며 발품을 판 경험이 있습니다. 작업실은 상업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아닌 지역, 조금 오래된 건물 등을 찾아 보면 생각보다 저렴하고 본인과 맞는 공간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마음이 맞는 친구나 선후배와 공동작업실을 꾸려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독자 분과 같이 작업실에 대해 고민 중인 작가 분이 많을 것입니다. 우선 같은 전공을 하는 친구, 선후배와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이는 많은 예술가의 공통된 고민이기 때문에 가까운 지인들에게 본인이 놓인 상황을 최대한 알린다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선배가 운영하는 공동작업실에 마침 자리가 날 수도 있고,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와 공동작업실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독자 분과 같이 다양한 기구와 약품을 다루어야 하고 무거운 작품을 운반하기 쉬운 작업실이 필요하던 몇 명이 모여서 함께 운영하는 작업실에 가보았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이라면 생활하기 꺼릴 오래된 건물의 1층 창고 공간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완벽한 작업실이었죠.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힘을 모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운상가나 다양한 철공 업체가 밀집한 문래동에 공간을 알아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이곳들 외에도 독자님께서 직접 새로운 지역을 발굴해 작업실을 만든다면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작가들이 그곳으로 모일 수도 있겠지요.

꾸준히 창작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바람

셋째, 문화재단이나 관련 지자체 등에 본인의 고충을 이야기해 보세요. 얼마 전 예술인의 창작공간에 대한 논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참석자 중에는 국내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과 예술 환경의 열악함은 물론 창작공간 지원 및 운영에 대한 해외 사례를 연구하신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오래된 공장, 폐쇄된 지하철, 국가시설 등을 예술가를 위한 창작공간으로 탈바꿈해 작업실, 전시실, 연습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비단 예술가의 작업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에 적극 활용돼, 예술가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모두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합니다. 예술가들이 자리한 동네에 문화가 생기고 그곳은 소위 '뜨는 동네'가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월세가 올라갑니다. 최근 몇 년간 서울시내에서 소위 작업실 밀집 지역이라 불리는 곳은 하나둘씩 사라졌고 현재도 그 과정에 놓인 곳이 많습니다. 우리는 또 어딘가로 이동하고 작업실을 열고 작품을 만들어내겠지만 그러한 이동 과정에서 많은 작가가 작업을 포기합니다. 독자님의 고민은 단지 '조소를 전공한 한 작가의 고민'이 아닙니다. 지역에 '문화'라는 뿌리를 내리는 예술가들과 그들이 머무르는 '작업실'이라는 공간이 더 이상 밀려나지 않기를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성근
공간 운영자, 망원동
'레인보우큐브
공동작업실', 합정동
'레인보우큐브 갤러리
www.rainbowcube-
space.com'
'레인보우큐브
작업실 커뮤니티
www.
rainbowcube.co.kr'
운영



〈사진1〉 1950년대 한강인도교 아래 풍경.

한강이 수상레포츠와 시민의 쉼터로 자리 잡기까지

위험한 ‘뽀-트 구락부’의 메카에서 안전한 시민의 쉼터로

서울 한강이 수상 레포츠의 메카로 자리 잡았습니다. 잠실과 여의도, 잠원, 양화, 망원, 뚝섬 등 한강 곳곳에서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 윈드서핑, 요트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강에 처음 수상 레포츠가 도입된 시기는 19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얼마 전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은 교통 체증과 기름값 걱정 없이 다양한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수상 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2〉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뚝섬한강공원에서 윈드서핑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한강에 처음 수상 레포츠가 도입된 시기는 19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강인도교(현 한강대교) 아래에 보트를 클럽이 개장했습니다. 그해 7월 31일자 한 일간지에 “뽀트 애호가들을 위해 환봉구락부라는 구락부가 새로 생겼는데 조선인 유일의 구락부로 그 본부를 한강인도교 아래에 두고 뽀트 운동가들의 편의를 돕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1950년대 ‘뽀-트 구락부’의 메카 한강

예전에는 안전의식이 부족하고,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인지 보트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1937년 9월 젊은 직장인이

주말을 맞아 어머니와 부인, 아들과 함께 한강에서 배를 타다가 부인과 아들이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죽은 부인이 임신 중이어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또 1940년에는 20대 부부가 보트 전복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사진1〉은 1950년대 한강인도교 아래 풍경입니다. 이곳에는 뱃놀이를 할 수 있는 보트클럽이 즐비했습니다. 당시 한강변 유원지는 이곳과 광나루교(현 광진교) 아래 두 곳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보트를 ‘쁘트’라는 된소리로 표기했고, 영어 ‘클럽(club)’을 일본식 음역어인 ‘구락부(俱樂部)’로 써 ‘쁘트 구락부’라는 간판들이 붙어 있습니다. 보트 클럽들이 조금 어수선했어 보이지만 운치는 좋습니다. 다리 너머로 보이는 나지막한 산등성이라도 정경기만 합니다.

1956년 9월에는 폭우로 한강인도교 아래와 광나루교에 있던 보트 75척이 유실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1957년 한 신문에는 한강이 ‘건전한 놀이터 못 된다’는 기획사가 실렸습니다. 하루 평균 2만여 명이 찾는 서울시민의 휴식 공간인 한강변에 변변한 위생시설이 없어 급한 용변을 보려면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차량 통행금지 지역에 일부 권력층이 차를 몰고 들어와 백사장에 누워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에게 만지를 뒤집어씌우기도 한다고 썼습니다. 이 밖에 남녀의 애정 행각과 불륜의 온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특히 보트장의 문제점이 강조돼 있습니다. 15곳의 보트클럽과 60여 곳에 달하는 탈의장은 연일 성황을 이루지만 용변 시설이 없어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십여 평에 달하는 탈의장은 대지 값으로 육만 환씩 상이용사회에 지불한다. 50여 명의 의류와 소지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이 탈의장은 1시간에 100환씩 받고 있으며 부대 1개를 빌리자면 1시간에 100환씩을 더 내야 한다. 또 이곳에서는 남녀용 수영 뺄쓰도 빌려주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탈의장에 용변시설이 한 곳도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 밤이 되면 보트를 뒤에 달고, 광목 포장을 덮은 유람선이 아베크족을 위한 환락의 보금자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밤 9시 경 소형 보트가 철수하면 이 유람선이 하룻밤을 별천지로 즐기려는 남녀들을 싣고 한강 상류로 올라가 그들이 원하는 장소에 닿 줄을 매어놓고, 사공은 보트로 돌아가 다음 날 5시쯤 데리러 왔다고 합니다. 이 유람선은 승객들에게 담요 한 장을 주고, 평일 3000환, 휴일 5000환을 받았대네요. 이 유람선 주 고객은 20대 전후의 학생들이지만 오십 고개를 넘은 노인층도 끼어 있었고, 가끔 저명 인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50대를 노인이라고 표현한



〈사진2〉 한강에서 시민들이 윈드서핑을 즐기는 모습(광진구 자양동 독섬한강공원).

기사 내용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기사에서는 당시 한강을 찾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낮에 오는 사람들과 밤 8시 이후에 오는 사람으로 구분했습니다. 밤 손님들은 대부분 남녀 커플로, 이들은 어두운 백사장에서 애정 행각을 벌였다고 합니다. 또 이런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불량배도 많았다고 하네요.

지금 한강은 안전시설과 경비 시스템이 갖춰진 시민의 쉼터

1959년에는 한강의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매일 같이 익사자가 속출하지만 관내 경찰서에는 경비선 등 충분한 구호 장비가 없다는 겁니다. 여름이 되면 수만 명의 서울 시민이 폭 폭 찌는 도심을 떠나 한강으로 모여드는 상황에서 독섬에는 1개의 망루에 3명의 경관만 배치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보트 클럽에서 보트 한 척을 기름값만 주고 빌려 사용했다고 합니다. 광나루에도 낡은 경찰용 모터보트 한 척밖에 없어 보트클럽에서 하루 2,3척을 빌렸다고 하네요. 경찰들은 보트를 강변에 버려둔 채 낮잠을 자기도 해 익사자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익사자들이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 구역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지금은 한강변 곳곳에 화장실이 설치돼 있고, 안전시설과 경비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 길게 이어진 자전거길 등 다양한 휴식 시설이 구비돼 있습니다. 한강은 전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자신 있게 최고로 꼽을 수 있는 휴식 공간입니다. 그런 한강이 있는 서울에 살고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사진
김현길
전 AP통신 기자.
1950년부터
38년 동안 서울지국
사진기자로 일하며
격동기
한국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기록했다.

글
김구철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대중문화팀장으로
영화를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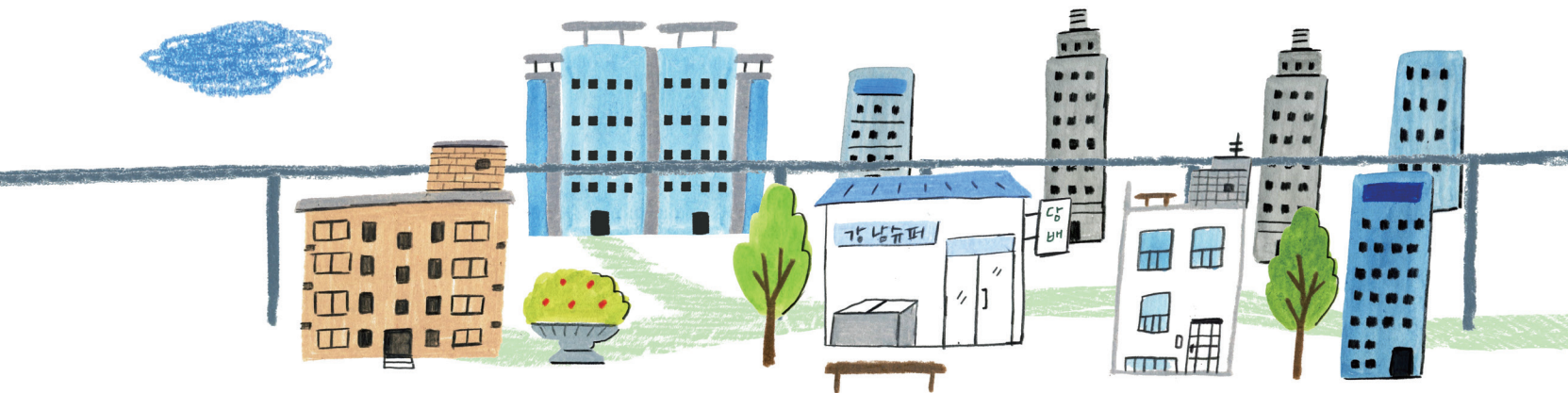
서울살이가 담긴 노래

〈서울 사람〉〈300/30〉〈이호선〉

서울, 서울, 어쩌면 소울

서울은 어떤 면에서 이방인의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나 직장, 하물며 동네 시장에만 가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에서 온 이들을 만날 수 있다. 이방인이 많은 만큼 그들의 애환을 담은 노래도 여럿이다. 툭툭 던지는 가사에는 타향살이의 설움, 혹은 그림에도 변치 않는 ‘소울’이 담겨 있다.



집밥처럼 정겨운, 서울살이를 그린 노래들

‘서울 사람들은 나를 부산 사람이라고 한다. 부산 사람들은 나를 서울 사람이라고 부른다.’

인터넷의 어느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본 글이다. 서울에서 산 지 수년이 되었지만 ‘서울 사람’이라는 말은 여전히 어색하다. 태어나서 10대까지 경상남도에서 살았고, 20대가 되어서 서울에 왔다. 하지만 여전히 사투리가 남아 있고 서울의 지리를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역시 이방인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주로 명절이다. 매일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직업의 특성상 본가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취방에 홀로 있는 건 조금은 서러운 일이었다. 이때만큼은 ‘설움’이 많은 곳이라 ‘서울’인가 보다 하고 툭툭거리기도 해본다. 따뜻한 집밥은 아니지만 이럴 때 위로가 되는 것은 노래였다.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의 〈서울 사람〉이라는 곡은 구수한 베이스 기타와 흥겨운 장단에도 불구하고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울컥하고 이방인의 어린 속내를 건드려버린다.

그 좋은 데서 뭐 하러 올라왔어? / 그땐 뭐 돈 좀 벌려 온 거지 / 그래서 돈은 좀 버셨어? / 어떻게 된 게 벌어도 벌어도 모잘라
서울 사는 노총각의 고향은 경주 / 서울 사는 대학생의 고향은 대전 / 나이 차고 너도 나도 올라오는 통에 / 그 유명한 서울 맛 좀

보러 왔는데 / 장가도 못 가, 취직도 안 돼, 재미도 못 봐, 내 집에도 못 가

서울 와서 꿈은 이뤘소? / 꿈은 커녕 죄만 짓고 사는 것 같아
다 잊고 고향으로 가는 게 어떤가 / 아쉬움 없이 내려가야 되는데
-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의 〈서울 사람〉 중에서

조용과 임병학의 능청스러운 메김 소리와 받는 소리에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는 이제 정말 ‘서울 사람’이 다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꿈을 찾아 고향을 버리고 올라와 이제 더 이상은 어디론가 갈 곳도 없는 서울 사람 말이다.

이 노래 외에도 서울살이에 대한 노래가 꽤 많다. 아마도 서울에 사는 사람도 많고 얽힌 이야기도 많기 때문일 테다. 내가 처음 서울에 와서 정착한 곳은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이었다. 지하방부터 옥탑방까지 인터넷 카페를 뒤져가며 조금이라도 싸고 괜찮은 방을 구하기 위해 부단히 돌아다녔다.

삼백에 삼십으로 신월동에 가보니 / 동네 옥상 위로 온종일 끌려다니네 / 이것은 연탄창고 아닌가. 비행기 바퀴가 잡힐 것만 같아요 / 평양냉면 먹고 싶네

삼백에 삼십으로 녹번동에 가보니 / 동네 지하실로 온종일 끌려다니네 / 이것은 방공호가 아닌가. 핵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한 것



같아요 / 평양냉면 먹고 싶네

- 씨 없는 수박 김대중의 <300/30> 중에서

제목부터 '300(보증금)에 30(월세)'인 이 노래는 자취방을 구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할 내용이다. 어쩌면 요즘 방세는 저렇게 싸지 않다고 손사래를 칠지도 모른다. 서울은 복잡하고 사람도 많지만 집의 형태도 다양했다. 손을 뻗으면 옆집 창문에 손이 닿을 듯한 집, 사람들의 다리만 보이는 해가 짧은 집, 미로처럼 얽혀 있는 골목부터 하늘을 찌르는 고층 아파트까지. 다행히 발품을 열심히 판 덕분에 지하철도 코앞이고 저렴한 원룸을 얻었다. 한동안은 집 앞에 '강남슈퍼'가 있어 이곳이 그 유명한 강남이구나, 생각하기도 했다. 구로디지털단지지역은 일단 위치적으로 한강의 남쪽이기는 아니까.

이방인의 순환선을 타고

진짜 강남에 위치한 회사를 다니게 되면서 줄곧 지하철 2호선을 타게 되었다. 출퇴근을 위해 땅굴로 들어가니 서울의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연극 세트처럼 작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지하철. 뻑뻑하게 머릿수는 많은데 눈의 초점은 모두 흐렸다. 피곤한 몸을 싣고 손잡이 대신 음악을 꼭 붙잡곤 했다. 지하철 2호

선은-서울대입구부터 교대, 건대입구, 한양대, 이대, 홍대입구까지-대학교가 많아 동지를 틀기 좋았고 순환선이라 생활 속의 편리한 헛바퀴가 되었다. 30대에도 2호선 근처를 크게 벗어나진 못하고 있다. 좋게 말하면 여전히 역세권이다. 하지만 점점 다른 호선에 오르는 일이 잦아졌고 이제 역마다 사람들과 구역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다.

여기에 있어 / 여기에 없어 / 누군가 있어 / 아무도 없어
빙글빙글 도네 / 빙글빙글 돌아 / 그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어

- 아침의 노래 <이호선>

어린 시절의 서울은 그저 우리나라 수도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그리고 서울로 주소지를 옮기면서는 가끔은 서울과 설움이란 말을 헛갈려 하며 서울 이방인이 되었다. 이제는 서울 사람이니 지 서울 사람이 아닌가지 무엇이 중요한가 싶을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그리고 서울이라는 말이 조금쯤은 '나의 소울'과도 닮았다는 생각도 한다. 뭔가 복잡하고 바빠 보인다. 가끔은 똑같은 모습이 갑갑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을 들이면 다양한 풍경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다행히도 서울 탐험은 여전히 흥미롭다.

글
김반야
대중음악평론가,
SBS라디오 작가

그림
Meg

예술의 매체, 광장의 목소리가 된 포스트잇

포스트잇, 어디에나 각자의 이유로 붙어 있다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와 지하철 구의역 승강장의 스크린도어 앞이
지난 5월 이후 포스트잇으로 덮이기 시작했다.

5월에 잇달아 발생한 두 비극적 사건에 시민들이
추모의 메시지를 남긴 것이다.

각기 다른 손글씨가 적힌 포스트잇 물결은 쉽게 기억하고
쉽게 버려지던 본래의 속성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파리, 뉴욕에서 포스트잇은 이미 예술 작품이 되기도 했다.

현대인의 속성을 담은 접착 종이의 탄생

어디에나 있다. 손바닥보다 작은 네모난 종이. 수험생의 참고서
곳곳에 끼여 있고, 회사 세미나실의 벽 여기저기에 붙어 있다. 편
의점, 문구점 어디서나 살 수 있고, 누군가의 가방에서 튀어나와
도 이상할 게 없다. 그런데 그 종이가 이상한 곳에서 발견되고 있
다. 파리와 뉴욕의 건물 유리창을 가득 채우며 작은 아트 쇼를 연
출하기도 한다. 강남역 10번 출구와 구의역 전철 스크린도어에
무수히 달라붙어 울음과 분노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한다. 우리
는 그 무엇을 '포스트잇'이라 부른다.

쓰리엠(3M)이 1970년대에 개발한 이 독특한 접착 종이는
실수와 행운이 번갈아 작용하며 태어난 발명품이다. 처음에는
한 연구원이 접착제를 개발하다 실수로 접착력이 약해 금세 떨어
지는 접착액을 만들어냈다. 몇 년 뒤 다른 연구원이 이 불량품을
떠올린다.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성가집에 끼워둔 책갈피
가 자꾸만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다. "가볍게 붙였다가 쉽게 뗄 수
있는 종이를 책갈피 대신 쓰면 어떨까?" 다시 몇 년간의 연구 끝에
태어난 것이 노란색의 3인치짜리 오리지널 포스트잇이다. 처음
에는 고객들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의 비서들에게 견본품을 보냈는데, 바로 그때
부터 주문 전화가 쇄도하기 시작했다.

포스트잇은 삼시간에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20세기
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가볍게 붙였다 뗄 수 있는 것이 즉
흥적 사랑과 닮아 있다. 작지만 밝은색으로 눈에 띄는 모양은 복
잡한 정보 세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을 알려준다. 작은
메모지 형태의 몸통은 디지털 시대 손글씨의 마지막 피난처로도
보인다. 회의실 벽에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옮겨가며 작은
아이디어의 전달자가 되기도 한다.

재치 있는 소통과 예술로 발전한 포스트잇

그러다 최근 포스트잇은 뜻밖의 곳에 나타나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2011년 파리의 여름은 '포스트잇 전쟁'이라는 즐거운 다툼
으로 뜨거웠다. 어느 게임 회사 직원이 무료함을 달래려 유리창
에 포스트잇으로 게임 캐릭터 '팍맨'을 만들어 붙였다. 이를 본 길
건너편의 은행 직원이 또 다른 포스트잇 작품으로 화답했다. 이
어 파리 곳곳에서 포스트잇 아트 배틀이 벌어졌다. 올해 봄에는
뉴욕의 빌딩들이 새로운 포스트잇 전쟁에 들어갔다. 광고 회사의

한 직원이 창에 포스트잇으로 'Hi'라는 글자를 붙였는데, 이를 본 주변 건물의 사람들이 온갖 아이디어로 응답한 것이다. 슈퍼마리오, 스파이더맨 등의 캐릭터만이 아니었다. 건물 전체의 창을 이용해 거대한 마이크를 떨어뜨리는 모습까지 연출했다.

포스트잇 아트는 복고풍의 이미지 놀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색의 낱장 하나 하나는 컴퓨터 화면의 픽셀 같은 역할을 한다. 초창기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에서는 용량 문제 때문에 작은 픽셀들을 하나씩 짚어 그림을 만들어냈다. 파리와 뉴욕의 사무실 노동자들은 그런 추억을 떠올리며 삭막한 빌딩의 유리창을 거대한 그림판으로 변신시켰다.

도심의 또 다른 곳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몰려 있는 포스트잇도 있다. 이들은 저 멀리서 바라보면 안 된다. 가까이 다가가 안에 적힌 글귀 하나하나를 읽어야 한다. 포스트잇은 언제부터인가 작은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대형 콘서트장에서 관객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수단으로도 사용하고, 아이돌 가수를 응원하는 문구를 적어 붙이기도 한다. 팬 사인회에서 스타에게 질문할 내용을 포스트잇에 써서 붙여놓고 활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어느 때부터가 공공장소에서 작은 의견을 표현하

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큐파이 월스트리트(Occupy Wall Street) 운동, 촛불 문화제 등에서 시민은 포스트잇에 다양한 주장을 적어 붙이기 시작했다.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 때는 시민들이 정부 청사의 계단 옆에 다양한 주장을 담은 포스트잇을 붙여 또 다른 토론장을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는 최근 강남역 10번 출구와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앞에서 추모, 사과, 울분, 주장을 담은 포스트잇을 만나게 되었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작지만 큰 메모지

어디에나 있는 작은 종이에, 손으로 글을 써서, 많은 이들이 볼 수 있게 붙여놓았다. 그것은 '내가 찾아왔다'는 방명록, 공개적인 추모사, 자신의 주장을 써 붙인 대자보의 기능을 대신하면서도 그 모든 것과 달랐다. 포스트잇은 죽은 이에게, 남은 이에게, 스스로에게 전하는 내면의 목소리에 가까웠다. 그러나 또한 조금씩 얼굴을 내밀며 '나를 봐달라'며 붙어 있었다. 비바람에 날아가거나, 누군가의 손에 의해 쉽게 뜯겨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또한 SNS를 통해 무수히 퍼져나가기도 했다.

그때 이후 포스트잇이, 거기에 적힌 글귀 하나하나가 달라 보인다. 종고 거래로 택배를 받았는데, '자리가 남아서 과자도 좀 넣었어요'라는 쪽지는 얼마나 다정한가? 현관문에 누군가 써 붙인 '밤중에 쿵쿵대지 맙시다'라는 쪽지는 기분을 과히 좋지 않게 한다. 그래도 다짜고짜 문을 두드리며 소리지르거나 전화로 야단치는 것보다는 낫다. 그것은 어쩌면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전하는 익명의 글과도 닮았다. 조용하고 솔직해서 좋을 수도 있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달아나는 암체질일 수도 있다. 영화 <소셜포비아>에서는 SNS를 통한 마녀사냥을 주인공의 사물함에 가득 붙은 악담의 포스트잇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예전 어느 신문 기사에서 포스트잇으로 가득한 책을 들고 출판사에 찾아오는 할아버지 독자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누군가 포스트잇으로 표시하고 적어둔 것이라면, 우리는 세심히 들여다보고 확인해야 한다. 지적인 내용을 고쳤으면 포스트잇은 이제 필요 없다. 가볍게 떼서 버리면 된다. 그러나 아직 처리하지 못했다면 그대로 두어야 한다. 강남역과 구의역에 붙어 있던 수많은 포스트잇은 아직 우리 마음에 남아 있어야 한다. 성급히 떼어버리고 잊어서는 안 된다.

글
이명석
문화비평가 겸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여행의 즐거움과
인문학적
호기심을 결합한
<여행자의 로망백서>
<지도는 지구보다
크다>
<도시수집가>
<모든 요일의 카페>
등의 저서가 있고,
KBS 라디오
<신성원의 문화공간>,
SBS 라디오
<책하고 놀자>에
고정 출연 중이다.

클래식 음악의 연주와 평가에 대해

하루키가 들은 리스트 말고...

베토벤 연주는 빌헬름 쾰프, 리스트 연주는 라자르 베르만,
누구의 연주는 누구... 같은 작곡가의 작품을 어떤 연주자가 잘 살리는지
비교하며 감상하는 것은 클래식 음악 감상의 즐거움 중 하나다.
베토벤이나 리스트처럼 작곡가가 직접 연주한 것을 들을 수 없는 경우
그 비교는 권위 있는 이들의 상상과 해석에 크게 영향 받기도 하는데,
오히려 관점을 달리해 '원작'에 집중해보는 것은 어떨까.

베르만, 아라우... 누구의 연주가 제대로일까

"현존 피아니스트 가운데에서 리스트를 올바르게 아름답게 표현
해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비교적
요즘 사람 가운데에는 베르만이 뛰어나고, 예전 사람 가운데서
는 클라우디오 아라우 정도가 아닐까 해요."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1947~)의 2013
년 작품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에
서, 작품의 주요 모티프이기도 한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의 〈순례의 해(巡礼の年)〉*가 녹음된 음반을 들으
며, 주인공 다자키 쓰쿠루(多崎つくる)에게 대학 친구 하이다 후
미야키(灰田文昭)가 전하는 감상 중 일부다. 두 사람이 듣고 있
는 음반은 1977년에 발매된 러시아 출신 피아니스트 라자르 베
르만(Lazar Berman, 1930~2005)의 연주다.

소설 속 음악들만으로 음반이나 콘서트가 기획될 만큼, 하
루키는 글의 재료로 음악을 적절히 활용하기로 유명하다. 그의
작품에 언급된 음악을 목록화하거나 연구 대상으로 삼는 사례도
있다. 특히 앞서 인용한 대사에서처럼 특정 '음반'을 제시하며 등
장인물의 말을 빌려 전하는 하루키의 음반 평은, 그 어떤 전문
가의 평론 이상으로 영향력을 발휘한다.

하루키의 소설이 출간되기 약 80년 전인
1934년, 일본의 1세대 서양음악 평론가 노
무라 고이치(野村光一, 1895~1988)는
〈레코드 음악독본〉이라는 저서에서
당시 베토벤의 작품을 녹음한 연
주자들의 음반을 비교하는
글을 남겼다. '쾰프의

베토벤 연주는 슈나벨의 음반이 발매되기 전까지 레코드계의 독보적 존재였다. 바우어의 베토벤도 위대하지만, 캠프에 비하면 별로이고, 그 외에는 베토벤을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여러 명의 연주자가 같은 작곡가의 작품을 녹음한 결과물에 대한 비교 평가라는 점에서, 하루키의 소설과 노무라의 글은 맥락은 다르지만 유사한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정 작품을 어떻게 연주해야 한다는 식의 가치관이 담겨 있는 것도 공통적이다. 같은 곡을 서로 다른 연주자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연주하는 클래식 음악 연주의 특성상, 이와 같은 공개적 평론은 단지 개인의 감상을 넘어서 청취자들의 취향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곤 한다.

클래식의 즐거움, 연주자 비교 감상

노무라의 글에서 거론된 피아니스트들은 독일인 빌헬름 캠프(Wilhelm Kempff, 1895~1991), 오스트리아인 아르투르 슈나벨(Artur Schnabel, 1882~1951), 영국인 해럴드 바우어(Harold Bauer, 1873~1951)로 이들은 각각 1930년을 전후해 베토벤의 작품 연주를 녹음으로 남겼다. 하루키의 소설에서 '예전 사람'으로 지칭되는 칠레 출신 미국인 클라우디오 아라우(Claudio Arrau, 1903~1991)가 리스트의 〈순례의 해〉를 녹음한 시기도 그 즈음인 1920년대 후반경이다.

100년 남짓한 레코딩 역사의 초창기를 장식한 이들은 작곡자가 곧 연주자이던 기존 관습에서 벗어나, 연주에 몰두하게 된 '전업 연주자' 시대의 개척자이기도 하다. 이전 세대 음악가들과 달리, 자작곡보다는 과거의 작품을 매개 삼아 경연(競演)하며 명성을 얻게 된 것이다. 같은 곡을 연주하는 연주자를 두고 비교 평가하는 작업이 근대 지식인의 주요 관심사로 자리 잡은 것도 이때부터이고, 콩쿠르 시대가 열리면서 이러한 관행은 더욱 극대화되었다.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였던 러시아 출신의 라흐마니노프(Sergey Rachmaninoff, 1873~1943)와 프로코피예프

(Sergey Prokofiev, 1891~1953)는 직접 만든 작품을 연주하고 녹음까지 남길 수 있었던 과도기의 대표적 인물들이다. 원작자의 연주만이 작품 해석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원작자의 연주가 남아 있는지의 여부가 이후의 연주자나 감상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동시대에 활동하던 전업 연주자들에 비해, 자신의 작품 연주를 음반 자료로 남긴 이들의 연주를 들으며 표현이 '올바르다'거나 '제대로 연주한다'는 식으로 잘라 평가하는 경우도 당연히 드물다.

베토벤, 리스트의 '원작'을 상상해볼까

만약 베토벤이 직접 연주한 소나타, 또는 리스트가 직접 연주한 '순례의 해'가 남아 있었다면, 이들의 작품을 연주한 후대 연주자들에 대한 평가 잣대도 달라졌을까. 녹음을 남길 수 없던 시대에 만들어진 작품일수록 더 많은 해석과 상상이 덧붙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연주를 비교 평가하는 것은 감상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음악 작품을 고전의 원문에 비유한다면, 연주는 2차 문헌에 해당한다. 녹음과 편집을 거쳐 음반으로 만들어진 자료는 3차 문헌쯤 될 것이다. 원작이 있기에 해석도 가능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베토벤 시대의 음악 청취 행태를 연구한 미국인 음악학자 본스(Mark Evan Bonds, 1954~)는 "과거의 연주 복원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하면서도, 예전 청중이 향유하던 청취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익숙하게 들던 음악이라도 새로운 의식을 갖고 들어볼 것"을 강조한다. 때로는 연주에 대한 자의적 비교나 평가를 잠시 내려놓고, 1차 문헌으로서의 원작에 주목하려는 시도가 필요할 듯하다. 관점의 작은 변화가 전혀 다른 차원의 음악 감상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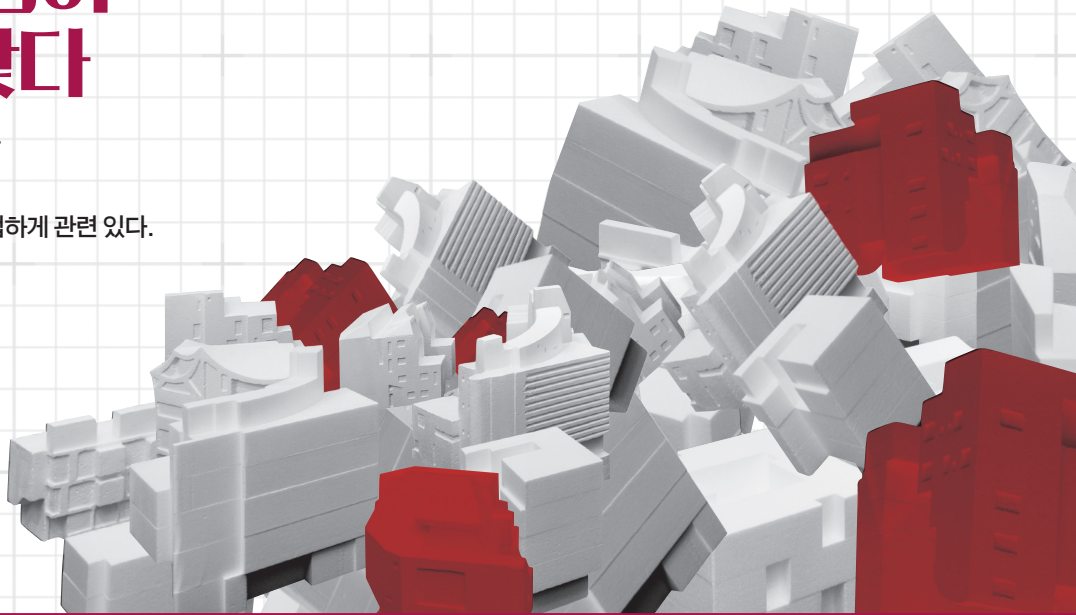
* 한국어판 제목은 '...순례를 떠난 해'로 번역되었지만, 원작 소설의 제목(色彩を持たない多崎つくると'彼の巡礼の年')은 리스트의 피아노곡 〈Années de pèlerinage〉의 일본어 제목 '순례의 해(巡礼の年)'에서 유래한다.

글
장운선
대학과 대학원에서
음악사를 전공하고
'근대 일본의 서양음악
수용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라디오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다.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한국 건축의 '용적률 게임'

용적률, 제약을 넘어 깊이의 마법을 찾다

'좁은 면적에 비해 사람이 많다'는 한국 도시의 특징과
'집=파는 것'이라고 하는 데 자리한 특유의 욕망은
한국의 건축주-건축가의 '용적률'에 대한 강박과 밀접하게 관련 있다.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에서 한국관은
'용적률: 창의성을 촉발하는 제약'을 주제로 서울의
변화 양상과 사람들의 욕망을 다뤘다.
용적률이라는 제약은 어떻게
'깊이'를 담은 건축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



한국적인 건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김중업의 '살아 있는 선'? 김수근의 '궁극의 공간'? 아니면 승효상의 '비움'?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은 거창한 단어가 아니라 숫자에서 찾아 보자고 제안한다. 바로 '용적률'*이다. 용적률은 대지 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연면적)의, 대지 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의미하는 법적 용어다. 그런데 왜 하필 용적률일까? 올해 한국관 주제는 '용적률 게임: 창의성을 촉발하는 제약(The FAR Game: Constrains Sparking Creativity)'이다.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전체 주제인 '전선(前線)에서 알린다(Reporting from the Front)'에 맞춰, 대한민국 건축가의 최전선으로 용적률을 꼽은 것이다. 총괄 예술감독인 김성홍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는 한 간담회에서 "한국 건축가는 땅을 보면 먼저 최대로 지을 수 있는 건물 면적을 생각한다"면서 "용적률은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는 렌즈로, 2010년 이후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다.

용적률의 강박과 창조의 요구 사이에 선 건축가

김성홍 교수의 말처럼 좁은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지어지는 모든 건물은 태생적으로 용적률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죄다 짜낼 것을 요구받는다. 특히 오랫동안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파는 것'

이라는 생각이 만연한 이곳에서, 모든 건물은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수익을 뽑아낼 것을 강요받는다. 심지어 건축가들은 법이 허용하는 용적률보다 더 많이 짓는 '마술'을 요구받기도 한다. 용적률뿐 아니라 일조사선, 도로사선이 마구잡이로 대지 위를 가로지르는 상황에서 건축가들은 건물은 자신이 아니라 건축법규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자조적으로 말하기도 한다. 용적률을 꽉꽉 채운 건물에서 건축가에게 남겨진 것은 '껍데기'뿐인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은 용적률을 '창의성을 촉발하는 제약'이라고 한다. 건축주의 욕망과 공적인 법규가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건축가는 불가능한 창조에 몰두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용적률을 모두 채우고 남겨진 그 얇디얇은 껍데기에 '깊이'를 부여하려고 싸우고 있는 것이다. 철학자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 1908-1961)는 <지각의 현상학(Phenomenology of Perception)>에서 깊이를 가장 실존적인 차원이라 일컬었다. 메를로-퐁티에 의하면 깊이는 나와 물체, 나와 세상이 엮이는 근원적인 차원으로, 거리와 높이의 차원이 파생되어 나오는 첫 번째 차원이다. 또한 건축이론가 알베르토 페레즈-고메즈(Alberto Pérez-Gómez)는 <Architectural Representation and the Perspective Hinge>(1997/2000)에



서 르코르뷔제(Le Corbusier, 1887~1965)의 걸작 라투레트 수도원(Couvent Sainte-Marie de La Tourette, 1959)을 예로 들며, “건물에서의 깊이는, 미학적 물체나 기하학적 투영이나 사진들로 환원될 수 있는 건물의 ‘3차원’과는 구분되는, 시간 속의 원초적인 차원으로 다시 등장한다” 라고 했다. 깊이는 단지 물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건축가에게 깊이는 곧 근원에 다가가려는 욕구가 발현되는 건축적 창구인 것이다.

건축적 깊이는 어떻게 구현되는가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건축가는 어떻게 깊이를 확보하려 하는가? 건축가는 남아 있는 껍데기에서 어떻게든 깊이를 찾기 위해 매달리거나, 껍데기를 모두 벗어던지고 ‘덩어리’에서 깊이를 찾아야만 한다. 건축가 김찬중의 ‘한남동 104 프로젝트’가 전자의 경우라면, 건축가 김인철의 ‘도곡동 Persona’는 후자라고 할 수 있다. 언뜻 보면 가우디의 카사 밀라(Casa Mila)를 연상시키는 한남동 건물의 꿀렁꿀렁한 입면은,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잠시라도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소중한 야외 공간의 역할을 하는데, 독자적인 논리를 가진 듯한 외피는 내부 공간과 대로 사이를 가볍게 부유하며 사용자들에게 자신만의 깊이를 찾을 기회를

제공한다. 내부 공간에 종속되지 않은 외피는 더 이상 입면으로 불리기를 거부한다. 건물의 껍데기는 더 이상 누군가의 껍데기 이기를 거부하고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반면 건축가 김인철의 ‘도곡동 Persona’에서는 상대적으로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진다. 기괴한 형태의 노출콘크리트 건물은, 마치 오래전 땅속에서 솟아오른 거대한 바윗덩어리처럼 다가온다. 하지만 그 덩어리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의 ‘보이지 않는 손’처럼 건폐율과 용적률, 일조사선과 도로사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극단적으로 건축주의 욕망과 법규에 충실한 건물은 역설적으로 엄청난 깊이의 알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다가온다. 마치 거대한 자연의 힘에 의해 만들어진 것처럼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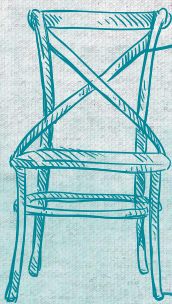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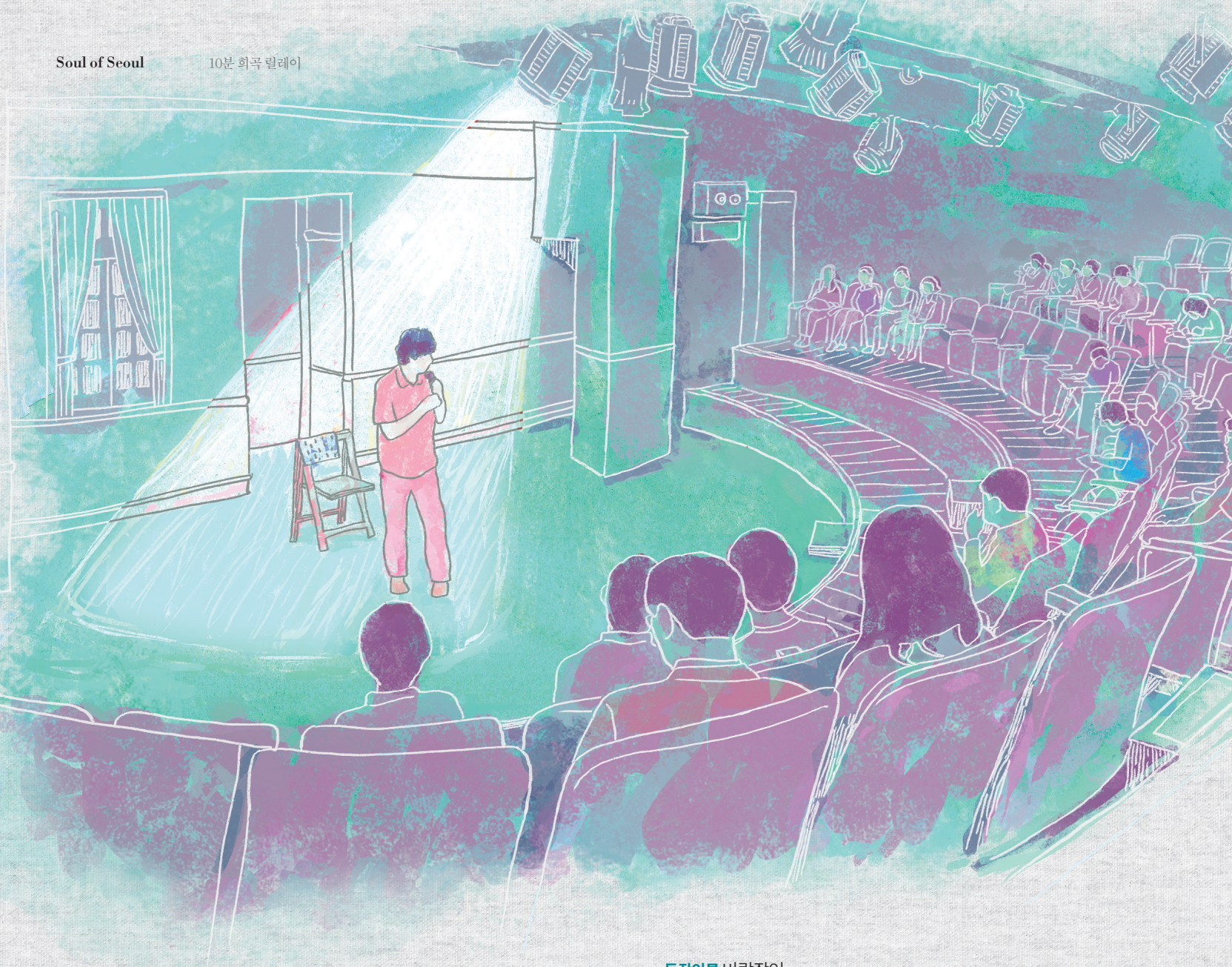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은, 널찍한 공간에 캐노피를 맘껏 날리며 원 없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 거창한 공공건축이나 문화예술 공간이 아닌, 자본주의의 극단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깊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근생과 오피스에서 진정한 시대정신(Zeitgeist)을 찾고 있다. 더는 ‘깊이’를 논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에게 새로운 ‘깊이’를 찾아주려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들이 진정한 건축가다.

* 용적률 = (건축물 연면적/대지 면적) × 100

1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에 전시된, 서울의 전경 사진.
2 건축가 김인철의 ‘도곡동 Persona’ (사진 오른쪽 아래 건물) ©박영채.

글
조한
현재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교수이며
한디자인(HAHN
Design) 대표로
건축·철학·영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시간·공간’에 관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서울, 공간의 기억
기억의 공간:
건축가 조한의
서울탐구》
(돌베개, 2013)가
있다.

사진 제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바람을 잡다

김호준 작

등장인물 바람잡이

때 본공연이 시작되기 전, 이른바 공연 직전

*** 단막극 공연의 첫 번째 순서로 공연되길 바라며, 바람잡이는 관객들에게 이 작품이 공연이라고 생각되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진행되길 하는 바라는 마음이다.

본공연이 시작되기 직전, 바람잡이가 무대 위로 올라온다.

바람잡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왜 여기 나왔는지 알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공연 중엔 휴대폰 전원 꼭 꺼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사진 촬영과 음식물 섭취는 공연 끝난 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공연 시작하겠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전에 우선 양해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종로3가 쪽에 크게 사고가 나서 교통이 마비가 되는 바람에 차들이 꼼짝도 못하고 지하철도 사람들로 폭발 상태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 배우가 지금 전력질주로 뛰어오고 있습니다. 약 10분 후면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니 관객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이런 경험 처음이시죠? 저도 처음입니다. 지금 뛰어오고 있는 배우한테도, 극장에 있는 여러분과 저한테도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에요. 지금은 입에 침이 마르고 발을 동동 구르지만 배우들한테는 이런 경험이 나중엔 좋은 자산으로, 관객분들에게는 특이한 기억으로 남게 되겠죠? 저도 지금은 이렇게 나와서 바람잡이를 하고 있지만 원래는 배우거든요. 혹시 다른 공연에서 저 보신 적 있는 분 계신가요? 역시나 아무도 안 계신군요. 아직 알아봐주는 이 하나 없지만 저도 벌써 5년차 배우입니다. 여러분이 아실 만한 작품 중에는 <햄릿>에서 '병사 5',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신하 2', <템페스트>에서 '원숭이', 얼마 전엔 <페리클레스>에서 '전사' 역할을 했고요. 공연은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나왔는지는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많은 분께서 제가 연극하고 있다고 하면 갑자기 측은한 눈길로 애처롭게 쳐다보세요. 물론 다른 일 하는 거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닙니다. 다만 조금 불편할 뿐인 거죠. 돈가스 먹고 싶는데 떡볶이 먹고, 리바이스 청바지 대신에 유니클로 청바지 입고, 막차 끊었을 때 택시 대신에 심야버스 타고. 조금 불편할 뿐인 거지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무대에 올라올 수 있다는 것 자체 만으로도 감사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이름 없는 배역들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연기하는 저도 대수롭지 않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니까 봐요. 이름이 없어도 무대에 있는 순간에는 그 인물로 존재하기 위해 끝없이 고민하고 열심히 연기하는데 말이지요. 대본에 이름이 없는 거지 그 인물의 삶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는 잘 먹고 잘살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잖아요. 인정받다는 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은 거고,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름이지요.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는데 사람은 이름 석 자를 남기고 싶어 하니까요. 일두 엄마, 재희 아버지, 김 대리, 박 과장님 같은 말이 아니라 전채욱 여사, 김진만 사장님처럼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의 친밀감과 존재감이 훨씬 더 큰 것처럼 말이지요. 거 래쳐 갔는데 거기 직원이 본인 이름을 자꾸 틀리게 부르면 얼마

나 기분 나쁠니까? 단골집 가서 밥 먹는데 아주머니가 이름 불러 주면서 반겨주면 그건 또 얼마나 기쁠니까? 별거 아닌데 받는 상대방은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작은 바람이 있다면 제 배역들이 이름을 갖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불려지고 싶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저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어 인물로서 그 존재로 생생히 살아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연기하는 그 인물도, 또 저도 그만한 가치가 생길 것 같거든요.

배우일 때는 이름이 불려지는 존재로, 바람잡이로 무대에 올랐을 때는 바람잡이로서 이 순간 열심히 존재해서 관객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더 열어드리고 부담 없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긴 얘기를 떠들었네요. 제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는데 사실 오늘 늦게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우들은 공연 3시간 전부터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께 제 바람을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오늘 공연에서 누가 늦게 왔나 하면서 보실 필요 없이 기분 좋은 마음으로 공연 즐겁게 관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공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바람잡이 '○○○'이었습니다.

바람잡이, 관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멋지게 퇴장한다.

작가소개

서울에대 연극과로 입학했으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극작과 수업을 그렇게 많이 듣는 과상함을 보이더니 결국 글은 한 번도 안 쓰고 졸업한 독특한 경력의 소유자. 하지만 뜻밖의 기회에 오세혁 작가의 말에 넘어가(?) 극작의 세계에 발을 디디게 된다.

서른 살이 되기 전에 대한민국에 본인의 이름을 알리겠다는 당찬 포부를 갖고 있었으나 서른한 살이 된 현재 아직 대학로에도 이름을 알리지 못한 연극쟁이. 그러나 그의 바람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연극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을 또한 변함없다고 한다.

배우로서는 물론이고 작가로서도 무한하고 유쾌한 발전 가능성을 내포한 대한민국 연극계의 기대주. 극단 여행자의 비주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간판 배우로 맹활약 중이다.



<10분 희곡 릴레이>는 젊은 작가 혹은 지망생들의 자기발달한 10분 단막극입니다. 서울연극센터 웹진 연극스에 가면 더 많은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webzine.e-stc.or.kr)

www.sfac.or.kr



MON

TUE

WED

치유캠페인 <마음약방>



현대인의 고단한 마음을 문화적으로 위로하는 '치유캠페인 <마음약방>' 이 지난 6월, 프랑스 칸에서 개최된 세계 최고 권위의 <칸 국제광고제>에서 라이언스 헬스-의약 부문 은상, 동상을 수상했다.

<마음약방 1호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시민청(B1)

문의 02-3290-7162

이용시간 9:00~21:00

※ 1. 1, 설날·추석 당일 휴관

<마음약방 2호점>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명길3
서울연극센터

전화 02-743-9333

이용시간 평일·토요일 11:00~20:00

일요일 11:00~19:00

※ 월요일, 1. 1, 설날·추석 당일 및 익일 휴관

- 시민청·시청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거리예술 창작센터
- 관악어린이 창작놀이터
- 서교예술실험센터
- 문래예술공장
- 서울예술치유허브
- 금천예술공장
- 연희문화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신당창작아카데미
- 남산예술센터
- 창작지원팀 제휴협력실
- 문화자원기증센터
- 공공예술센터 축제팀
- 문화나눔팀
- 예술교육팀
- 서울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 정책연구팀
- 기타 문화행사 추천

4

● 이지숙 <공유공간 Negative Show> 전시(~7.23)

● 무료교양강좌

<몸으로 풀어내는 人文, 삶의 몸짓>

● 코리아슬로이츠 <베토벤 시리즈 IV>

11

● 뮤지컬 <조지 엠 코헨 투나잇!>(~7.16)

● 한국플루트학회 제4회 정기연주회

18

● 유터피 목관오중주단 제11회 정기연주회

● 강수현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 이현경 피아노 독주회

25

● 박수경 바이올린 독주회

5

● 제9회 문화정책 국제콘퍼런스(~7.9)

● 오페라 <춘향전>(~7.6)

● 라움아트센터 <Cosi fan Tutte>

● <프리&프리>: 유창-노래하는 천자문 '송서, 율창'

● 연극 <카포네 트릴로지>(~9.18)

● 2016 제7회 현대극페스티벌 <총 맞은 것처럼>(~7.10)

12

● 오페라 <라트라비아타>(~7.13)

● 이해랑 탄생 100주년 기념공연 <헛웃>(~8.7)

● 차이콥스키 오페라

<에브게니 오네긴>(~7.15)

● 뮤지컬 <위키드>(~8.28)

19

● 피아노 듀오 위비&패럴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오페라 갈라 <사랑의 묘약>

● 전시 <한글 담다>(~8.16)

● 뮤지컬 <키다리 아저씨>(~10.2)

26

● 2016 서울국제타악기페스티벌(~7.29)

● 연극 <글로리아>(~8.28)

● 연극 <보물섬>(~8.14)

6

● 제20회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시카프(SICAF)>(~7.10)

● 기타리스트 박종호 리사이틀

<모던 바르크>

● 엄마배우 손혜정의 이야기<보따리> <천하무쌍>(~7.9)

● 2016 키우피우 인형극축제 <구리덩덩 산선비>(~7.9)

13

● 연극 <아버지 le Pere>(~8.14)

● 2016 키우피우 인형극축제 <떠돌이와 떠나는 환경캠프>(~7.16)

● 청춘힐링극 <브라보마이라이프>(~8.21)

● 전시 <랑이랑>(~7.19)

20

● 서울시민예술대학 공연 <카페 콜라주>

● 제24회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7.31)

● 앙코르 산울림 고전극장

<헤라, 아프로디테, 아르테미스>(~7.31)

● 2016한·일 Big Gala Concert

● 전시 <잡음(noise)>(~7.28)

27

● 전시 <꽃보다 꽃스러운 이야기>(~8.2)

● 뮤지컬 <교복속 이야기>(~8.21)

문화가 있는 날

THU

7

- 연희단거리패
〈첫 사랑이 돌아온다〉(~7.27)
- 연극 〈춘풍의 처〉(~7.24)
- 연극 〈결에 있어도 혼자〉(~7.31)
- 〈프리&프리〉: 숙명가야금연주단-
숨, 침 콘서트
- 한일 연극 교류 페스티벌(~7.28)

14

- 제6회 10초 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 연극 〈머머니 La Mere〉(~8.14)
- 〈프리&프리〉: 두 여자-
아름답게 욕망하라(~7.15)
- 영산아트홀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7.16)
- 모나코 왕실 소년합창단 내한공연
- 연극 〈파란별 이야기〉(~7.24)

21

- 핸드메이드코리아페어 섬머(~7.24)
- 오페라 도니제티의 〈돈 파스칼레〉(~7.23)
- 권리장전 2016 검열각하 〈15분〉(~7.24)
-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23 BECK(벡)
- 뮤지컬 〈라흐마니노프〉(~8.25)

28

- 서울시오페라단 〈도요새의 강〉(~7.31)
- 조재혁의 음악상자
- 연극 〈사우나〉(~9.4)
- 권리장전 2016 검열각하
〈광장의 왕〉(~7.31)

FRI

1

- 남산예술센터 〈곰의 아내〉(~7.17)
- 2016 연희문학창작촌
아시아문학창작워크숍(~7.3)
- 김윤지 〈얼굴〉 전시(~7.2)
- 박물관도시 서울 프로젝트
〈서울을 모아줘〉(~12.31)
- 활력콘서트
- 정책포럼 〈문화답론 순환선〉
- 제22회 창무국제공연예술제(~7.10)
- 제24회 젊은연극제(~7.3)

8

-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 2016(~7.11)
- 2016 여우락페스티벌
〈DIFFERENT ANGLES〉(~7.30)
- 마리아칼라스을 유니텔 클래식 7월
〈파우스트〉(~7.24)
- 동화발레 〈신데렐라(Cinderella)〉(~7.9)
- 김수로 프로젝트 5탄 음악극
〈유럽블로그〉(~10.2)
- 무용 〈Passion of Spain〉
- 2016대한민국소극장열전
〈세일즈맨의 죽음〉(~7.9)

15

- 서울시민예술대학 공연 〈시조로 깨뷰나〉
- MMCA 〈아카이브: 과천30〉(~2.12)
- 오페라 〈마술피리〉(~7.16)
- 서울시향의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
- 국립현대무용단 〈나티보스〉(~7.17)
- 뮤지컬 〈잭더리퍼〉(~10.9)
- 뮤지컬 Why?
〈발명 도둑을 잡아라!〉(~8.28)
- 연극 〈망원동브라더스〉(~8.21)

22

- 뮤지컬 〈페스트〉(~9.30)
- 〈프리&프리〉: 남성가야금양상블
춘호가랑-돈화문에 가야금을 걸다
- KBS교향악단 제708회 정기연주회

29

- 특강 책방에서 문학하다 〈운동주처럼〉

SAT

2

- 서울시향의 음악극장 3
- 세종솔로이스츠 콘서트
- 7월-악기아날자

9

- 시민청 〈한마음 살림장〉(~7.10)
- 연극 〈천사여, 고향을 보라〉(~8.7)
- 뮤지컬 〈정글북〉(~8.28)
- 연극 〈시간을 파는 상점〉(~8.28)
- 연극 〈테블 인사이드〉(~7.31)

16

- 남산예술센터 극장투어 〈AboutStage〉
- 남산예술센터 〈곰의 아내〉 대담프로그램
- 〈프리&프리〉: 절대개인-
열려라 돈화문!(~7.16)
- 2016 예술의전당 〈토요콘서트〉
- 연극 〈집을 떠나며〉(~7.24)
- 한승석&정재일
〈바리abandoned〉(~7.17)

23

- 제6회 ScenTrio 정기연주회
- 서울디저트페어3(~7.24)
- 광림아트센터 브런치 콘서트
SEASON2016
- 〈프리&프리〉: 아쟁컴퍼니 아로새김-
깊게 물들다
- 윤학 우리말오페라 〈마술피리〉
- 제19회 서울프린지페스티벌(~7.30)

30

- 시민청 〈토요일은 청미좋아〉
- 모두의 시민청(~7.31)
- 꿈나무예술탐험대-타악랜드(~7.31)
- 여름방학 청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7.31)
- 2016 금호영체임버콘서트: 록스 트리오

SUN

3

- 〈하루키, 미야자키 하야오를 만나다〉
오케스트라
- 마리아칼라스을 〈바람이 불어오는 곳〉

10

- 연주 〈아디오스, 피아졸라〉
- 소누스 트리오 정기연주회
- 앙상블 클라비어의 매직피아노
〈The One Art for One-
판소리 이나래〉(~6.11)

17

- 스페인 내셔널 오케스트라 첫 내한공연
- 아뮤즈 콰르텟과 떠나는 세계음악여행

24

- 서울기타르페트 17주년 정기연주회
- 2016 K-Music, 국악심포니를 꿈꾸다

31

- 해설이 있는 청소년음악회 건반악기
특목 시리즈 2

01

FRI



남산예술센터 2016 시즌 프로그램 <곰의 아내>

남산예술센터와 극공작소 마방진이 공동 제작한 신작. 숲에서 곰의 새끼를 낳고 살아온 한 여자와 현실에서 치열한 경쟁에 시달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로 무엇이 보다 인간다운 삶의 세계인지 묻는다. 2015년 제5회 벽산희곡상을 수상한 작품. 작 고연옥, 각색·연출 고선웅.

일시 7월 1일(금)~17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월 공연 없음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nsartscenter.or.kr 02-758-2150



박물관도시 서울 프로젝트 <서울을 모아줘>

시민의 일상에서 사용되던 물건이 모여 서울의 작은 박물관이 만들어집니다! 사회·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충분한 생활유산을 기록하고자 하는 이번 캠페인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12월 31일(토)

참여방법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클릭 후 '응답하라 2015'

카테고리에 등록

문의 fb.com/museumseoul 02-3290-719



제22회 창무국제공연예술제

민간단체 국제무용제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국제무용제. 올해부터 국제공연예술제로 명칭을 바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춤과 예술을 소개하는 예술제다.

일시 ~7월 10일(일), 7월 25일~7월 27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5시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창무포스트극장, 강원도 화진포해수욕장 해변특설무대

관람료 대극장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소극장 전석 2만 원

문의 02-337-5961



2016 연희문학창작촌 아시아문학창작워크숍

아시아 문학의 방향성과 작가 간의 교류를 위한 워크숍. 9개국의 작가가 참가하는 작은 문학 축제에 특히, 7월 1일에는 낭독공연 및 낭독회인 <리딩 아시아>가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2층 바스락홀에서 열린다.

전시 ~7월 3일(일) 오전 9시~오후 9시 /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1층 시민청갤러리

낭독공연 및 낭독회 7월 1일(금) 오후 6시~8시 /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2층 바스락홀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24-4600



김윤지 <얼굴>

2016 갤러리 맺음 후원공모 선정작. 작가는 자신의 어떤 표정과 모습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했는지 직접 보고 이해하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수많은 얼굴을 캔버스에 담았다.

일시 ~7월 2일(토)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서울예술치유허브 2층 갤러리 맺음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943-9300



서울시향 음악극장-돈 후안

매 공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표제음악 한 곡만을 주제로 선정해, 배우의 연기와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공연. 이번에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발표한 <돈 후안>을 공연한다.

일시 7월 2일(토) 오후 7시 30분

장소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

관람료 전석 2만 원, 학생 1만 원

문의 gangdongarts.or.kr 02-440-0500



하루키, 미야자키 하야오를 만나다

일본 예술문화의 중심, 두 아티스트의 음악이 만났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속 클래식과 미야자키 하야오의 <하울을 움직이는 성>,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오케스트라 연주로 만나보자.

일시 7월 3일(일) 오후 5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R석 4만 5천 원, S석 3만 5천 원, A석 2만 원

문의 stompmusic.com 02-2658-3546



활력콘서트

시민예술가들이 선사하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

일시 평일 오후 12시·12시 30분, 주말 오전 11시~오후 7시

장소 시민청 활짝라운지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0057

04

MON



이지숙 <공유공간 Negative Show>

2016 갤러리 맺음 후원공모 선정작이다. 일상 속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쳤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시공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갖고자 하는 전시다.

일시 7월 4일(월)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서울예술치유허브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943-9300

<시민무료교양강좌>

'몸으로 풀어내는 인문(人文), 삶의 몸짓'

세종문화회관과 문화예술멘토원회회의가 공동으로 개설한 문화예술 무료강좌로 한국무용 전공 이애주 서울대 명예교수가 진행한다.

일시 7월 4일(월) 오후 3시~4시
장소 세종예술아카데미
수강료 무료 *수강신청 필수
문의 sejongpac.or.kr 02-399-1606

05

TUE



제9회 문화정책 국제콘퍼런스(ICCPR)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숙명여자대학교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문화정책 국제콘퍼런스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의 관점으로 문화정책을 이야기한다. 이안 브루마 교수의 개막 발제로 시작해 문화정책의 공공성, 예술경영교육과 인력양성 등의 연구발표와 서울시민예술대학 등의 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일시 7월 5일(화)~9일(토) *날짜 별 시간 다름
장소 숙명여자대학교, 예약당,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문의 iccpr2016.sm.ac.kr 02-710-9969

서울돈화문국악당 개관 전 공연축제 <프리&프리>

국악 전문 공연장인 '서울돈화문국악당' 개관에 앞서 진행되는 공연 축제다. 지난 6월에 시작해 오는 7월 23일까지 계속되며 깊이 있는 전통 국악에서 실험적인 창작 무대까지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일시 ~7월 23일(토) *공연별 시간 다름
장소 서울돈화문국악당
관람료 전석 3천 원
문의 sdtt.or.kr 02-3210-7001~2

06

WED



제20회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SICAF2016)

1995년에 시작한 세계 5대 애니메이션 영화제다. 애니메이션 종사자, 학생들의 등단 기회가 되며 영화제로 수상한 작품은 축제 기간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CGV명동에서 상영된다.

일시 7월 6일(수)~10일(일)
장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CGV명동
*개막식 6일(수) 오후 6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문의 sica.org 02-3455-8422



엄마배우 손혜정의 이야기보따리 <천하무쌍>

어린이극 전문 창작 집단인 극단 마실의 공연이다. 민담 방귀쟁이 머느리를 각색해 방귀를 뀌 수 없는 별에 간 '방귀쟁이'의 문제를 어린이 관객과 함께 풀어낸다.

일시 7월 6일(수)~9일(토) 수·목 오전 11시, 금 오전 11시~오후 8시, 토 오전 11시~오후 3시
장소 오유아트홀
관람료 전석 1만 원
문의 02-6712-0543

07

THU



연희단거리패 <첫사랑이 돌아온다>

연극계 대표 연출가 이운택과 원로 극작가 윤대성의 연희단거리패 30주년 기념공연이다. 치매 노인의 사랑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일시 7월 7일(목)~24일(일)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7시, 일요일·공휴일 오후 3시 *월 공연 없음
장소 계림극장
관람료 일반 3만 원, 청소년·대학생 2만 원
문의 dyoart.com/guerilla 02-763-1268



극단 목화 <춘풍의 처>

남산골기 획공연으로 선보이는 이 연극은 고전 소설 <이춘풍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동시에 전통 탈춤과 꼭두각시놀음을 차용했다. 매주 토요일 공연 후에는 오태석 연출과의 대화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일시 7월 7일(목)~24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
*월 공연 없음
장소 남산골한옥마을 서울남산국악당
참가비 전석 1만 원
문의 hanokmaeul.or.kr 02-2261-0512

08

FRI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 2016

국내 유일의 일러스트레이션과 그래픽 디자인 분야를 소개하는 전문 전시. 참여 작가는 페어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알리고 기획자는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통해 함께 일할 파트너를 찾을 수 있으며 작품구매도 가능하다.

일시 7월 8일(금)~11일(월) 오전 10시~오후 18시

장소 코엑스 D 홀

관람료 성인 1만 원, 어린이·청소년 5천 원

문의 nsartscenter.or.kr 02-758-2150



2016 여우락 DIFFERENT ANGLES(다른시선)

클래식, 대중음악, 재즈, 영화, 드라마, 요리 등 장르와 영역을 넘어선 인물들을 무대 위에서 만난다. 그들이 '바라보는' '느끼는' '해석하는' 우리 음악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연! 이생강 대금 명인과 신관웅 재즈피아니스트의 8일(금)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금)까지 계속된다.

일시 7월 8일(목)~29일(금)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달오름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ntok.go.kr 02-2280-4114

09

SAT



연극 <천사여, 고향을 보라>

극단 이방인의 이번 연극은 인간과 삶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인물들 각각의 관계와 삶의 생생한 묘사, 고독한 내면에 주목한다. 1978년 국립극단에서 이해랑의 연출로 상연한 이후 첫 재공연.

일시 7월 9일(토)~8월 7일(일) 평일 오후 7시, 토 오후 3시·7시, 일 오후 3시 *월 공연 없음

장소 대학로S아트홀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70-4146-7942



한마음살림장

시민예술가가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선보이고 공유하는 시민 소통 장터. 아기자기한 소품부터 다양한 체험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일시 7월 9일(토)~10일(일) 오후 12시~오후 6시

장소 시민청 시민플라자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5817

10

SUN



아디오스, 피아졸라(ADIOS, PIAZZOLLA)

아르헨티나 탱고의 살아 있는 전설로 평가받는 다니엘 후아레스와 알레한드라 아르멘티의 내한 공연. 아르헨티나 현지의 밀로가를 무대에서 재현하며 '쿠아트로시엔토스' 탱고밴드의 연주에 맞춰 라이브 탱고를 선보인다.

일시 7월 10일(일) 금 오후 5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R석 6만 5천 원, S석 4만 5천 원, A석 2만 5천 원

문의 stompmusic.com 02-2658-3546

11

MON



<조지 엠 코헨 투나잇(George M. Cohan Tonight!)>

뉴욕 브로드웨이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세워진 동상의 주인공 조지 엠 코헨. 평생 500여 개의 곡과 51개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작곡하고 31개의 작품을 제작했다. 그의 무대를 존 피터스의 솔로 퍼포먼스로 다시 만나보자.

일시 7월 11일(월)~16일(토)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장소 프로젝트박스 시아

관람료 전석 4만 원

문의 02-796-7704

12

TUE



이해랑 탄생 100주년 기념공연 <햄릿>

고 이해랑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탄생 100주년을 맞는 올해, 이해랑 연극상을 수상한 대한민국 연극계 거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밀도 높은 공연, 관객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해오름극장 무대 위에 객석을 위치시켰다. 연출 손진책, 출연 전무송, 박정자, 손숙, 유인촌 등.

일시 7월 12일(화)~8월 7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30분, 일 오후 3시 *7월 31일(일) *월 공연 없음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문의 www.ntok.go.kr 02-2280-4114-6

13
WED



연극 <아버지(Le Père)>

프랑스 문단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고 재능 있는 작가 플로리앙 젤레르의 연극. <Floride>라는 영화로 개봉해 2016년 영국 올리비에상, 미국 토니상을 수상했다. 자신을 잃어가는 낯선 두려움에 갇힌 노년의 아버지를 배우 박근형이 연기한다.

일시 7월 13일(수)~8월 14일(일) 월·목·금 오후 7시 30분, 수 오후 3시, 주말 오후 3시·7시 30분
*7월 13일 오후 7시 30분, 화 공연 없음, 매주 공연 요일이 다름
장소 명동예술극장
관람료 R석 5만원, S석 3만 5천 원, A석 2만 원
문의 www.ntck.or.kr 1644-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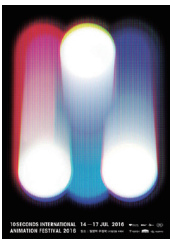
14
THU



연극 <어머니(La Mère)>

연극 <아버지(Le Père)>와 번갈아 공연되는 작품. 배우 윤소정이 맡은 어머니는 출장 다니는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고독 속에 붕괴되어 가는 깊은 상실감을 관객에게 쏟아낸다.

일시 7월 14일(목)~8월 14일(일) 월·목·금 오후 7시 30분, 수 오후 3시, 주말 오후 3시·7시 30분
*7월 13일 오후 7시 30분, 화 공연 없음, 매주 공연 요일이 다름
장소 명동예술극장
관람료 R석 5만원, S석 3만 5천 원, A석 2만 원
문의 www.ntck.or.kr 1644-2003



제6회 10초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세상에서 가장 짧은 길이의 애니메이션을 상영하는 축제다. 시민과 애니메이터들의 출품작을 모두 상영하며 일반 관객이 쉽게 접하기 힘든 작품도 만날 수 있으며 드로잉쇼, 아트마켓, 실패담 토크쇼 등 다양한 체험도 준비됐다.

일시 7월 14일(목)~17일(일) *15세 이상 관람가
장소 탈영역 우정국 (구)창천동 우체국
관람료 무료
문의 10secfest.com 02-957-0967

15
FRI



서울시민예술대학 공연 <시조로 깨·복·나>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울시민예술대학 중 <시조로 깨·복·나>의 결과 발표 공연. 15주 동안 북촌국악체험 공방에서 전통음악, 시조를 노래로 배우며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었다.

일시 7월 15일(금) 오후 2시
장소 북촌국악체험공방 '국악사랑'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758-2000

MMCA <아카이브:과천30>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개관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아카이브 전시다. 과천관의 건축과 대규모 개관전시를 비롯, 지난 30년 동안 미술관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일시 7월 15일(금)~2017년 2월 12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제2원형전시실
관람료 미정
문의 mmca.go.kr 02-2188-6000



국립현대무용단 <나티보스>

국립현대무용단과 벨기에 리에주 극장이 공동제작한 무용극.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한국의 무용수들과 아르헨티나 출신 안무가 애슬린 파롤린이 함께한다. 피아노 연주자와 한국의 전통 타악 연주자가 어우러져 사머니즘적인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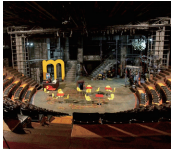
일시 7월 15일(금)~17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장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관람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의 kncdc.kr 02-3472-1420

16
SAT

한승석&정재일 <바리abandoned>

한국적인 음악 판소리와 세계적인 악기 피아노가 만났다. 여성신화 '바리공주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월드뮤직 프로젝트로 극작가 배삼식의 노랫말과 한승석의 소리, 정재일의 연주를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일시 7월 16일(토)~17일(일) 토 오후 7시, 일 오후 6시
장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관람료 전석 5만 5천 원
문의 070-4334-3792



〈남산여담〉 - 어바웃스테이지(About Stage), 〈곰의 아내〉 대담프로그램

남산예술센터를 속속들이 알아보는 〈남산여담〉의 두 프로그램이다. 평소에 볼 수 없던 백스테이지, 기계설비 등 극장 곳곳을 투어하는 어바웃스테이지(AboutStage)와 고선웅 연출, 김주연 드라마터그와 나누는 연극 〈곰의 아내〉 이야기를 〈남산여담〉으로 만나보자.

일시 7월 16일(토)

상세 프로그램 *어바웃스테이지(AboutStage) 오후 12시 / 1인 2천 원, 정원 20명(선착순)
*〈곰의 아내〉 대담 프로그램 오후 4시 40분 / 당일 공연 관람객에 한함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문의 nsartscenter.or.kr 02-758-2150

17

SUN



스페인 내셔널 오케스트라 첫 내한공연

1940년 마드리드에서 공식적으로 발족한 오케스트라로 스페인 특유의 리듬과 밝은 음색은 악단의 전매특허다. 청년세대 중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휘자 안토니오 멘데스가 내한하며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협연한다.

일시 7월 17일(일) 오후 5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R석 22만 원, S석 17만 원, A석 12만 원, B석 8만 원, C석 5만 원

문의 vincero.co.kr 02-599-5743

19

TUE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오페라 갈라

〈사랑의 묘약〉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벌어지는 아기자기하고 몽클한 사랑이야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와 쉽고 재밌는 해설로 서울시오페라단이 공연하는 〈사랑의 묘약〉을 만나보자.

일시 7월 19일(화) 오후 3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관람료 R석 3만 원, S석 2만 원

문의 sejongpac.or.kr 02-399-1000

20

WED



제24회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국내 최대 아동청소년 공연예술축제다. 온 가족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총 10개국 15편의 우수 아동청소년 공연을 선보일 예정. 올해는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프랑스 주간'도 진행된다.

일시 7월 20일(수)~31일(일) *공연마다 시간 다름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소극장,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종로 아이들극장, 미마지아트센터 눈빛극장, 마로니에공원 다목적홀 등 대학로와 오프대학로 일대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assitejkorea.org 745-5862~3



서울시민예술대학 공연 〈카페 콜라주〉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울시민예술대학 중 〈카페콜라주〉의 결과 발표 공연. 움직임(무용)을 통해 해방된 '나'를 표현하고 경험하며 작품으로 만들었다.

일시 7월 20일(수) 오후 7시

장소 시민청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758-2000

21

THU



핸드메이드 코리아페어 섬머

아트, 공예, 취미 등 각 분야의 경계를 허물고 손으로 만든 창작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핸드메이드 전문 전시회다. 600여 명이 넘는 국내외 아티스트들과 7만여 명 이상의 관객이 함께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핸드메이드 오프라인 플랫폼 품이다.

일시 7월 21일(목)~24일(일) 오전 10시 30분~오후 6시 30분

장소 코엑스 B홀 전관

관람료 일반 1만 원, 초등학교생 이하 5천 원

문의 handmaketokorea.co.kr 070-7585-9438

23

SAT



제19회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연극, 무용, 음악, 퍼포먼스,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 열려 있는 독립예술축제다. 올해는 '프린지크루즈 (Fringe Cruise)'라는 테마로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여러 장소에서 50여 개 자유참가팀 공연과 기획,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

일시 7월 23일(토)~30일(토) 오전 10시~

장소 서울월드컵경기장 일대

관람료 1일권 2만 5천 원, 전일권 10만 원, 예술인 1만 5천 원

문의 seoulfringefestival.net 070-7092-8173

26

TUE



2016 서울 국제 타악기페스티벌

타악음악의 세계화를 위해 열리는 축제.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세계 각지의 타악기 연주자들의 수준 높은 연주를 들을 수 있다.

일시 7월 26일(화)~29일(금)

장소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캠퍼스 예술소극장

관람료 All Day 12만 원, One Day 4만 원, Concert 2만 5천 원

문의 ipfs.co.kr 02-541-3173

28

THU



권리장전 2016 검열각하 <광장의 왕>

5개월에 걸쳐 열리는 20개의 극단, 21편의 공연 중 하나다.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것 같은 광장이지만 생각하고 소리치는 자유를 빼앗는 검열로부터 다시 광장, 자유를 되찾는 이야기다.

일시 7월 28일(목)~31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4시~7시, 일 오후 4시

장소 대학로 연우소극장

관람료 전석 1만 원



연극 <사우나>

엄마들에 의한 여자 이야기를 연극으로 풀어냈다. 사우나에 도착해서야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풀어놓는 세 머느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는 기회!

일시 7월 28일(목)~31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시~6시, 일 오후 3시

장소 대학로 열린극장

관람료 전석 4만 원

문의 hn0507.com 070-4230-7789

29

FRI

특강 책방에서 문학하다 <운동주처럼>

<처럼-시로 만나는 운동주>의 저자 김응교(숙명여대교수)의 특강. 운동주의 시를 통해 그의 삶을 풀어내는 시민 대상 문학 프로젝트.

일시 7월 29일(금) 오후 5시

장소 청색종이

참가비 5천 원

문의 02-2676-4300

30

SAT



모두의 시민청

시민청 시민기획단이 만드는 시민 주도 프로젝트로 참여자와 함께할 수 있는 체험, 전시, 교육, 이벤트가 어우러진 축제다. 서울알림이 과거시험, 서울시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미디어아트 전시 등 특별 프로그램도 동시 진행될 예정.

일시 7월 30일(토)~31일(일) *전시는 8.12(금)까지

장소 서울시장 지하1층 시민청 활짝라운지 일대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5812

토요일은 청이 좋아

다양한 문화공연으로 더 나은 서울을 상상하는 '토요일은 청이 좋아'. 매월 새로운 주제의 공연을 시민청에서 만날 수 있다.

일시 7월 30일(토) 오후 1시~5시

장소 시민청 활짝라운지, 시민플라자(B1)

관람료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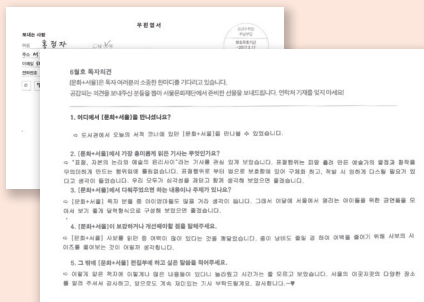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5818

정리 이나래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문화+서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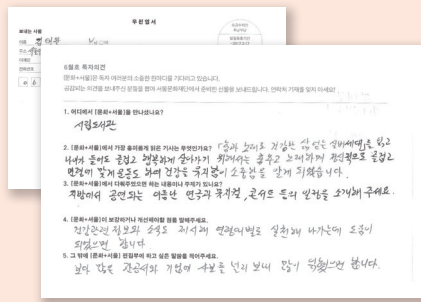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서울문화재단에서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가 있나요?
4. [문화+서울]이 보장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해주세요.
5. 그 밖에 [문화+서울]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1. 도서관에서 오늘의 서적 코너에 있던 [문화+서울]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2. '표절, 자본의 논리와 예술의 윤리 사이'라는 기사를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표절은 피땀 흘려 만든 예술가의 열정과 창작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행위임에 틀림 없습니다. 표절 행위로부터 법으로 보호함에 있어 구체화하고, 적발 시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심각성을 깨닫고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3. [문화+서울] 독자 중 아이엄마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달에 서울에서 열리는 아이들을 위한 공연을 모아서 보기 좋게 달력 형식으로 구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4. [문화+서울] 잡지를 읽던 중 여백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종이 낭비도 줄일 겸, 여백을 줄이기 위해 책의 사이즈를 줄여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5. 이렇게 얇은 책자에 이렇게나 많은 내용이 있다니 놀라웠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았습니다. 서울의 이곳저곳 다양한 장소를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재미있는 기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자 님



1. 시립도서관
2. '춤과 노래로 건강한 삶 얻은 실버 세대'를 읽고 나이가 들어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춤추고 노래하며 정신적으로 즐겁고, 연령에 맞게 운동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임을, 그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지방에서 공연하는 이름난 연극과 뮤지컬, 콘서트 등의 일정을 소개해주세요.
4. 건강 관련 정보와 소식도 제시해 연령대별로 실천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5. 보다 많은 관공서와 기업에 [문화+서울]을 널리 보내 많이 읽혔으면 합니다.

김태완 님

편집 후기

출발어와 도착어 사이로 한타 빛깔
능소화가 피고 졌다.
안현미 |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차장

옛그제, 낮이 가장 긴 하지였다고 하지요?
하루 종일 인공 빛에 의지하다 보니
무언가 부족함이 느껴졌어요.:D
햇빛사워를 해야겠습니다.
이나래 |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전쟁 같았던 6월이 가고
2016년의 반이 남았습니다.
전민정 | 객원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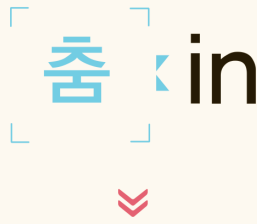
여름엔 즐겁게 읽고
즐겁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아림 | 오니트(주) 편집부

[문화+서울]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문화+서울] 웹진(www.sfac.or.kr/
munhwaplusseoul)에서
매달 업데이트되는 기사를 편리하게 만나시거나,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
면 됩니다.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금천
예술공원, 남산예술센터, 남산창작센터, 동숭아트센터, 대학로연
습실, 두산아트센터, 몽엔몽, 문래예술공장, 백암아트홀, 상명아
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자치구청 문화체육과, 서울
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
희문화창작촌, 잠실창작스튜디오, 정동극장, 중랑아트갤러리, 한
국공연예술센터, 한전아트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

서울문화재단 서울무용센터 웹진



chomin.sfac.or.kr

웹진 춤:in은 무용예술가와 관련 분야 종사자, 관련 기관에 열려 있는
온라인 정보 교류 플랫폼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공연, 워크숍, 오디션과
일자리, 아티스트 등 각종 정보를 직접 등록하고, 웹진 춤:in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매달 이메일로 춤:in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발행)

무용인들의 소통 창구



창작자와 수용자,
비평가와 예술가 간
온라인 소통창구로서
무용계 각 주체의
다양한 관점을 수렴

무용 분야 홍보채널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등록하고
공유하는 홍보채널

무용 전문 정보 제공



무용계의 생생한 정보와
해당 정보의 맥락을
함께 제공하는
창작자 가이드



테마 토크

한국문학 세계화의 화두, 번역

사람과 사람

‘스트리트뮤지엄’ ‘예술통 축제’ 만든 박동훈 핸즈BTL미디어그룹 대표

진실 혹은 대담

공공성을 명목으로 한 선택, 배제, 검열

쟁점 1

조영남 작품 대작(代作) 논란

쟁점 2

홍대 일베 상징 조형물과 표현의 자유

화제 1

〈바람난 미술〉 ‘그림가게’ with 카카오

화제 2

서울예술교육총서 신간 발간

공간 1

문래예술공장 지역문화예술 지원 프로젝트 〈MEET〉

공간 2

일상을 벗고 예술로 씻는 행화탕

7월의 서울문화매뉴얼